

제9회 금산 동학혁명 및 제7회 『의로움』의 금산정신을 구현하는 학술발표회

발표자: 김양식(충북역사학 연구소장)
이동복(금산향토문화연구원장)
백원철(공주대학 교수)
송부웅(한미족 역사대학 학장)



- 일시 : 2011년 11월 28일(월) 오후2시
- 장소 : 금산다락원 소강당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제9회 금산동학농민혁명 및
제7회 『의로움』의 금산정신을 구현하는 학술발표회

- 발행일: 2011년 11월 28일
- 발행인: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이 동 복
(h.p: 010-9335-3634)
- 발행처: 금산인쇄사 (☎ 041-753-5148)

순 서

- ◆ 발간사(금산동학농민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동복) 3
- ◆ 축 사(금산군수 박동철) 4
- ◆ 축 사(금산군의회회장 김복만) 5
- ◆ 축 사(추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길수) 6

◆ 제9회 금산동학농민혁명 학술발표

<주제 1> 1894년 3월 1차 동학농민혁명전쟁에 금산지역에 동학농민군의 역할

- 김양식(충북역사학 연구소장) 7

<주제 2> 1894년 1차 동학농민혁명 중심에 서장옥 선생과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군이 있었다.

- 이동복(금산향토문화연구원장) 20

◆ 제7회 “의로움” 의 금산정신을 구현하는 학술발표회

<주제 3> 금산지역 충절지사에 대한 고찰(남은 정인조, 도곡 양응춘, 오은 오국현 선생을 중심으로)

- 백원철(공주대학교 교수) 33

<주제 4> 우리역사바로알기(광복 후 우리가 배운 국사는 일본이 왜곡 날조한 역사였다.)

- 송부용(한민족 역사대학 학장) 58

발 간 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관장님 내빈을 비롯한 매년 격려해주시는
어르신들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하면 전라도, 그리고 전봉준뿐이지요,

그러나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인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이 금산이었고,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판도를 바꾸게하고, 봉건제도

의 상징인 노예제도를 파기시킨 동학농민혁명 그 중심에, 금산동학농민혁명이 있었다
는 금산사람으로 자부심과 긍지로 승화되어 대한민국에 국민으로 당당해져야 겠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서는! “제 9회 금산동학농민혁명 학술발표”로 동학농민혁명이 최초
로 금산에서 1894년 3월 8일 봉기케 한 “서장옥”선생이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로!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군이 3월12일 금산군수 민영숙이 10개조의 폐정개혁을 약속하
자 3월 14일에 해산과 동시 3월16일경에 무장에 지원케하여 금산지역을 관장하는 “조
재벽” 대접주의 지휘로, 3월 20일 “무장포고”로 3월 26일 “백산” 대회의 “격문”선언,
조직개편 전봉준을 대장으로 추대케하는, 이과정에서 “백산”에 “서대장” 깃발이 높이
서 있었다는, “뜻”은 “서장옥”선생이 동학농민혁명을 교도동원 원칙으로 동학농민혁명
봉기, 전국적 동학농민 전쟁으로 “꺼져가는 고부 동학농민혁명봉기”가 금산동학농민군
으로 혁명의 불꽃 전국 “동학농민전쟁” 으로 발전되게 됐다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
가 증명 되는 것 이었다“라는 동학역사를 밝히는 학술발표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의 금산정신 구현을 위한 학술발표는 “금산의 충절지사 정인조선생,
양응춘선생, 오국환선생 연구발표”와 우리의 역사가 단군조선에서 시작된 약 5000년
의 역사로만 알고 있었으나 “우리역사 바로알기”즉 우리역사가 7만년이란 우리 고대사
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사) 금산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 동 복

축 사

어느덧 한해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쉬움보다는 새로운 시간들에 대한 희망으로 남은 한해를 다듬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희망이란 늘 우리에게 벅찬 감동과 새로움에 대한 기쁨으로 생명을 움트게 하는 단비와도 같은 존재이기에 200여년전 봉건 정부의 수탈과 일본의 침략에 맞선 농민들의 숭고한 희생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더 이상 "난"이 아닌 애국애족혁명으로 인정받아 그 분들의 고귀한 희생의 가치를 이어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생각합니다.

오늘 제9회 금산 동학농민혁명 및 제7회 “의로움”의 금산정신을 구현하는 학술발표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최초의 기포지이며, 최후의 항전지로 3월 1차 동학혁명 봉기의 원천적 에너지였던 우리 금산을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드리며, 이 행사를 위해 애쓰신 이동복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11. 28.

금 산 군 수 박 동 철

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산군의회 의장 김복만입니다.

충절의 고장 금산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학문적 규명을 통해 금산이 갖는 위상을 정립하고자 마련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각종 문헌 발췌 등 잊혀지고 숨겨져 있는 우리의 옛 기록을 세상밖으로, 구체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행사를 준비하신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동복 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자리를 빛내 주시고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충북역사학 김양식 연구소장님, 금산향토문화연구원 이동복 원장님, 공주대학교 백원철 교수님, 한민족 상고역사대학 송부용 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란 ‘한시대가 다른 시대 속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일들에 대한 기록’ 이라 했으며, ‘과거 사실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사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해석 평가하여 재구성할 때 확립되는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학계의 학문적인 규명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재조명한다는 것은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에 서장옥선생과 동학농민혁명군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자랑스런 금산!

그 역사적 사건의 중심, 동학혁명운동의 역사를 끊임없는 고증과 연구로 금산의 선조들이 동학농민운동의 성지로서 입지를 다지고, 필요하다면 역사적 사실의 규명과 나아가 복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금산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되살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1. 28.

금 산 군 의 회 의 장 김 복 만

축 사



국화 향기 그윽한 가을의 끝자락, 금산지역이 동학혁명운동의 원동력 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밝혀 ‘의로움’의 금산정신을 구현하고 금산 동 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역사성을 되살리는 「제9회 금산동학농민혁명 학술 발표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본 학술발표회를 열기까지 많은 준비를 하신 이동복 회장님과 회원님들의 노 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은 외세의 조선에 대한 이익 쟁탈전이 준동하는 가운데 일 본의 침략이 시작되자 동학군들의 폐정개혁 보국안민의 정신으로 척 왜양을 외치며 봉 기가 일어났던 혁명입니다. 금산동학농민혁명도 금산 진산의 연합 공동 농민혁명봉기 가 금산동학혁명군에 지원하여 불씨를 살려 봉기 되었습니다.

우리 금산 교육가족 모두는 금산동학혁명이 전국 최초의 기포이며 최후의 향전이었 다는 사실을 알고 지역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조상들의 의로움을 배워 나가 며 역사 속에서 빛난 우리 고장 금산을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忠과 義를 바탕으로 하는 금산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금산동학농민혁명의 의로움과 정의로움을 배우고 익혀 금산동학혁명의 숭고한 역사성을 되살리고, 혁명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단체로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 11. 28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길 수

동학농민혁명사에서의 금산의 역할과 위상

김양식(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연구소장)

1. 머리말

1894년에 전국적으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은 기존 체제의 한계성을 민족 전면에 노정시키고 역사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그 이후 민을 주체로 한 아래로부터의 근대 사회와 민족 형성에 결정적인 역사적 경험을 제공하였다. 그것은 비록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혁명적 사건이었을지라도, 농민대중들은 궁극적으로 근대적인 인간으로서 누릴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고, 자본주의적인 사회경제 변동속에서 소농민경영의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고, 지배층에 대한 전면적 도전으로 구체제의 해체와 근대국민국가의 성립을 촉진하고, 외세에 대한 전국적 저항으로 민족 자주의식을 고취시켰다.

즉,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왕조 500여 년 동안 형성된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붕괴시킴으로써 새로운 사회로의 통합력을 제고하고 민중적인 방향으로 사회질서가 재편돼 나아가는 방향성과 추동력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동학농민혁명사에서 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다. 이는 그 동안 8회에 걸쳐 진행된 ‘금산 동학혁명 학술발표회’에서 연구·발표되었고 어느 정도 금산의 역할과 위상이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본 발표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과 연구성과를 최대한 종합 정리하여, 다시한번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차지하는 금산의 역할과 역사적 위상을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2.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라, 근본이 쇠잔해지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는 것이다. - - - 우리가 비록 초야에 묻힌 백성이나, - - - 어찌 나라의 위기를 앓아서만 볼 수 있겠는가. - - - 지금 의로운 깃발을 들어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죽음으로써 맹세하는 바이다.』

이는 1894년 3월 20일(양력 4월 25일) 전라도 무장에 모인 농민군들이 반포한 선언서의 일부이다. 위기에 빠진 국가를 보전하고 권력의 횡포에 시달리는 민중들을 구제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이를 계기로 수만명의 농민군이 희생된 동학농민혁명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크게 3단계를 거치면서 전개되었다.

제1단계는 3월 기포 이후 제1차 동학농민혁명 단계이다. 이 시기는 전라도 일대의 농민들이 전봉준·손화중·김개남 등의 지도하에 무장에 도소를 설치하고 봉기 준비를 하여 약 4천여명의 농민군을 편성해서 무장에서 기포하여 먼저 고부를 비롯한 여러 고을의 관아를 점령하고 격파한 다음, 전라도 수도인 전주에 입성한 단계이다.

제2단계는 이른바 ‘집강소기’이다. 이 시기는 청군과 일본군이 조선에 침입하자 두 나라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농민군과 관군 사이에 전주화약이 체결되고 그 결과 농민군이 형식상 자진 해산하여 외국군 철수의 조건을 만들면서 각지에 도소를 설치하고 폐정을 개혁하던 단계이다. 특히 동학농민군은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이 官民相和의 원칙하에 제2차 전주화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라도 53개 군현에 집강소를 전면 설치하여 농민 자치기구로 운영하였다.

제3단계는 9월 재기병 이후이다. 이 시기는 일본군이 철수하지 않고 도리어 조선에서 청·일전쟁을 일으키며 궁궐을 침략하고 마음대로 정권을 농단하고 내정간섭을 자행하자,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하여 재봉기해서 혈전을 전개한 단계이다.

이렇게 근 1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조선의 역사발전 단계가 어떠한 것인지, 그러한 역사발전 단계에서 제기되는 역사적 과제가 무엇이었고 거기에 부응하는 세력이 어떠한 층이였는지, 이들의 요구는 무엇이었으며 그들이 지향한 것은 어떠한 방향이였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후반 조선사회는 내재적인 발전선상에서 볼 때 중세사회가 해체되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 있었다. 이는 곧 자본주의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것으로써, 이 과정에서 가속화되는 농민층 분해와 자본주의적 제관계의 발전은 봉건체제를 해체하는 동시에 새로운 근대사회로의 발전 가능성을 크게 가져왔다.

그렇지만 이같은 내적 발전은 1876년 개항을 계기로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됨으로써 위기를 맞고 있었다. 자본주의 속성상 선진자본주의는 후진자본주의를 종속, 자국의 상품 판매와 자본 투자 및 원료 공급지로 전화시키려는 끊임없는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1876년부터 문호를 세계에 개방한 조선은 외세의 압력을 뚫고 그동안 축적해온 발전 가능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힘든 과제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가권력층과 양반지주층은 봉건적인 통치기구의 법체계로 농민을 억압하고 수탈하였으며, 중세사회의 해체와 비례하여 가중되는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봉건권력을 이용해 벗어나려 하였다. 기존 봉건지배층은 급변하는 사회변동속에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과 실천없이 조선후기 이래 성장한 생산력의 몫을 챙기기 급급하였고, 이를 위해 농민 수탈을 서슴치 않았다. 이들은 더 이상의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오히려 사회모순만 증폭시킬 뿐이었다.

그러자 이에 저항하고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농민층이었다. 이들은 사회변화를 체험하고 봉건체제의 억압성을 의식하면서 점차 이에 항거하는 반봉건투쟁을 전개하였다. 19세기 후반은 농민봉기의 시대라 할 만큼 ‘농민의 분

노'가 폭발해 대소 농민항쟁이 잇달았으며, 1893년은 그 절정을 이루어 60여건 이상이나 발생하였다. 이와 동시에 동학 내부에 있던 전봉준과 같은 사회 혁신세력은 종교운동이 아닌 체제 변혁운동을 추구하였고, 이를 위해 농민층을 적극 끌어들이려 하였다.

1894년 1월 고부 농민봉기는 전봉준과 같은 혁신세력과 농민대중이 결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3월 20일 전라도 무장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알리는 선언서를 각지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농민군은 그동안 묶고 쌓인 중세사회의 찌꺼기를 일소하는데 주력해, 신분해방투쟁을 전개하고, 수탈을 일삼던 수령과 아전 토호들을 징계하고, 농민을 억압하던 제도를 고치고자 하였다. 또한 불법적으로 정치 경제적 침투를 자행하던 외국세력을 비판하면서, 급기야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는 9월부터는 본격적인 반침략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농민군이 지향한 것은 양반지주층 중심의 사회경제구조 타파와 소상공생산자 위주의 평등사회 실현, 민중적 권력기구 창출, 자주적인 민족국가 건설에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농민군의 투쟁과 지향은 보수지배층과 개화파의 이해관계를 부정하는 것이었고,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외교정책과 대립하였다. 그러자 이들은 대대적으로 연합해 농민군 토벌에 나섰다. 이로 인해 189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조직력과 화력이 열세인 농민군은 여지없이 참패, 수만명의 목숨을 역사 앞에 바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대로 농민에게 등을 돌리고 일본과 연합한 개화파세력은 그 댓가로 일본의 조선침략에 일익을 담당하고 이로 인해 그들의 정치적 입지가 축소되어 친일파로 전락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로 가는 일련의 과정이었다.¹⁾

3. 금산 동학농민혁명 전개와 특징

1) 1단계 : 3월 봉기

금산지역 동학도들의 무력 봉기는 3월 초부터 시작되었다. 3월 8일부터 제원역에 모인 1천 내지 3천여 명의 농민들은 이야면(李也勉)을 선봉장으로 금산군에 대해 10개조의 폐정개혁을 요구하였다. 이 봉기는 군수가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14일에 일단 해산하였다.²⁾ 그 과정은 <표 1>과 같다.

1) 김양식, 『근대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신서원, 1998) 참조.

2) 표영삼, 「금산 동학도의 초기 기포」 『제3회 금산 동학혁명 학술발표회』, 2007, 21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표 1> 금산 3월 농민봉기 전개과정

일시	거점지	주요활동
3월 7일	동도소	동학교인들 동도소 설치하고 제원역에 모이라는 통문 발송
3월 8일	제원역	제원역에 동학교인 집결, 기포
3월 9일	제원역, 제원장	고을장터(제원시장)에 진을 치고 도소 설치 및 유숙, 촌민 합류
3월 10일	제원장, 관아	동학교인임을 알리는 방을 붙임, 삼정과 관련된 문서 요구, 공형 납치 문서 조서
3월 11일	제원역	제원역으로 돌아감
3월 12일	관아, 금산천	폐정개혁 10개조가 담긴 소장 제출, 금산천변에 진을 치고 동학 주문 외움, 호장 김원택 및 보부상 반수 김치홍의 집을 파괴, 보수상 접장 임한석 부부 구타
3월 13일	금산천, 제원역	폐정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해산, 동학교인과 촌민의 불화, 제원역에 재집결
3월 14일		동학교도 해산

*자료: 성주현, 「서장옥과 금산지역 동학군의 활동」 『제8회 금산 동학혁명 및 제6회 의로움의 금산 정신을 구현하는 학술발표회』, 2010, 26쪽.

금산의 3월 농민봉기는 다른 지역 동학도들의 동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고부 농민봉기의 추이와 전봉준의 동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894년 1월 10일 일어난 고부 농민봉기는 일시 소강국면을 이루다, 2월 19일경에 이르러 다시 동학농민들이 곳곳에서 모여들어 1천여 명 내외가 되었다. 이들은 ‘保國安民倡大義’라는 큰 깃발을 펴며 반란의 조짐을 보였다.³⁾ 그러자 전봉준은 2월 20일 이전 그 여세를 몰라 전라도 58개 고을 동학 접주에게 ‘倡義檄文’을 띄워,⁴⁾ 동학조직을 활용해 농민봉기를 전라도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창의격문은 각지의 동학도들이 들고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 2월 29일 금구 원평 일대에는 동학도들이 모여 있었다.⁵⁾ 2월 25일과 28일에는 순천과 영광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다.⁶⁾ 3월 10일경부터는 고부 주변의 동학농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는데,⁷⁾ 11, 12일경 동학당 약 3천명 명이 금구로부터 태인을 거쳐 부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목격되기도 하였다.⁸⁾

3) 崔永年, <<東徒問辨>>, 157쪽;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15쪽.

4) 巴溪生, <<古阜民擾日記>>; 李復榮, <<南遊隱錄>>, 갑오 2월 20일조; 黃玠, <<梧下記聞>>.

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38쪽.

6) 黃玠, 『梧下記聞』 首筆, 51쪽.

7) 배항섭, 「1890년대 초반 민중의 동향과 고부민란」 『1894년 농민전쟁연구』 4(역사비평사, 1995), 75쪽.

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43쪽.

이런 상황에서 전봉준은 2월 25일 고부 백산으로 진을 옮긴 뒤 함열 조창에 나아가 전운영을 파괴하고 전운사 조필영을 징치할 것을 촉구함은 물론 3월 1일 줄포의 稅庫를 파괴하였으나,⁹⁾ 더 이상 봉기한 동학농민들이 호응하지 않아 뜻대로 할 수 없었다. 더욱이 신임군수 박원명의 효유가 주효하고 동학농민들도 3월 13일 완전해산하자, 전봉준은 부하 50여 명을 거느리고 무장의 손화중을 찾아가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을 준비하였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금산 농민봉기는 전봉준이 보낸 ‘창의격문’을 받고 봉기한 것인지, 아니면 전봉준과 서장옥의 밀약하에 봉기한 것인지, 그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상호 밀접한 연관하에 전개된 것만은 틀림없다. 특히 금산 봉기는 3월 20일 전봉준과 손화중이 주도하는 무장 기포 이전에 발발한 농민봉기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농민봉기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전봉준 주도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혁명의 불길을 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2단계 : 4월 재봉기

2단계는 3월 20일 전봉준의 무장 기포 이후 금산지역 동학농민군의 봉기이다. 3월 8일 봉기한 금산지역 동학도들은 또다시 4월 1일 1천여 명이 진산 방축리에 모였다. 이들은 전봉준의 무장기포에 호응하기 위해 인근 각지에서 모인 동학농민군들인데, 반농민군의 기습을 받아 114명의 사망자를 내고 부안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농민군 공격에는 용담현령 오정선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반농민군에 밀린 농민군이 부안쪽으로 간 것은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진산에 모였던 농민군이 이동한 이후 금산에는 보부상 수백명이 도훈소(道訓所)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면단위까지 진소(鎭所)를 두어 농민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¹⁰⁾

금산지역 동학농민군의 2단계 봉기는 3월 20일 전봉준의 무장 기포에 호응한 것이며, 그것을 주도한 것은 서장옥 관할하에 있었던 조재벽이었다.¹¹⁾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말에 짐을 가득 싣고 떠나려고 할 때에 마침 서장옥이 관할하는 곳에서 진산군(珍山郡)의 방축점(坊築店)에 회소(會所)를 마련하고 전봉준과 아래위에서 서로 호응하는 모양새로 수 천 명이 회동하였다. 나도 그곳으로 지나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방축점에 당도하였더니, 정말로 5리(里)에 걸쳐 길고 넓게 성찰(省察)이 좌우로 늘어서 있고 위위가 매우 엄숙하였다. 그래서 바로 말에서 내려 걸어서 진중(陣中)에 들어가

9) 장봉선, <<전봉준실기>>, 356쪽.

10) 신순철, 「금산 진산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 연구」 『제5회 금산 동학혁명 및 제3회 의로움의 금산 정신을 구현하는 학술발표회』, 2008, 31쪽.

11) 성주현, 「서장옥과 금산지역 동학군의 활동」 『제8회 금산 동학혁명 및 제6회 의로움의 금산정신을 구현하는 학술발표회』, 2010 참조.

도소(都所)가 있는 곳에 당도하니, 말의 고삐를 잡으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황공스럽게 도소에 가니, 얼굴을 아는 사람은 1~2명에 지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 금산군의 포군(砲軍)에게 모두 죽음을 당하였다.¹²⁾

위와 같은 기록은 4월 1일 금산지역 동학농민군의 봉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는 봉기 주체가 서장옥 관할하에 있던 동학도였다는 점과, 또 하나는 이들 동학도들이 부안으로 내려가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부대에 합류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동학농민군의 3월 봉기가 고부 일대의 전봉준·손화중·김개남 휘하의 동학농민 외에 서장옥 관할하에 있었던 동학농민들도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 전라도에서 전봉준 등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각지를 장악하던 3,4월, 금산지역을 비롯해 충청도 옥천, 회덕, 진잠, 문의, 청산, 보은, 목천 일대에서도 동학농민들이 봉기하여 주둔해 있었으며,¹³⁾ 옥천, 문의, 회덕, 진잠 등지의 동학도들은 굶주린 민중들에게 돈과 곡식을 나누어주고 여러 사람이 모여 날마다 진법을 배우고 있었다.¹⁴⁾ 이들은 무리를 지어 전라도로 내려가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부대에 합세하기도 하였으나,¹⁵⁾ 서장옥의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개된 3월 8일 및 4월 1일 금산지역 동학농민봉기는 서장옥 관할하에 있었던 금산, 진산, 옥천, 영동 등지의 동학도들로서 조재벽이 이끈 동학 조직을 기반으로 전개되었다. 조재벽 포(包)는 서장옥을 연원으로 하고 있으며, 관할 지역은 충북지역인 청산, 옥천, 황간, 영동, 전라도지역인 진산과 고산·금산 일부 지역이었다. 3,4월 봉기는 바로 이들 지역의 동학도들이 동원된 것이다.¹⁶⁾ 이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자세히 규명되었으나, 서장옥이 직접 봉기를 이끌었는지 여부는 연구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서장옥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그 관할하에 있던 조재벽이 주도하였다고 보는 주장은 서장옥이 1893년에 체포되어 1894년 6월에 출옥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신영우, 성주현).¹⁷⁾ 그 근거는 포도대장 신정희가 “나는 작년부터 동학당을 잡기 위해 힘을 다 했고 그중 주요인물 5,6명을 잡아서 지금까지 囚禁中이다” 라고 한 말이 유일하다.¹⁸⁾ 서장옥이 감옥에 풀려난 것은 1894년 6월 28일이다.¹⁹⁾ 문제는 1892-1893년 교조신원운동

12) 『金洛鳳履歷』, 4쪽. 이 기록은 종종 3월 8일 봉기를 말해주는 자료로 활용되곤 하는데, 전후의 문맥으로 보아 4월 1일 봉기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 이유는 김낙봉이 금산을 거쳐 부안에 도착한 시기가 4월초이기 때문이다.

13) 『白石書牘』 『동학농민전쟁사료대계』 3, 453, 456, 459쪽; 『속음청사』 상, 369쪽.

1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342쪽.

1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347쪽.

16) 표영삼, 「금산지역 동학혁명운동」 『교사교리연구』 제1호.

17) 신영우, 「1894년 금산 봉기에 참여한 동학농민군 지도부 검토」 『제5회 금산 동학혁명 및 제3회 의로움의 금산정신을 구현하는 학술발표회』, 2008, 28쪽; 성주현, 「서장옥과 금산지역 동학군의 활동」 『제8회 금산 동학혁명 및 제6회 의로움의 금산정신을 구현하는 학술발표회』, 2010, 22-23쪽.

1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권 141쪽, ‘捕盜大將 兼 扈衛隊將 申正熙氏의 直話’.

1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8권, 54쪽.

을 주도하였던 서장옥이 언제 체포되었는지 여부이다. 필자 역시 위 기록에 근거하여 1893년에 체포된 것으로 보았으나,²⁰⁾ 다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정희가 체포한 동학당 주요인물 5,6명 가운데 서장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은 정황일 뿐 단정할 수만은 없다.

반면에 서장옥이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는 주장은 여러 정황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이동복, 이병규, 조경달, 이영호).²¹⁾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A. 1894년 2월 19일엔 당시 동음면 신촌리의 김용(김홍섭) 집에 다시 모여 행동준비를 구체화하였는데, 여기 모인 사람은 전기 손(손화중), 김(김성칠), 정(정백현), 송(송문수)씨 외에 김개남, 서인주, 임천서, 김덕명, 강경중, 김영달, 고영숙, 최재형들이었다.²²⁾
- B. 徐章玉 管下에서 珍山郡 坊築店의 會所를 說하고 全琿準과 上下相應²³⁾
- C. 4월 4일 아침 高山 성문에 ‘동도대장 徐’의 명의로 된 패서가 발견되었는데, 장졸 3천명을 이끌고 5일에 고산을 통과할 것이므로 1인당 짚신 한 켤레와 동전 1냥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²⁴⁾

서장옥이 직접 금산 봉기를 이끌었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1889년 10월 서울에 체포되어 유배되었다가 1892년 7월에 풀려난 서장옥은 1892-1893년 교조신원운동을 직접 이끌었을 뿐 아니라, 전봉준의 스승으로 일컬어질 만큼 동학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만약 금산 봉기를 서장옥이 직접 이끌었다면, 1894년 동학농민군의 3월 봉기는 서장옥과 전봉준이 상호 협력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한 것일 뿐 아니라, 3월 20일 전봉준·손화중의 무장 기포에 앞서 금산에서 선제적인 봉기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894년 3월 동학농민군 기포는 초기 단계부터 전국적인 혁명으로 시작된 것이며 금산지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굴된 사료에 의하면, 서장옥이 금산 봉기를 이끌었다는 직접적인 증거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사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도 추가 자료를 통해 분명히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20) 김양식, 앞 책, 340쪽.

21) 이동복, 『제8회 금산 동학혁명 및 제6회 의로움의 금산정신을 구현하는 학술발표회』, 2010, 6-16쪽; 이영호, 「1894년 농민전쟁 지도부와 서장옥」 『인하사학』 3, 1995; 조경달, 박맹수 역, 『이단의 민중반란』(역사비평사, 2008, 185-188쪽).

22) <<중앙일보>>, 1965년 11월 5일자, 전봉준 진중 수행원 김홍섭 회고기록(1965년 10월 28일 92세로 사망).

23) 『金洛鳳履歷』, 甲午春, 4쪽.

24) 「동비토록」, 160쪽.

3) 3단계 : 집강소와 수성소 설치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 3단계는 이른바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철수한 뒤 집강소를 설치하던 5월부터 9월에 이르는 소위 ‘집강소기’이다. 금산에도 7월 어느 시기에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5월 보름 이후 농민군이 모두 귀화하였으니 방어하지 말라는 감영의 지시와 집강을 두어 그로 하여금 치안을 담당토록 하라는 전봉준의 통문에 따라, 첫 집강은 용담에 사는 김기조(金己祚), 두번째 집강은 금산 출신 조동현(趙東賢)으로 임명되었다.

그렇지만 집강들이 곧 농민군과 한통석이 되어 소요를 일으키자, 현직에서 물러난 아전 출신 정지환(鄭志煥) 등과 현직 아전, 그리고 박승호·고재학 등은 전참판 정숙조(鄭翹朝)를 내세워 민보군을 조직하였다. 그들은 집강을 폐지하고 수성소(守城所)를 설치한 뒤 농민군을 방어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규율이 잡히고 인심도 점점 안정되어 갔다.²⁵⁾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금산에 집강소가 설치된 계기, 집강소 설치시기, 집강소의 운영 주체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금산에 집강소가 설치된 데에는 전라감영의 공문과 전봉준의 영하(營下) 사통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것이 가능한 시기는 7월 6일 전라감사 김학진과 전봉준 사이에 벌어진 전주회담에 따라 동학농민군의 전라좌우도소가 전라감영에 설치된 이후이다. 그렇다면 금산에 집강소가 설치된 시기는 7월 10일 전후일 것이며 집강 임명과 운영은 상당한 정도 관변쪽의 영향하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집강소가 관내의 치안유지 범위를 넘어서자, 전현직 아전과 보부상 등은 늦어도 7월말 즉각 집강을 폐하고 수성소를 설치하였던 것이다.²⁶⁾

원래 금산은 보부상을 중심으로 보수지배층의 세력이 강했던 지역으로, 1893년 6월 이웃한 진산 동학도들의 공격을 받아 2백여호나 소실되는 속에서도 이를 막아냈다.²⁷⁾ 1894년 3월 동학도와 농민들의 대대적인 봉기 이후 보부상을 중심으로 반동학농민군 조직이 구축되었다. 그런 만큼 전라감영의 지시에 따라 마지못해 보수지배층이 집강소 설치를 용인하였을지라도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금산의 예는 인접지역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무주에도 집강소 명의로 농민군 기구가 설치되었던 것이 사실이나,²⁸⁾ 황현의 『오하기문』 7월조에는 무주·장수·진안·용담·금산이 운봉·하동 처럼 민보군(民堡軍)을 조직해 농민군을 방어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것으로 보아 무주 집강소는 금산 처럼 곧 폐지되었으며, 용담 역시 농민군 대 보수지배층 사이의 수 차례에 걸친 충돌 끝에 늦어도 8월에 들어와 보수지배층의 守城이 이루어졌다.²⁹⁾ 장수도 7월 15일 직후 경내로 들어오는 김개남부대를 민보군이

25) 「各陣將卒成冊」 『東學亂記錄』 하, 702-703쪽; 「錦山被禍交像別具成冊」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17, 478쪽.

26) 黃玠, 「梧下記文」 2, 7월조, 69쪽.

2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31쪽 참조.

28) 『隱錄』, 60~62쪽, 무주 집강소 앞 사통.

29)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 상, 634~635쪽.

막아낼 정도로 보수지배층의 힘은 막강하였다.³⁰⁾

이처럼 금산과 그 인근지역은 ‘집강소기’에 보수지배층이 군사적 우위에 있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은 전라감영의 지시에 따라 치안유지 차원에서 집강소 설치가 일시적으로 허용되었을지라도, 보수지배층의 힘에 눌려 곧바로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정숙조를 중심으로 결성된 금산의 반동학농민군 진영은 각 마을에 통문을 보내 반동학농민군 조직을 확대하였다.

4) 4단계 : 9월 재기병과 大日抗戰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 4단계는 동학농민군의 9월 재봉기에 따른 금산지역 동학농민군의 재봉기단계이다. 전봉준은 9월 10일경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재봉기를 준비하는 동시에 9월 18일 전후 각지 동학도 및 농민들에게 통문을 보내 재봉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충북 옥천 청산에 머물러 있던 최시형 역시 9월 18일 기포령을 내려 전국의 동학도로 하여금 총궐기하도록 하였다.

이에 위기를 느낀 금산지역 반동학농민군 진영은 군사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정부는 동학농민군 토벌에 나선 순무영(巡撫營)은 9월 27일경 금산의 정두섭(鄭斗燮)을 소모관(召募官)으로, 수교(首校)인 정지환(鄭志煥)을 순무영 군관으로 임명하였다. 그에 따라 정지환은 전 참판 정숙조 등과 같이 보부상을 중심으로 창의군을 조직하여 반농민군민군세력(민보군)을 확대 개편하였는데, 그 규모가 1천여 명에 이르렀다.³¹⁾

이에 맞서 금산지역 동학농민군도 재봉기하여 무장을 강화하였다. 주요 집결지는 반동학농민군이 진을 치고 있는 금산읍내를 피해 진산을 택하였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삼례에 머물러 있던 전봉준부대는 10월 11일 삼례를 떠나 다음 날 논산에 도착하였다. 손병희가 이끄는 동학교단 소속 북접농민군 역시 10월 23일 충북 옥천을 지나 공주 대교에서 전투를 벌인 뒤 논산에서 전봉준부대와 합류하였다.

이렇게 전봉준과 손병희가 이끄는 남북접 동학농민군이 공주 공격을 위해 논산에 집결할 무렵, 49일간 남원에 머물던 김개남부대도 10월 14일 북상길에 올랐다. 10월 14일 남원을 떠나 북상을 시작한 김개남부대는 총통을 가진 자가 8천여 명이었고 군수품 행렬이 1백리나 걸쳐 있을 정도로 큰 규모였다.³²⁾ 김개남부대는 임실을 거쳐 10월 16일 전주에 도착하였다.³³⁾

그뒤 김개남부대는 10월 22일 직전에 전봉준과의 연합차 삼례로 향했고, 그중 일

30) 황현, 『오하기문』 2, 갑오 7월조, 69-73쪽. 그뒤 10월에 가서야 장수 점주 황내문은 남원 주력부대 1만여 명을 끌어들여 장수 민보군을 크게 격파할 수 있었다(같은 책, 갑오 10월조, 23쪽).

31) 『儉庵遺稿』, 『錦山郡邑誌』(1960) 참조.

32) 위와 같음.

33) 전주에서의 김개남 활동은 박찬승, 「1894년 농민전쟁기 호남지방 농민군 의 동향」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새길, 1995), 62-63쪽 참조.

부는 고산을 거쳐 금산을 점령하였다.³⁴⁾ 김개남이 전주를 떠난 시점을 22일 직전으로 본 것은 진산·고산 등지의 농민군이 연합해 금산을 공격하기 시작한 날짜가 22일이기 때문이다.³⁵⁾ 10월 22일 동학농민군 수천명은 진산과 금산의 접경지역인 소리내재(松院峙) 일대에서 금산의 민보군 수천명과 대치, 오후부터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승패가 나지 않았다. 드디어 동학농민군은 10월 24일 오전 10시를 기해 총공격을 감행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산 위에서 함성을 지르며 노도처럼 밀고 내려갔다. 민보군은 금산으로 퇴각하였으나, 동학농민군은 맹렬히 추격하여 민보군 64명을 죽였고 군관 정지환은 금산 관아로 끌려다 사살하였다. 또한 소모관 정두섭은 오가면 오동리에서 체포되어 금산읍 장대에 끌려와 총살되었고 그 동안 민보군 맹주 역할을 하던 정숙조는 10월 25일 제원역에서 체포되어 살해되었다. 아울러 관아와 향교, 반농민군 세력의 집이 소각되는 등 금산 반농민군 세력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10월 24일 금산은 동학농민군 수중으로 들어왔다. 그에 따라 영동, 옥천, 무주 등지의 동학농민군이 차례로 금산으로 들어왔다. 그밖에 개남포, 연산포, 공주포, 강경포 소속 동학농민군들도 금산에 왔다 가는 등, 당시 금산은 동학농민군의 해방구나 다름 없었다.³⁶⁾

금산을 점령한 동학농민군에는 김개남이 보낸 선발부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김개남의 일부 부대가 금산으로 출병하였다는 기록과 일치한다. 김개남이 선발대를 보내 금산을 먼저 치게 한 것은 7, 8월 금산 보수지배층들이 수성소(守城所)를 설치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로를 열기 위해 선제공격을 가해 점령한 것이다. 또한 그것은 전봉준·최시형·김개남이 각각 이끄는 농민군 주력부대중 최초의 전투행위였다는 점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차지하는 의의가 크다.³⁷⁾

이와 같은 동학농민군의 금산 점령은 동학농민군 주력군의 본격적인 복상에 앞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에 앞서 천안 목천 세성산전투가 10월 21일 있었지만, 이 전투는 이두황이 이끄는 정부군이 세성산에 집결해 있었던 동학농민군을 공격한 전투이기 때문에 동학농민군의 전략적인 전투로 볼 수 없다. 반면에 동학농민군의 금산 점령은 일정한 전략하에서 동학농민군이 선제적으로 점령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차지하는 의의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금산이 동학농민군에게 점령되자, 김개남부대는 은진에서 연산을 거쳐 진산과 금산 주변에서 보름 정도 머물며 청주 공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진산은 고을 전체가 농민군에 가담하였고,³⁸⁾ 금산은 김개남 선발대를 비롯한 주변 농민군에게 점

34) 황현, 「오하기문」 『대계』 1, 260쪽.

35) 「各陣將卒成冊(錦山被禍錄)」 『동학란기록』 하, 703쪽.

36) 「금산의명순의비」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6, 278-279, 281, 284쪽; 「錦山被禍爰像別具成冊」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17, 478쪽.

3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42쪽.

3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32-33쪽.

령된 10월 24일부터 일본군이 당도한 11월 9일까지 보름 동안 완전히 농민군의 수중에 놓여 있었다.³⁹⁾ 김개남부대가 진산·금산 주변에 머물며 바로 청주 공격을 감행하지 못한 것은 일본군대(후비보병 독립제19대대 본부와 제3중대)가 10월 24~25일 청주, 10월 26일~11월 3일 문의, 11월 5~9일 옥천에 주둔해 있었기 때문이다.⁴⁰⁾

금산지역에 머물던 김개남부대는 금산지역 동학농민군과 함께 청주 공격을 위해 11월 8일경 출발하였다. 김개남이 이끈 동학농민군 연합부대 수만명은 11월 8일 금산, 진안, 고산, 진산 등지에서 일시에 용담을 공격하여 다음날 정오 무렵에 점령하였다.⁴¹⁾ 이때 무주접주 이응백 삼부자가 이끄는 동학군 수천명이 동쪽에서 협공하여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용담을 점령한 김개남부대는 11월 10일 진잠, 11일 회덕 신탄진을 거쳐 13일 청주성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다시 금산방면으로 퇴각하여 태인으로 후퇴하였다.

5) 5단계 : 최후의 전투

김개남부대가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북상한 뒤, 금산에는 일부 동학농민군이 남아 있었으나, 뒤이어 정부군과 일본군이 진입하였다. 11월 10일 정부군은 금산읍에 들어와 동학농민군과 접전, 동학농민군 50여 명이 사살되었다.⁴²⁾ 미니미 쇼지로(南小四郎)이 이끄는 일본군 주력부대는 11월 12일 금산읍에 도착한 뒤 다음날 진산으로 떠나갔으나, 일부 정부군과 일본군은 11월 14일 용담에서 동학농민군과 접전하여 30여 명을 사살하였다. 이때 생포된 동학농민군 20명 가운데 6명은 모두 총살되었다.⁴³⁾ 지역 사정에 밝은 민보군도 다시 활동하면서 숨어 있는 동학농민군이 하나 둘 색출되어 생사의 경계를 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동학농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거나, 깊은 산 속으로 피신하거나, 최후의 항전을 위한 구축하게 되었다. 실제 최공우를 중심으로 하는 동학농민군 일부는 대둔산 암벽위에 진지를 구축하고 이듬해까지 약 3개월간의 끈질긴 항전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농민군들은 일본군과 관군 그리고 각 고을의 민보군에 의해 수많은 희생자를 냈고 살아남은 경우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⁴⁴⁾

39) 「각진장졸성책(금산피화록)」 『동학란기록』 하, 703쪽.

4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63-64쪽.

41)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2, 353-354쪽.

42)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2, 225-226쪽.

43)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 2, 226쪽.

44) 신순철, 앞 글, 33쪽.

<표 2>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사 연표

1893년 6월	진산 동학교도들, 동학 반대하는 금산 공격
1894년 3월 8-13일	동학농민군 수천명, 금산관아 습격
1894년 4월 1일	진산에 동학농민군 수천명 집결, 일부 전봉준부대에 합류
1894년 4월 2일	금산과 태인 동학농민군 내통
1894년 4월 3일	금산군에서 진산과 옥천 동학농민군 방어 위해 병정과 포군 보냄
1894년 6월	진산 동학농민군이 금산 공격, 400호 소각, 동학 반대인사 징치
1894년 7월	금산군에서 민포를 조직, 동학농민군에 대항
1894년 10월 22-24일	삼례를 출발한 김개남부대 선봉대가 금산 점령
1894년 10월 27일	일본 중로군, 양주·금산·진산·청주로 진군
1894년 11월 5일	일본 중로군, 옥천 증약전투 뒤 금산·진산으로 진군
1894년 11월 10일	이접체가 이끄는 정부군이 금산에 도착, 동학농민군 수만명과 교전, 동학농민군 50여명 죽음
1894년 11월 10일	일본 중로군, 금산 도착
1894년 11월 11일	일본 중로군, 진산으로 진군
1894년 11월 12일	교도소중대장 이진호, 금산읍에 도착
1894년 12월 4일	상주 소모영 유격병들이 옥의포 대접주 정윤서 체포하였는데, 그는 1달 전 금산을 점령했던 인물임
1894년 12월 8일	금산 등지의 동학농민군, 용담현 점령, 관아 44칸과 민간 470호 소각, 인명 17명 살상
1894년 12월 8일	군로조사대, 금산에서 황간으로 진군
1895년 1월 23-34일	일본군의 대둔산전투, 진산 출신 동학농민군 25명 희생
1895년 1월 28일	엽정동 잔여 동학농민군 16명 희생, 4백여 명 투항

*동학농민혁명 종합정보시스템 : <http://www.e-donghak.go.kr/> 참조.

4. 맺음말

이상과 같이 5단계로 전개된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 특징은 첫째, 전봉준의 무장 기포 이전 가장 큰 규모의 동학농민군 봉기가 성공적으로 있었다는 점, 둘째, 전봉준의 무장 기포 직후 금산을 비롯한 주변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이 조직적으로 봉기한 점, 셋째, 5월 이후 집강소기에 집강소 설치·운영을 둘러싸고 동학농민군과 보부상을 주축으로 한 보수층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는 점, 넷째, 9월 재봉기 이후 금산 주변지역에서 대대적인 동학농민군의 기포가 이루어져 10월 22일 이후 김개남부대의 청주성 공격로를 열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이 가능하였던 것은 서장옥 관할하에 있었던 진산, 금산, 고산, 옥천, 영동, 황간 등지의 동학농민군이 조재벽 등을 중심으로 연합부대를 구성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조직적으로 결성된 금산의 민보군에 대항할 수 있었고,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동학농민군이 금산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그것은 대둔산에서의 최후 항전과 처참한 죽음이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뚜렷한 지역적 특징을 보이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의 혁명성과 의로운 정신을 공유하고도 남음이 있다.

안으로는 봉건사회의 모순을 타파하고 밖으로는 침략 외세를 물리쳐 자주적인 근대사회를 이룩하고자 한 동학농민혁명이 보여준 반봉건·반외세의 역사 경험과 지향은 잘못된 근대의 방향설정과 그 속에서 형성된 사회구조를 비판하고 지속적인 투쟁의 출발점이 되곤 하였다. 그것은 근현대 민족운동의 수원지와도 같은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역시 그런 이유에서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학농민혁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놓았는지 지난 100년의 역사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할 때 우리 민족의 자주발전의 내적 동력을 확인해주는 소중한 역사적 자산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현재적 의의를 되새김으로써, 지난 1백년의 역사전개 속에서 오늘날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를 전망할 수 있는 역사의식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식은 소위 ‘국제화’·‘세계화’가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서 더욱 요구되고 있다.

1894년 3월 1차 동학농민혁명전쟁의 중심은 “서장옥선생” 과 “금산지역” 동학농민군이 그 중심에 있었다.

이동복(금산향토문화연구원 원장)

<시작하는 글>

1). 1894년 3월 1차 동학농민혁명의 최초의봉기는 3월 20일 무장봉기가 아니고, 3월 8일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봉기가 최초의 “동학농민혁명봉기” 다.

1.에서 자세히 밝힙니다.

2). 3월 1차동학농민혁명의 최고지도자는 전봉준이 아니고 “서장옥” 선생이다.

가. 그기록은 서장옥지휘하의 3).에서 3월 12일 금산동학농민혁명군이 금산읍을 공격했다는 것을설명)

나. 최고지도자가 “서장옥” 이다라는 그기록은 20일 무장기포에서. 21일 포고문이 선언되고, 고부로 부대가 이동하고 3월 25일(26일) 백산에서 동학농민군 조직이 정비되며, 대장에전봉준이추대되고, “격문” 이 선언되는 과정에, “백산” 에 휘날리던 “동도대장깃발” (서장옥을 상징) 이 서있었다는 것이 서포의 상징이었고, 서장옥이 최고지도자임을 확인 해주고⁴⁵⁾ “서장옥” 이 최고 지도자로 지휘 하고 있었다는것 아닌가 “자세한 설명은 2.에서 밝히겠음

다. 무장 3월 20일 기포에 집결은 3월 16일 전후로 모이고, 그중에 남접만히 모였던것이 아니고, 호서의 동학군이 조직적으로 참여했다. 했는데 이는 바로 서장옥지휘하의 금산지역동학농민군이며(1894년 농민전쟁의 1차봉기 김인걸), 또한 4월2일 금산동학군 1000명이 진산 방축점에서 금산 민보군의 공격으로 114명이 살육을 당하고도 전봉준을 지원하기위해, 출발 부안에 도착했을때 무려 4,5만명이였다. 이들이 4월7일의 “황토현” 전투와 전주성 함락의 주력이였다. 4,5만명의 금산동학군의 부안도착의 기록은 있으나(제국공사관보고,1권,한국정신문화연구원.근현대사 자료팀,선인,2000,62쪽) 그활동 상황은, 역할은 기록이 묻혀있다.

서장옥선생이 금산봉기를 비롯, 무장, 고부 백산,에 금산지역동학군과 조재벽대접주(서장옥선생의 휘하)의 활동, 부안의 4,5만명의남접지원 동원이 모두 서장옥선생의 주체적 1차동학농민혁명전쟁을 이끌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정해야한다.

45) 1894년 농민전쟁의 1차봉기,김인걸 92p

3). 금산(鎭山)지역 동학농민혁명전쟁은 어느지역보다 격렬하였다. 일본군 “동학당정토기(東學黨征討記)”에도 “금산현 보다도 더한 참상이 있었을까?”라고 했다.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전쟁은 치열 했었다. 제원역, 금산읍, 진산읍, 용담현,등에서 1894년 3월8일에 기포하여 1895년 2월19일 (음1월24일)의 대둔산 전투까지 1년간에 걸쳐 민보군, 관군, 일본군,과 격렬하게 밀고 당기는 가운데 엄청난 희생자를 냈었다 “라고 했다, 이런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전쟁은 다른지역에서는 한번 봉기하고, 지나치다 한번 전투가 대부분 이었으나, 1차 금산지역동학농민혁명은 전기간에 걸쳐 전투지였다, 그리고 100여년 이전, 1차 동학농민혁명전쟁에 있어서는, 그 중심에 전봉준, 전라도 농민군만이 있어왔다. 금산지역 동학농민봉기는 “공동봉기”를 이루어 (고부민란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 연계치 못한 전봉준은, 민란참가자들이 군현경계를 월경하면 역적으로 처형됨이 두려워 실패했다.) 1894년3월8일 전국 최초의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봉기가 있었고, 활동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전라, 충청, 양도간에 동학당이 봉기하였으므로 우리정부는 장위정영관 홍계훈을 전라, 충청초토사로 하여 병정 800명을 인솔시켜 수로로 파견할것을 결정하였다” (駐日本公使館기록1권,47쪽) 를 보더라도 조선 조정에서는 전라도와 충청도의 농민봉기를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것을 홍계훈의 직책이 “양호(호남,호서)초토사인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뿐만이 아니라 3월 23일” 승정원 일기,고종실록,일성록 “,에(금산일대에서 농민군 1000여명이 집결했다.당시 금산군수 민영숙은 ‘동도소에서 통문을 올려 모인사람이 1천여명이 모이고,폐단을 고칠것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의 첩정(牒呈)’을 전라감사 김문현에올려 왕께 올려짐으로 “의정부에서 심각한사태임을 파악--}사태까지 있었으나, 오로지 전봉준 농민군 그리고 지역적으로 전라도 농민군들의 동향에만 주목해온 인식에서, 호서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충청도 동남부지역) 전라도 동북부지역의 동학농민군의 활동 역사가 묻혀, 버려져 있었다, 금산,진산지역의 동학농민군 동향은 그러한 인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라는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이병주박사논문 2003년4월p, viii). 이런 과정에서 2000년3월24일 제1회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 학술 발표회를 시작으로, “서장옥선생” 지휘하의 금산지역동학농민군의 1894년3월8일 최초의 동학농민혁명 공동 봉기를 시작으로 3월 12일 금산군관아를 장악 군수로부터 10개 조의 폐정개혁요구로 승낙을받았다.여기에서 금산동학농민혁명봉기일이 3월 12일로 인용되고 있는 역사적오류는 황현선생의 “오하기문”에서 금산의 동학농민봉기가 3월 12일로 기록되어 있어 오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아야 한다.다음에 밝히는 사료들이 금산동학농민봉기를 3월 12일 서장옥 지휘하의 금산동학농민군 수천명이 몽둥이를들고 흰수건을 쓰고 금산읍내에있는 아전의 집을 공격까지했다. 이들 서장옥 지휘하의 농민군은 전봉준과 일정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을가능성이 높고,실제 상응하려했다. (金낙봉 “김낙봉이력,” 동학농민혁명사료총서 “7,1996,pp378~379및” 김낙봉이력 “ 나주부분 “李相寔, 朴孟洙, 洪英基” 전남지방 동학농민혁명 자료집 “1996.p.265. 황현 “오하기문” 수필 52쪽.이때통문을발한 주체는 금산 東道所라고한다(배항섭, “1890년

대 초반 민중의 동향과 고부민란”, 1894년 농민전쟁연구 “4, 한국사연구회 1995, pp, 72~73주) 251 및 ” 충청도지역 동학농민전쟁과 농민군지도부의 성격, “동학농민혁명과 동학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997, p, 56) 이와 같이 학자들이,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봉기가, 서장옥선생이 충청도 동남부 전라도 동북부지역으로 공동봉기를 시키고, 남접에서 민요에 참가자들이 2월 20일 이후부터 떨어져 나가고, 이때 서장옥선생을 비롯한 동학지도자들이 동학도로 농민혁명이론다는 원칙을 정하고, 1894년 3월 1차 동학농민혁명의 깃발은 높이 치솟아, 서장옥선생의 지휘로 전봉준장군이 3월 20일 “무장봉기” 를 하게 성취시키고, 4월 7일 “황토현전투” 와 4월 27일의 “전주성 함락” 까지 그 중심세력은 금산지역 동학농민군의 원천적인 힘이었음을 밝힌 역사는 일찍 밝혀졌으나, 학계에서는 외면하고 있다.

1.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이 최초의 봉기지라는 역사적 기록.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봉기 : 서장옥선생의 3월 초, 진산 방축점 도소설치의 목적이 남접과 유기적인 연락 관계 유지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학계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이런 논리는 방축점 도소설치는 서장옥선생이 호서 호남의 중심지역 금산에 확실한 동학농민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 “금산동도작요내력” 에서 남접의 모든지역 동학도 조직 명단이 비치되고 있었음이 새로히 밝혀짐은 서장옥선생께서 남접 전부의 조직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고 “동도작요내력” (금산지역에서 1996년 발견된 “錦山東徒作擾來歷) 문서내용이 6m 20cm 작성자는 금산지역 ” 민보군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3월 7일의 제원역의 동도들 집결에서부터 4월 2일 진산방축점 동도소 토벌을 금산 관군과 민보군이 114명의 동학군을 살육 당하고도 전봉준장군 남접에 지원하기 위해 고부로 출발할때까지의 문서임#

그리고 이문서는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전국 유일의 봉기내력 일지임.)에서 밝혀졌음” 에 이 뜻은 서장옥선생의 교조 신원운동을 공주 집회로부터 삼례집회 광화문 복합상소 보은집회 금구집회까지 주도하며 “보국안민” “폐정개혁” “척 왜양” 조선의 정치 사회개혁을 위한 오랫동안 계획 해 오던 동학농민혁명을 “금산지역을 중심” 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전개 하겠다는 의지로 알수 있는 일 이다. 그렇게 볼수있는 근거는 “금산동도작요 내력” 에 전주성 함락후 2차 농민혁명전쟁시 전봉준을 위시한 남접 지도자들이,

첫째; 김개남장군을 제외하고 다들 공주우금티 전투에 참여했으나, 김개남장군은 10월 24일부터 금산 송티전투(부암전투)에 참여하고 금산읍을 장악하고 11월 9일까지 주둔하다 진잠을 거쳐 청주전투에 참가 서장옥선생과 합류했던 이유는 서장옥선생의 동학농민혁명의 큰 그림속에 한양으로 가는 진로 확보를 위해, 전주를 장악하고 호서 호남의 중간지점의 금산을 확실하게 장악하여 청주를 거쳐 서울로 진입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아

야 한다.

둘째;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봉기는 전봉준장군이 1월10일 고부민란 시작으로 동학농민혁명으로 연계가 실패, 3월13일 완전 부대해산 손화중에게 도피 함으로 끝 나자,

셋째; 서장옥선생의 지휘로 금산지역부터 (충청도 동남부, 전라도동북부지역) “동학농민혁명봉기” 를 시작 3월16일 무장봉기를

지원케하여, 공동봉기를 이루게 하고 전봉준을 대장으로 지휘하게하여, 1차동학농민혁명전쟁으로연계된것 이라고 알아야한다.(금산. 진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연구 이병규 박사논문집 77P)

1). 금산지역동학농민혁명봉기및 내력

ㄱ.봉기일자 : 1894년 3 월 8일(학계에선 1,3월초란 기록 “금산피화록”

2, 3월12일 황현 “오하기문” 3, 3월8일 “금산군지” 기록으로 전해 왔으나 2006년 지역에 묻혀있던 “금산동도작요내력” 이란 고문서가 발견 됨으로 3월8일 이란 역사적 근거가 표영삼선생의 2007년 제3회 금산동학농민혁명 학술발표 논문에 발표함으로 학계에 인정됨)

ㄴ.지휘자 ; 선봉장 이야면 금산대장 박능철

ㄷ.봉기지 : 금산군 제원면 제원역 소재지(제원은 당시 제원도의 찰방역이었음 관할역은 무주 소천역 용담의 달계역 진안의 단령역 고산의 옥포역을 관할하고 있었음)

ㄹ.소요내력 : 서장옥선생의 지휘로 3월8일 금산지역동학농민혁명봉기를한 농민군은 한부대는 용담현을 공격, 관아를 장악 했고, 금산읍에는 9일 오후 수백명의 동학군이 무리를 지어 제원역에서 읍내시장에 진출(기포 목적은 폐정10개조항을 바로 잡기위한 것이었다)

10일에는 아침에 동학군들은 성찰(省察)를 관아에 보내 전세와 대동, 군전, 호감등과 관련된 문서를 거두어 오게하였다. 폐정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고. 실태조사부터 하기위해서였다 그러나 군수 민영숙은 거절하였다. 그러자 동학군들은 2명의 공형을 잡아갔다, 이들은 위협을 느끼고 문건을 건네주겠다고 약속하고 풀려나와 동학도들은 곧 뒤따라 관아로 가서 관련문서를 거두어왔다.

11일 문서에 나타난 부정행위는 누가 주도했으며 주도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위해 고심했다.

부정행위 근절을위한 다짐을 받아내는일, 관장의 정사에대한 득실을 따지기도하고, 이속들의 죄과를 따지기도했다.

당시 동학도들의 행위에 대해 “금산동도작요내력” 기록에서는 “고을이 뒤집히느냐, 아니냐는 이들의 수중에 달렸다” 고 까지 절박하게 표현 했다.

동학군들은 보다 강력한 압박을 가하지않으면 폐정을 바로 잡을수가 없다고 결론을 내

리고 다음날 12일에 각 면에 통문을 보내 면민을 읍으로 1000명을 모이게 하였다.

“동학도들은 읍에 면민을 모이게하고, 일변 악질 좌수를 잡아다 대질도하고 , 일변 부자들에게 비용으로 500냥씩 바치게하였다.”

이때 읍민도 놀랐고 관원들도 놀랐다. 금산 동학지도부는 면민으로 하여 악질 인물을 골라 혼 줄을 내주기도 하였고, 관의 앞잡이로 농민들을 괴롭혀온 호장의 집과, 악질 보부상 반수의 집을 부수게하고 집장을 구타하게 하였다. 당시 호장은 김원택(金源宅)이었다.

한편 10개조 폐정개혁안을 바로 잡아달라고 12일아침 일찍 성찰이 와서 관아에 소청을 냈고,군수 민영숙은 폐정개혁을 약속하자 13일에 금산지역동학농민혁명봉기는 일단락 지었다.

금산에서 활동이 빨리 일단락된 이유는, 서장옥 선생의 지휘로 3월16일에 고부에 도착한 금산지역동학농민군이 3월20일의 동학농민혁명 공동봉기를 성공 시키기위한 지원 활동 이었다고, 사학계에서는 해석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2.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군과, 전봉준 남접과의 오류된 역사를 밝힌다.

100년 넘는 한국 동학농민혁명사가 지역적인 차원을 벗어나 동학교 전반적인 차원에서 고려된 역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오로지 남접의 고부민란, 전봉준에 집중 함으로써 오류된 역사 사실을 밝힙니다.

1).전봉준 장군이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가 아니고, 서장옥선생이라고 수정 되어야 한다.

그간의 동학농민혁명 역사가 본질적인 오류가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가 전봉준장군이라는 사학계의 논리가 오류되었다는 주장이다. 그오류된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밝힙니다

첫째; “동학농민혁명봉기” 라는 역사적 주제가 밝히듯이 동학농민혁명의 주체가 동학교단 차원에서 지도부가 주체가 되어야 함이 원칙일진데, 어찌 전봉준장군이 동학교단의 지도부의 성원이 못되었고 고부 접주라고 고부민란으로 칭하고 있으나 그가 동학교도로 입도 했는지는, 여부가 학계에서 아직도 논란이 있으며 확실한 교도이고 접주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찌 학계에서는 “동학농민혁명봉기지” 라고 할수있는 기준은 동학교 지도부와 연계속에서 동학농민혁명봉기가 이루어짐으로 비로서 동학농민혁명봉기라 할수 있다는 논리로, 진주 민란은 동학교 지도부와 연계가 이루지 못하였다 하여 “민란” 으로 정의 하고 있는 사학계 인데 전봉준장군은 어찌 동학교도인

지가 시비가 되고 있는 상황의 그가 전국 동학교단을 동학농민혁명으로 이끌수있는 동학농민혁명 최고지도자라 동학 역사학계에서 할수 있겠습니까?

둘째; 동학농민혁명 주체 세력은 동학교단 간부들중 교조신원운동을 주도적으로 행함이, 당시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옥고를치르는 교도들을 위하고, 탄압받는 교단도 숨고 도망다니는 상태에서 천주교가 정부로부터 공인된 상태에 즈음하여 “교조신원”이 회복되어야 교단이 합법성을 가질수 있음을, 교주 최시형에게 건의한 주체가, 서장옥이 서병갑과 소장을 지어 궁궐 앞에서 교조신원을 호소하자고 제안한 이들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주체로 공주집회 삼례집회 광화문 복합상소 보은집회 금구집회를 주동 실천한분들이다, 서병갑은 보은집회에서 서장옥을 배신 하고, 서장옥선생이 교조신원운동을통해 깨닫음이 있었으니 “무력투쟁” 뿐 많이 조선의개혁이 해결방법임을 깨우쳤고 그 시작은 광화문 복합상소 때 무장군을 동원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교주및 간부들이 무력투쟁은 불가하다는 다수의 반대로 결행치 못 했으나, 한성의 “척왜양” 외국인들의 출국을 요구하고 한성 장안이 두려움으로 휘말은, 민중의 소리가 울리게 하고,

동학농민혁명을 주동, 전봉준으로 고부민란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으로 발전 연계시켜, 호서 동남부 전라도 동북부지역 동학농민혁명봉기 세력과 전주성을 남북으로 공격 한다는 그의 계획은 좌절 되자 호서 동남부 전라도 동북부를 먼저 공동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봉기” 주도로 동학농민혁명을 지휘하고, 남접이 3월20일 봉기케하고 전봉준을 지휘자로 선택한 주인공이 서장옥선생인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셋째; 1982년 1893년 “교조신원운동” 이후 서장옥선생의 금산의 전국최초의 “동학농민혁명봉기” 과정을 보자.

1)1892년11월 삼례집회시 전봉준이 전라감영에 정소(고을행정의 부당함과 관리들의 부정을 시정하기를 고을관청에 자신들의 요구를 요청하는것) 하고 부각되기 시작해, 삼례집회 해산때 도인들이 무장군수에게 빼앗긴 1000량을 되찾고, 그는 1983년 정월 남원일대의 격문 부착과 집회를 통하여 서장옥선생이 최시형에게 광화문 복합상소를 건의하는데 힘이되도록 호남일대에서 민중을 이끌었고, 앞서 1982년 7월부터 “교조신원” 운동에 힘이되게 하기위하여 남원일대에서 꽤서 부착과 무력항쟁을 꾀했다.

2) 위와 같이 서장옥선생과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김덕명등이 무력투쟁이란 방법과 폐정개혁이라는 사상적 공감대가 확실했었다.

3) “남접” 이란호칭 세력과 전봉준을 미화시키려고 서장옥선생과의 사이가 사제 간이 아니라 년배도 몇살 차이가 안되고 같은 지도자로 평하는 학자들도 있었으나, 이점은

이시점에(2000년대) 확실히 규정 되어야 하겠다

ㄱ, “남접”이란 호칭 내력부터 살펴 본다.

“남접”이란 호칭 내력은 오지영선생의 “동학사”에서 남, 북접설은 최시형선생 당시에 우연히 생겨나온 말이며, 최시형선생이 사는 곳이 북쪽이되어 북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도쿄아사히 신문” 46)에 서장옥을 최시형의 제자라 하였으며, 또 서장옥의 제자 전봉준과 김개남 손화중등이 최시형보다 서장옥의 능력이 위에 있다고 믿고 따름으로써 마침내 남접이라 부르게 되자, 이에 자극을 받은 최시형의 제자들이 최시형에게 권하여 북접이라고 부르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계기로 동학의 남접 북접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앞으로는 동학사 연구자들은 전봉준장군등 남접 지도자들과 서장옥선생의 관계설정은 앞의 셋째 1), 2), 3)의 사료에서 보듯이 남접 지도자들은 서장옥선생의 수하사람들이 증명됨이 확실하니. 이제 전봉준장군의 늪에서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4). 서장옥선생은 왜? 금산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동학농민혁명봉기”를 지휘했나?

첫째; 전봉준장군이 고부민란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 연계하려는 계획이 3월13일 전봉준장군이 민란의 주력부대를 완전히 해산시키고 손화중에게 피신 했다.

이와 같은 상황까지 남접의 지도자라 하는 김개남 김덕명 손화중 그 누구도 동조 하여 봉기치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둘째; 전봉준장군이 1월 10일부터 2월 19일 까지도 동학농민혁명으로 연계시키지 못하자, 서장옥선생이 그간 학자들이 1차 동학농민혁명기간에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치 못했다고 하고 있으나, 2월19일에 동음면 신촌리의 김웅 집에 남접의 지도자들이⁴⁷⁾ 모였을때 서장옥선생이 참석했다는 기록이나왔으며 그날의 회의 내용은 중대한 작전이였다.

ㄱ. 전봉준장군의 명으로 57개주에 동학농민혁명봉기를 촉구하는 통문을 띄우게 하는 일.
ㄴ. 민란의 참여자들이 군현 경계의 월경을 두려워 동학농민혁명으로 연계치 못한것을 극복 하기위해 2월 25일 함열 조창을 공격하기로 하고 시행하려 했으나 월경 문제로 포기하고, 또 3월1일 줄포를 공격하기로 했으나 또 실패 하자,

@ 앞의 1.의 1).2).3).4).을 통하여 서장옥선생이 교조신원운동 전과정, 1894년의 고부민란(단 동학농민전쟁에서는 제외),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봉기, 무장 3월 20일 봉기, 황토현전투의 승리,전주성함락까지, 전과정을 지도부의 중심에서 동학농민혁명최

46) 1895년 5월11일기사

47) 고부민란당시전봉준장군수행원이었던김홍섭씨회고록(1965년11월5일자 중앙일보)

고 지도자였으며 그가 없는 동학농민혁명전쟁은 상정할수 없는 일이며, 혁명은 미완이었으나,부분이나 개혁이 이루어졌고 민중의힘이 위대함을 깨우친 세계적인 대역사적 위업을 이루었다 할것이다. 전봉준등 남접지역에서의 지도자들이 동학농민혁명봉기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상태는 일반적으로 절망뿐 이었게지만, 최고지도자 서장옥선생의 능력은 호서의 동남부, 저라도 동북부의 대접주 조재벽과 남접의 대접주 황하일을 지휘 1894년 3월 20일 무장기포를 시작으로, 3월 25(6)일 백에서의 조직정비 “격문선언” 으로 동학농민혁명전쟁을 발전 시켰다. 여기까지의 과정에서 고부민란의 해산에서, 서장옥선생은 전라도 동북부 호서지방의 동남부지역의 중심지인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봉기를 계획하고 금산군 진산 방축리에 “동학도소” 를 3월초설치, 3월 8일 전국최초로 “금산지역동학농민혁명봉기” 를 지휘하고, 3월16일경에 금산지역동학농민혁명군은 “무장” 에 도착, 3월20일 무장 포고 선언 으로, 3월 25(6)일 격문선언, 동학농민혁명봉기를 했다, 이때의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군의 지휘는 서장옥선생 지휘하의 호서 동남부 전라도 동북부지역을 담당했던 “조재벽” 대접주이다.

2.1894년 2월 20일 전라도 57개주에 통문발송으로 동학농민혁명 명이 이루어졌다는 전봉준의 영웅 논리는 이제 접어야한다.

남접만이 동학농민혁명봉기를하여 황토현전투 전주성 함락까지 이루어 낸것 같히 역사를 오류시키고, 전봉준장군이 전라도 57개주가 통문을 받고 호응 동학농민혁명봉기가 1차 동학농민혁명전쟁으로 발전된 것으로 동학사 학자들은 해석했다, 이와같은 해석은 동학 역사를 오류시키고 날조한 주장많이 동학혁명사에 횡행하고, 전봉준장군을 미화시키는 동학사 많이 동학사 전부 였다.

@1894년 2월 20일 전봉준의 57개주 통문은 전봉준의 명으로 각지역에 발송되었으나, 전봉준이 57개주 동학교단을 동원할수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역사적 사실을 살펴보자. 통문 발송후 3월 8일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봉기 이전 한곳도 동학농민혁명봉기가 없었다. 2월 20일 통문을 발송시킨것은 밖으로 나타내지 않을려는 서장옥선생이 전봉준을 내세웠던 것이라고 해석해야하고, 또 2월 25일 함열, 3월 1일 줄포,의 공격도 서장옥선생의 민란 마지막 방법이였다고 해석해야 될것이다.

분명히 1894년 3월 8일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봉기 이전, 동학사에 빛나는 남접 김개남 김덕명 손화중 최경선 등 지도자들 그 누구하나 봉기하지 못했다.

“때가 아니라고 하며” 금산지역은 서장옥선생의 전조선을 동학농민이 무력투쟁으로 폐정개혁,보국안민, 척왜양,을 실천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남접에서의 동학농민혁명봉기 연개 실패에도 굴하지않고, 호서,호남의 중심지인 금산지역에서 봉기시켜 남접을 공동 봉기 시킨다는 계획으로 진산방축리에 3월초 동도소를 설치하고, 금산지역 동학

농민혁명봉기를 시켰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동학농민혁명 사학자 및 한국 역사학자들은 서장옥선생의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봉기의 뜻을 인식하고, 의식화 되어 “바른 동학사”가 정립되어야 하며,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봉기가 전봉준에 호응하여 봉기한 것이 아니라 서장옥선생의 동학농민혁명전쟁의 주체적 판단의 결과로, 역사적 진실로 봐야 한다.

3. 전봉준장군이, 그 이름도 찬란한 동학농민혁명!

동북아시아의 국제적인 판도를 뒤집어 놓고, 봉건제 아래서 이 민족의 세계적인 농민민중의 “혁명”! 1894년 3월 20일 “동학농민혁명전쟁”을 그가 주도 한 것이 아니었다 라는 역사적 진실을 밝힌다.

(금산지역동학농민군을 지휘 봉기케한 서장옥선생이 1894년 3월 1차동학농민혁명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최초 시작이며, 최고 지도자다).

1894년 3월 20일 전봉준장군이 “동학농민혁명군”을 동원, 공동으로 여러지역 동학군으로 “동학농민혁명봉기”로 횃불을 높이 들었다고, 동학사는 기술 되어 있으나,

특히 여기에서 “언급하면 전봉준장군의 고부민란 민요군이 떨어져나간 이후부터, 동학교도 중심의 동학농민혁명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할수있다. 이런데도 고부민란을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동학사 학자들에게 물어야할 일 아닌가?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전봉준장군의 미화로 영웅으로 제조 하기위한 남접 중심의 동학사의 오류임이 분명치 않은가? 오류된 역사의 진실을 밝힙니다.

첫째; 1894년 1월 10일 고부 민란부터 3월 13일 민요군 완전 해산까지, 3월 8일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봉기, 3월 11,12일 태인에서 부안쪽으로이동하는 동학농민군, 부터 3월 20일 무장농민혁명봉기 까지 를 살펴보자.

1) 고부민란은 고부 군수 조병갑이 가렴주구(苛斂誅求)하고 탐익이 도가넘는 것을, 서장옥선생이 전봉준으로 하여 “고부민란”을 도모하여 “동학농민혁명”으로 발전시킬려는 계획으로상정할수있다, 이미 남접의지도자(전봉준, 김개남, 손화중등)들은 이미 1892년 11월, 1893년 정월에 남원에서 전봉준장군이 창의문을 만들어 “방문 ‘을 읍들에 불히고, 무력투쟁을 통하여 서장옥선생의 교조신원운동요구를, 교주 최시형의 승낙을 받게하기위한 활동을 했고, 사상적, 그리고 중앙정부의 권신들을 축출, 계획에 공감한 사실들과, 또 민란계획 단계에서도 임이 삼례 교조신원운동을 전후로 서장옥선생과 남접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조병갑을 교수형에 처하고, 전주를 공격하고, 한양으로 직행한다는 계획, “사발통문”

의 구상은 고부민란후 “동학농민혁명전쟁”으로 연계 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조직적으로 이루어 졌음은, 기정 사실 이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4차의 교조신원운동을 통하여 남접 지도자들과 무력투쟁을 통한 사회변혁에 고부민란,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봉기, “동학농민전쟁”의 시작, 계획, 진행,의 전개과정 모든 것은 서장옥선생으로부터 시작이고 끝이다. 역사는 바로 밝혀져 있다.

“고부민란”도 서장옥선생의 주도 계획아래 고부민란이 92년 11월부터 계획된것이라고 보아야한다. 또한 고부민란중에, 백산으로 옮긴후 2월20일, 하루전 2월19일에 서장옥선생과 고부민란주동자들이,동학농민혁명으로 연계가 이루어 지지않기 때문 회의를 갖고 57개주 통문발송, 함열, 줄포,공격을 계획 시행 노력했던 것아닌가?

동학농민혁명전쟁은 서장옥선생의 구상과 전봉준장군을 비롯한 남접지도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진행된 거사인데, 모든 동학의 역사가 전봉준 중심으로 변질되고, 본질을 오류시킨 것이다.

첫째; “고부민란이” 민란인가 “동학농민혁명”인가 학계에서 논란이있다.

간단히 학자들의 논리를보자

하나; “고부민란”은 국지성 이었고, 자진해산 했고 본격적인 농민전쟁은 “무장기포”로 비롯된다.⁴⁸⁾

둘째; ‘농민전쟁 “은 3월20일 전라도 무장현에서 일어났고, 이는 종래의 민란형태에서 농민전쟁 형태로 질적인 발전을 하게되는 전기였다.

그렇지만 고부민란과 무장기포는 단절된것인가? “1차농민전쟁” 1894년 3월 20일 “무장기포로 출발한것인가? 이와같은 의문은 ” 봉건제도 “를 타파하고 중앙권력을 교체하겠다는 농민 주체들의 전쟁구상 및 그들의 조직적기반과 관련하여 음미해 볼 문제라 하겠다.⁴⁹⁾

@위와같이 고부민란이 “동학농민혁명”인가 아닌가 하는 논리를 살펴 보았다.

본필자는 “고부민란”이라고 주장한다. 이유

하나; 민란 지도부가(전봉준)은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중앙권력을 교체하겠다는 구상과 조직적 기반과도 관련 음미해 볼 일이다.

48) 신용하 1985(갑오농민전쟁의제1차농민전쟁)[한국학보]

4)정창열앞의논문 104-129쪽

이 논리를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인가? 민란인가?음미 해보자.

하나; 민란당시의 구성 요원들은 지도부(전봉준)[앞의1). 4)] 의 생각과 뜻이 소통되지 못하였고, 그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월경하면 역적이 된다는 죽음의 공포만 있었다, 동학농민혁명으로 연계가 안되고 결국 해산 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둘; 고부민란은 동학교도가 주체적으로 민란이 시작된것도 아니고, 또 전봉준장군이 접주라고 하나 교도가 없는 접주 였고, 자신이 교도인지 아닌지도 학계에 논쟁이 있다.

셋; 본필자의주장은 1894년 2월 말경부터 민요 군이 떨어져나가고 동학교 교단 단독으로 동학혁명을 “계획” 50)하게 되고,

3월 8일부터 금산지역에서 “동학교단 중심” 으로 “연합 동학농민혁명봉기” 가 금산에서부터 시작되고, 3월 16일을 기점으로 전후 무장에 집결하던 동학군들,과 3월 20일부터 26일 백산 동학농민혁명봉기시 각지역 포가 동학교단 중심으로 모여 공동으로 봉기가 이루어진것이다.

위의 3항으로 고부민란은 “민란” 이라고, 동학사는 오류된 역사가 수정 되어야한다는 논리가 이해가 될 것이다.

둘째; 3월20일 무장 봉기까지 남접의동학농민혁명군 활동을보자.

3월 11일 12일경 태인에서 3000여명의 동학군이 부안으로 행군 ... 3월 16일경 금산지역(호서 동학군) 동학농민군 무장에 도착을 비롯 3월16일 전후 전라도 우측해안가 10여읍의 농민군도 집결 하기 시작했다. 3월 18일 김개남(기록은없음) 이 자금실봉기(현 정읍군 동곡리)

손화중, 김개남보다 2,3일 차로 봉기, 이렇게 모인 동학농민군의 숫자는 3.000여명으로, 여기에는 호서의(금산지역) 동학군이 연계된 연합군이 형성 되었던 것이다.

셋째; 3월20일 무장 동학농민혁명봉기 까지의 “금산지역 동학농민군” 의 활동, 역할을 알아보자.

3월 20일 무장 동학농민혁명봉기 할때까지, 3월 16일을 기점으로 호서지역(금산지역) 동학농민군과 남접지역 동학농민군이 집결에서 그 중심에 서장옥선생과 금산지역 동학농민군이 그중심에서 구심점이 되었다.

그 근거인 역사적 기록으로 확인하자.

4)정창열앞의논문 104-129쪽

50) 표영삼 (제2회 금산동학농민혁명학술발표논문집)15p

하나; 무장에 집결한 전봉준의 3000여명은 남접의 주력군 많이 아니라 호서의(금산지역) 동학조직이 연계된 것이며, 남접의 포에서 전봉준장군이 동원한 포는 없다. 동학지도부가 모이는 곳으로 무장과 고부 두곳을 정한것은 먼저 동학군이 모이게 하는데는 손화중 포가 가장큰 포이기때문 그쪽에서 교도들의 동원이 용이 하다는 생각이고, 고부, 백산은 작전상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정해진것이지 전봉준장군이 고부 민란으로 부대를 해산하고 손화중에 피신한 처지에 동학농민군을 동원할수 있겠습니까?

전장군이 태인으로부터 3월 11일 12일에 부안으로 3.000명을 인솔했다는 기록은, 전장군의 교도나 자신이 동원한것이 아니라 김덕명포에서 동원된 농민군을 위임 인솔했다고 봐야한다.

분명한것은 전봉준장군이 무장에 3.000명 주력군을 모았다는 것은 사실을 외곡 시킨것이고, 남접의 포가있는 김개남 손화중 김덕명 최경석등이 동원 했으나 기타 여러읍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은 남접쪽에서는 “황하일” 대접주 “서장옥선생” 이 봉기시켰다 봐야한다.

여기에서 무장에 집결한 동학군들을, 역사는 전봉준이 동원한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역사의 진실을 오류시키고 있다.

전봉준장군의 당시의 사정도 파악하지않고 역사는 전봉준이 동학농민전쟁을 주도하여 3월20일 무장봉기로 동학농민전쟁을 주도했다라는 주장이다, 전봉준장군은 서장옥선생에 선택된 동학농민혁명전쟁의 야전군 사령관이 지 최고지도자는 아니다.

4. 전봉준이 4월 3일 금구에서 부안으로 후퇴한것은 적정(감영군)을 살피기 위한것이 아니라 부족한 전력 보강을 위해 금산지역 동학농민군들의 도움을 기다린 것이다.

첫째; 1894년 4월 4일 고산현 음성 문기동에 걸린 방문(房文)내용이 시사적이다. 내용은 장차 3.000병을 이끌고 4월 5일 고산현을 지날 터이니 매명당 짚신 한짝과 전 1냥씩을 준비하여 “천명(天命)”을 어기지 말라는 것이다. 끝에는 “동도대장 서”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⁵¹⁾

위의 “서”는 서장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월3일이전부터활동하고있던 충청도 옥천의 동학도와 진산의 동학도 등 금구 원평 북쪽으로부터 이동하고 있던 세력을 고려할 때⁵²⁾ 앞의 사실은 1차 봉기가 매천이 지적한바와같이 서포(서장옥회하의 동학군)의 일련의 계획속에서 추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바로 호서의 충청도 금산을 중심으로한 동남부지역, 전라도 동북부쪽으로 금산 인접지역의 최근발견된 <김낙봉이력>⁵³⁾에 바로 다음과 같이 위의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그때(갑오년 봄)을 당하여 서장옥 관하에서 진산방축점에서 회소를 설치하고 전봉준

51)1894년 농민전쟁의 1차 봉기 91p

52)김학봉이력 4쪽

53)김낙봉이력 1937 필

과 상하상응할 양으로 수천명이 회동한 사유가 대선사에 입문(入門)되어..” 라는 기록은 황현선생의 서포, 즉 1894년 1차 금산지역 동학농민혁명봉기지로서 남접에 북쪽이라고, 북접이라 호칭됐던 충청도 동남부, 전라도 동북부쪽의 동학농민혁명봉기지는 서장옥선생의 관하로 남접과 모두같이 “서포”로 호칭을 학계에서 정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금산지역 동학혁명군은, 남접을 3월20일 무장, 고부, 백산, 봉기를 비롯, 4월 4일 4만, 5만명의 부안도착 까지 1차동학농민전쟁 전과정에서 황토현전투, 전주성함락, 까지 지원만하고, 동학농민전쟁의 결가지로, 동학농민군으로 희생된 영혼도 역사에 기록에도 소외된 죽어서도, 살아서 “사람답게 살겠다”고 동학농민군으로 몸부림쳤던 그들의 영혼이 편하게 모실수 있는 시대는 언제나 오려나? 한숨 쉬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전봉준장군은 4월 1일 “원평”에서 바로 “전주”로 직향하지않고, 부안으로 회군하였는가?

첫째; 4월 1일 원평에 6.000~7.000명 농민군이 도착하여 천변에 진을 치고 다른 곳으로 움직일려는 기색이 없다라고 “금구현 공영문장”은 보고 하였다.

감영군의 움직임에 정세를 파악하며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4월 3일 부안으로 회군 했다,

감영군의 정세를 살펴야 한다며.... 왜 이랬을까?

답은 감영군에 대한 정세를 당연히 살펴야 하겠지만 내심은 감영군이 1만명이 공격한다는 정보로, 전력보강이 필요하고 또 앞에서 설명한데로 진산방축리에서 지원군이 온다하고, 서장옥선생의 고산현 방문이 있었다.

금산지역 동학농민군이 방축리에서 금산민보군의 공격으로 방축점 “동도소”가 전멸되었음에도, 금산읍을 공격 하지않고 114명 동학군이 살육됐음에도 1.000명의 금산지역동학농민군이 부안을 향해 출발, 부안에 도착했을때 4만—5만명이 도착 함으로, 남접 전봉준 주력부대는 금산동학농민군의 원천적인 힘으로 “황토현”전투 “전주성함락”의 동학농민전쟁 승리는 전국적으로 동학농민전쟁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금산동학농민군은 이와 같이 1차 동학농민혁명전쟁 그중심에, “서장옥선생”과 “금산지역 동학농민군”이 있었다.

어은(漁隱) 오국헌(吳國獻) 선생의 생애와 문학

백원철(공주대학교 교수)

1. 서언

어은(漁隱) 오국헌(吳國獻, 1599~1672)공은 17세기 조선 중기에 삶을 영위한 재야사대부(在野士大夫)이다.

16세기 사림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방 사대부의 진출이 활발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17세기 전반 인조반정(1623) 이후는 특히 서인측의 사대부들이 대거 등용되었다. 어은 공 역시 사계의 문인이며 양송(兩宋)과의 교유관계가 있어 분명 집권 서인측의 인물에 속하였으나, 병자 호란이후 출사에의 뜻을 접고 은사(隱士)의 길을 택하였다.

이로써 공은 평생 재야사대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으며, 공의 문학 역시 여기에서 그 성향이 결정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환언하면 우리는 어은공이 남긴 시문을 통해서 17세기 재야사대부의 삶의 양상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재야사대부 문학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은 공이 남긴 시문은 일백 수십수에 지나지 않는다. 공이 졸한 뒤 200여년이 지나서야 시문이 수습되어 문집발간이 이루어지고 그 와중에서 화재를 만났으므로 서체(書題)만 남게 된 것도 있다. 더구나 대체로 천리지학(踐履之學)에 종사하는 독학지사(篤學之士)의 경우, 문사(文詞)는 여기(餘技)로 여겨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더욱 그 수가 영성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

2. 어은(漁隱)의 가계와 생평

(1) 가계(家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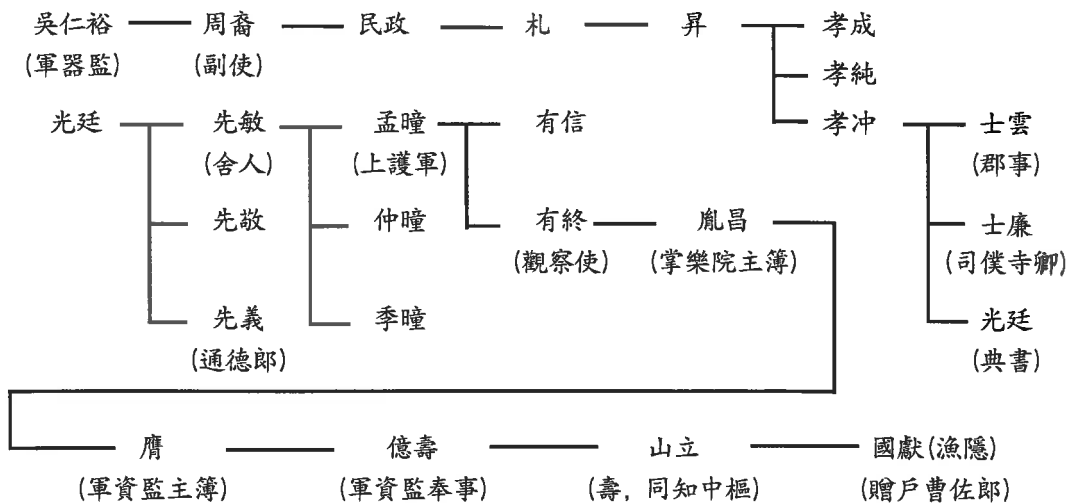
어은 공의 본관인 해주 오씨는 중국 송의 학사 오인유(吳仁裕)를 시조로 하는 바, 서기 984년(고려 성종 3년)에 고려에 건너와 해주에 정착하였으며, 고려조에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을 역임하였고, 예부감(禮部監)에 재직하면서는 국자감(國子監)을 건립하도록 주청하여 이를 실현시켰다.²⁾

조선조에 들어서도 대대로 조정에 나아가 명환(名宦)의 이름이 이어졌으니, 공조전서

1) 《漁隱遺稿》는 1873년(癸酉, 고종10)에 부록을 포함 4권으로 발간되었고, 그 뒤 1918년(戊午)에 초간 시에 누락된 글을 붙여 6권으로 속간하였으며, 이어서 1988년에는 이를 국역하여 출판하였다. 이하 《유고》로 표기한다.

2) 『吳氏略史』 p.329, 「해주 오씨」(2001. 한국성씨사료 연구원)

인 광정(光廷)은 공의 8대조이고, 관찰사 유종(有終)은 공의 5대조가 된다. 여기에 어은 공을 중심으로 그 세계(世系)를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³⁾



본래 해주오씨는 경기 용인을 중심으로 세거한 근기사족(近畿士族)이었는데, 호중(湖中)에 분거하게 된 것은 어은 공의 5대조인 오유종(吳有終, 號 杏亭 1433 ~ 1500)이 진산에 입향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는 당시 학문정박(學問精博)하다는 평이 있었으며 점필재 김종직(金宗直)의 천거로서 전라병마절도사 겸 수군절도사가 되었는데, 연산군 때에 벼슬을 버리고 옥계(玉溪 : 진산의 지명)에 은둔하였다 한다.⁴⁾ 이로써 어은 공은 곧 진산에서 태어나 성장하게 되었다.

(2) 생평

이어서 어은 공의 생애를 파악해보면 대략 전, 중, 후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1) 전기 (초학기, ~24세)

공은 1599년(선조 32) 2월 2일, 동지중추부사 산립(山立)과 남원양씨(南原梁氏)사이에 삼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출생하여 성장한 곳은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모부인 양씨의 훈육을 받아 방정한 범절을 보였으며, 6세에 취학한 뒤로 그 성취됨이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곧 통사(通史)를 읽어 문리가 크게 진취되었고 혼정신성의 도리를 다하였다. 육경과 백가서를 깊이 연구하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과업도 겸하여 익혔다. 향시에 여러번 입격하였으나, 과거에 매달림은 이롭지 않다고 여겨 대과에 나아가는 것을 폐지하고, 천리지학(踐履之學)에 뜻을 두었으며, 부모봉양에 전심하였다.⁵⁾

3) 위의 책, p.376, <世系表> 및 《유고》, p.278, <行狀>, p.427, <無憂堂 延輝 墓碣銘>참조.

4) 《유고》, p.150, 「行亭軒記」 및 최근목 「海州吳氏의 유래와 漁隱 吳國獻」(어은 선생 탄신 407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논문) 참조.

2) 중기 (대전 거주, 공 25세~5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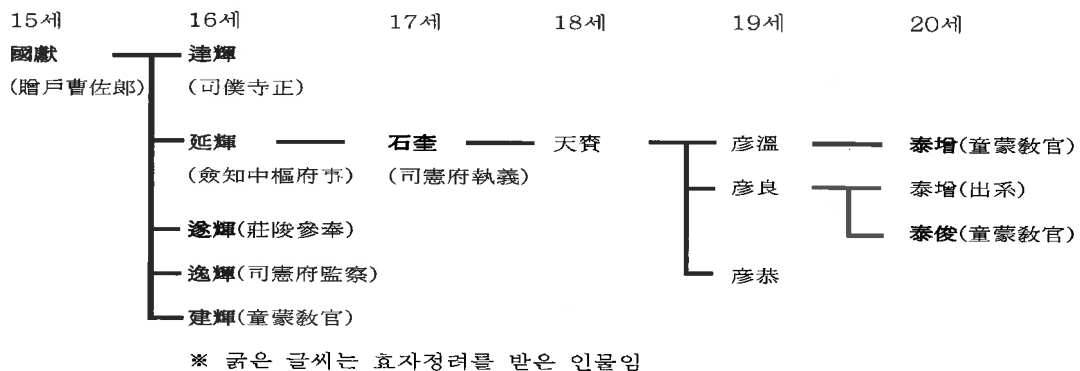
공이 25세에 연산(현 충남 논산군 연산면 임리)에 거주하는 문원공 사계 김장생에게 나아가 수학하면서부터 호서사림인 동학들과 교유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공은 스승으로부터 학문의 대요(大要)를 들었으며, 이후 자주 왕래하면서 경전과 송학을 깊이 연구하는 한편, 자세히 강론하니 동문들이 모두 추종하였다. 또 이때로부터 동춘(송준길), 우암(송시열)과도 교유하면서 경의(經義)를 변론하였으며 서로간 칭허(稱許)하여 벗이 되었다.

이 무렵 공의 거주지는 공주 탄동 봉곡(鳳谷 : 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새우)이었으며 뒤에 산청군 단성으로 이거하기 까지 30여년간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뒤로도 일부 자손은 그대로 남아 거주하였다.⁶⁾

한편 이 기간중 양대 호란을 겪었으며, 병자년 호란(공 38세)에는 사종제(四從弟) 오정언(吳廷彦) 부사와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전주에 진을 치고 있던 정홍명(鄭弘溟) 의병장 휘하로 보내고, 스스로는 부모와 모든 가솔을 거느려 옥천 논곡(論谷)으로 들어가 난을 피하였다.

또 양친의 환후에는 지혈(指血)의 정성을 다하였으며 극진한 효성에 감응하여 순생이 출(筍生鯉出)의 이변이 있었고, 내외 정우(丁憂)를 당하여서는 지성으로 여묘(廬墓)를 지켰다. 이리하여 경인년(1560, 효종 1, 공52세)에는 온 고을의 선비들이 공의 효제학행(孝悌學行)을 들어 수령에게 천거하려 하였던 바, 공이 이를 제지시킨바 있었으며, 다음 해에는 도내의 선비들이 역시 도신(道臣)에게 천거하고, 이를 조정에 까지 알린 바 있었다.⁷⁾

이때의 어은공의 효행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매우 탁월하였으며, 이러한 가풍은 후세에 이어져 누대에 걸쳐 효자정려를 받게 되었던 바, 이로써 4세9효(四世九孝)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 참고로 그 계보를 도식화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5) 《유고》, p.278, <行狀> 및 p.312, <事>

6) 오린선, 網菴 遺稿 및 송백헌 「어은 오국현의 일생과 구효세가」(어은 선생 탄신 407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논문) 참조.

7) 《유고》, 같은 곳.

3) 후기 (단성 이거 후~말년: 53세~74세)

공은 신묘년(1651년) 가을 가솔을 거느리고 단성으로 이주하여 도천(道川)에 집을 짓고, 강학에 전일하였다. 이곳은 산수가 명려(明麗)할 뿐만 아니라 곧 공의 외조 양(梁) 사간 공(명: 士貞)이 거주하던 고을이었다.

이곳에서도 공의 학덕이 알려지자 인근에서 학도들이 모여들었으므로, 갑오년(공 56세)에 집 서쪽에 정사(精舍)를 짓고 더욱 교학에 용력(用力)하였다. 이때 단성읍의 선비들이 공의 독학지행(篤學至行)을 군수에게 알리고자 하였으나, 공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어서 무술년(공 60세)에는 또 도내 선비들이 공의 박학독행(博學篤行)을 들어 도신에게 천문(薦聞)하려 하였으나 역시 이를 거절하였다. 동시에 효종 조에는 선음(先陰)으로 침랑(寢郎)과 내직에 누차 천망되었으나, 역시 공이 굳게 거절하였던 바, 이는 모두 공이 호란의 수치에 대하여 사대부로서 절의를 지키고자 하는 뜻에서 였다.

이즈음에 우암이 어은이라고 손수 대필하여 공에게 준 것은 우암 역시 어은 공의 고결한 뜻을 허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⁸⁾

공은 임자년(1672년) 11월에 74세로 고종(考終)하였으며, 다음해 8월에 단성 봉산 아래 어은동 언덕에 장사지냈다. 부음을 접한 우암은 「은사오공지구(隱士吳公之柩)」라는 명정(銘旌)을 써서 보냈다.⁹⁾

공이 물한 뒤 숙종 임진년(1712년; 숙종 38)에 단암(丹巖) 민진원(閔鎭遠)이 상주하여 승훈랑(承訓郎) 호조좌랑(戶曹佐郎)이 증직되었고, 이어 고종 25년(1888년)에는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춘추관사에 증직됨과 동시에 효자정려가 내려졌다.¹⁰⁾

3. 어은의 문학세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어은 공은 호서 사림(湖西士林)의 일원으로서 집권사대부층과 연원을 같이 하였으나, 출사를 거부하고 평생을 전원에 은거하였다. 그것은, 성하지치(城下之恥)를 당한 현실에서 사대부로서는 차마 출사할 명분이 없어서 였다. 곧 어은 공은 스스로 재야 사대부의 삶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어은공의 생애를 통해서 17C 재야사대부의 삶의 양상을窥知(窺知)할 수 있을 것이며, 공이 남긴 시문의 분석을 통해서 재야사대부의 삶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 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8) 우암이 어은이라 써 줌으로 해서 이것이 공의 호가 되었는데, 이는 어수은산(漁水隱山)의 약어로, 곧 공의 은거의 행적을 의미 있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때 우암은 '산풍수월 설화운죽(山風水月 雪花雲竹)'을 대자로 쓰고, 다시 '폐호간서 매경교자 주장택운 옥은산휘(閉戶看書 買經教子 珠藏澤潤 玉蘊山輝)'를 써서 공에게 주었는데, 이것 또한 같은 뜻을 갖는다고 보겠다. (《유고》, p.316~317)

9) 《유고》, 같은 곳.

10) 송백헌, 앞의 논문 참조.

(1) 은거자락(隱居自樂)의 아취(雅趣)

어은이라는 호명에서도 드러나는 은거는 공에게 있어서 어느 때부터 시작된 것일까? 병자호란(1636)이후 벼슬에 천거 되었을 때 “이러한 때에 벼슬함은, 사군자가 부끄러워 할 바이다(此時仕宦士君子所深耻也)” 11) 고 하면서 벼슬에 나아가기를 거절한 뒤로부터 은거의 삶이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보다 본격적인 것은 신묘년(1651년) 단성(丹城)으로 이거한 뒤의 기간(1651~1672)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의 은거는 흔히 귀거래(歸去來)에서 보여주는 완세불공(玩世不恭)과는 다르다.

옛날에 공자도 탄식하였도다

바다에 배 띄우려 하시고 하수까지 나아가신적도 있도다

어찌 수레와 관(높은벼슬) 때문에 속박을 당하리오

출처를 도리에 맞게 할 뿐이네...여기에 숨어살고 여기에서 즐거워하여,
나의 몸 마칠 것이니 다시 무엇을 구하리!1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은 공은 세간(世間)의 명리(名利)에 구속받지 않고 다만 출처에 맞게 처세할 뿐이라고 하였던 바, 따라서 공은 은거의 생활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었다.

실제로 어은 공의 전원시에서는 대부분 산수자연과도 합일되며, 그 속에서 안분자족(安分自足)하는 고상한 정취를 드러내고 있다.

안개가 깊다가 비되어 내리니

창문을 열어도 푸른산이 보이지 않네

늦게라도 날이 밝게 개이면

지팡이 짚고서 한가롭게 걸어보리13)

宿霧因成雨 開窓失碧山

晚來如快霽 扶杖計幽閒

위의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안온하며 한가로운 정조가 배어난다고 하겠다. 다음 시 역시 같은 유에 속한다.

11) 《유고》, p.293, <墓誌銘并序>

12) 《유고》, p.8, <漁夫辭> “昔孔聖之發歎兮 襄於海而武於河 豈軒冕爲桎梏兮 以出處之得宜…隱於斯樂於斯 終吾身 復何求” 이곳의 ‘襄於海’는 “子曰 道不行 乘桴 浮于海”(論語, 公治長)를 이르고, ‘武於河’는 “將西見趙簡子 至河而反”(論語, 서설(序說))을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 공자의 출처를 말함이다.

13) 《유고》, p.13, <寓懷>

홀로 백수정에 오르니
 연꽃향기 바람에 실려오누나
 누가 나의 즐거움을 알리
 맑은 바람 한밤에 서늘하네¹⁴⁾
 獨登碧樹亭 風送芰荷香
 誰識余心樂 清風一夜涼

나아가 어은 공의 은거는 자연친화와 자연귀의의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바, 아래와 같은 시에서 그 같은 정조를 읽을 수 있다.

이리저리 고안하여 돌과 대나무 배치하고
 휘파람 불며 새, 물고기와도 친하다네
 가을이 깊어가니 벼 꽃도 떨어지고
 바람이 높이 부니 오동잎도 성글어지네
 나는 새로 빚은 술에 취했는데
 아동들은 옛 글을 당당히 읽는구나
 늙은 농꾼들과 어울려 농사일 말 나누며
 도롱이 샷갓에 호미들고 나선다네¹⁵⁾
 經營排竹石 嘯詠契禽魚
 秋熟稻花落 風高桐葉疎
 儂醺新釀酒 兒讀古人書
 談農同野老 簑笠又荷鋤

따라서 어은 공의 은거시에서는 염세(厭世)에서 비롯되는 회한(懷恨)이나 자탄(自嘆)의 정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음영성정(吟詠性情)의 경우에도 항상 성정지정(性情之正)을 읊어야 하며 그것도 온유돈후(溫柔敦厚)해야 한다는 중세의 보편적인 재도적 문학관을 어은 공 역시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어은공이 노년(52세)에 접어들어 영남 단성(丹城: 현 경남 산청군)으로 이거한 뒤 지은 것으로 보이는 다음 시들에서도 그 정조는 한결같이 물외한적(物外閑寂)의 청담(淸淡)한 시세계를 보여주고 있다.¹⁶⁾

14) 《유고》, p.31, <碧樹亭>

15) 《유고》, p.42, <自述>

16) 어은 공의 넷째 아들 용포(龍浦) 일휘(逸輝)공이 기록한 유서에 의하면, 어은 공이 신묘년(辛卯年, 1651) 가을에 단성(丹城)으로 이거하였으며, 3년 뒤인 甲午(1654)년 봄에 어은정사(漁隱精舍)를 지었다고 한다. 한편 이거하기 전까지는 (후손의 전언에 의하면) 대전시 외곽 봉곡리, 현 연구단지 지역에 거주하였다고 한다.

봉황산 아래 한 채의 초가집,
 밤 낮으로 공맹의 글 부지런히 읽는다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으니
 산에서는 나무도 하고 물에서는 고기도 잡는다네¹⁷⁾
 鳳凰山下一茅廬 日夕孜孜孔孟書
 所居貧窶終吾樂 山或爲樵水或漁

어은 공이 단성에 이거하여 3년이 지난 때에 정사(漁隱精舍)를 짓고 그 감회를 읊은 시는 아래와 같다.

맑은 구름과 흐르는 물이 중당을 아름답게 하는데
 만사가 한가로워 저절로 바쁘지 않구나
 대나무창 햇볕 받아 호연한 기상 머금었고
 꽃핀 뜨락 이슬 받아 싱그런 향기 피어난다
 계절은 저절로 돌아서 봄 정경이 그림같고
 속세의 꿈 모두 깨어나니 낮은 아직도 한창이구나
 원숭이, 새들은 조용하고 찾아오는 이 없으니
 산 밭 두둑에서 저물녘까지 농사일 거둔다네¹⁸⁾
 淡雲流水媚中堂 萬事悠悠不自忙
 竹牖向陽含浩氣 花階承露展新香
 天氣自動春如畫 塵夢忽醒晝立長
 猿鳥不驚人莫倒 山疇盡日課農桑

(2) 거경함양(居敬涵養)의 추구

사대부는 자신의 은거가 혹 색은행괴(索隱行怪)가 될까 보아 경계하는 마음을 늦추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이였다. 그리하여 부단히 경이직내(敬以直內)하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군자의 삶을 영위코자 하였으니, 어은 공의 경우 역시 예외가 아니다.¹⁹⁾

성인이나 평민이나 하늘에서 받은 것

17) 《유고》, p.50, <述懷>

18) 《유고》, p71, <甲午春築一精舍於鳳山 作一律以寄意焉>

19) 군자는 索隱行怪(隱僻한 이치를 찾고 怪異한 행실을 함)를 하지 않고 중용을 따를 뿐이며 세상에 은둔하여 인정을 받지 못하여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君子>不爲索隱行怪, 則依乎中庸而已... 遯世不見知而不悔 : 中庸 十一章) 군자는 경을 통해 내심을 바르게 하고 의로써 밖을 방정하게 한다(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 : 易, 坤, 文言)라고 하였다.

한가지 마음은 나에게 있노라
만일 보존하여 기르지 않는다면
갖가지 욕망이 공격하게 되리라
비록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하나
오호라! 금수일 뿐이로다
성인과 어리석은이도 근본은 다르지 않으니
본연의 성품을 길러 얻게 된 때에는
저절로 바르게 되어 온갖 사특함이 물러나고
오직 만가지 이치를 밝혀 미루어 나가도다
못사람들은 본연의 성품을 잃어버려
제 한 몸도 지탱하지 못하나니
마음 들 곳을 아지 못하고서
물질에 휘둘려 때로 헤메게 된다네
사람의 마음은 오직 헤아리지 못하나니
배움이 아니라면 어떻게 얹어 있으리²⁰⁾

聖凡賦於天 一心在吾而
如不存養得 衆欲有攻之
雖曰有人名 嗟呼禽獸伊
聖愚本不異 養得本然時
自正百邪退 惟明萬里推
衆人本然失 不得一身支
不知心在處 役物有時移
人心惟不測 非學有何知

이 시는 어은 공이 스스로를 경계하는 뜻에서 지은 것임을 알 수 있거니와 곧 존심양성(存心養性)에 대한 일깨움을 다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공은 유한한 일상에서도 늘 배움을 통하여 거경자수(居敬自修)하는 몸가짐을 갖기에 노력하고 있다.

가시문 홀로 달으니 아는사람도 적은데
힘써 글을 보느라 흰 머리만 늘었도다
이 세상에서 영예를 구함은 참으로 우스운 일
조용히 살며 도를 지킬뿐 다시 무엇을 생각하리²¹⁾

20) 《유고》, p.47, <戒心吟>

21) 《유고》, p.51, <幽居>

荊門獨閉少人知 努力觀書白髮重
此世求榮眞可笑 靜居守道復何思

그렇다면 위 시에서 어은 공이 언급한 바 ‘힘써 보는 글(觀書)’의 ‘글’은 어떤 것이며, 또한 ‘도를 지킴(守道)’에 있어서의 ‘도’는 어떤 내용인가? 이는 다음 시에서 규명되고 있다.

9월 동산에 늦게 내린 서리 맑게 반짝이는데
쓸쓸한 초가집은 흰구름 곁에 서있네
한가로운 마음으로 정주학을 공부하노라니
오직 밝은 마음이 물과 더불어 길어지는듯 하네²²⁾
九月山園淨晚霜 蕭然茅屋白雲傍
閒中傲去程朱學 惟得清心水與長

이를 보면 어은 공은 곧 「정주학」의 서적을 힘써 공부하고, 이를 통해서 청심(淸心)을 기른다고 함을 알 수 있거니와, 다음 시에서 한 걸음 더 구체적인 것을 접할 수 있다.

봉황산 아래로 봉황수는 유유히 흐르는데
피리소리 노랫가락 저물녘 빗 속에 들려오네
스스로 성명도 숨기며 끝내 굴하지도 아니하고
용학을 탐구하며 여생을 보내리라²³⁾
鳳凰山下鳳凰水 椎笛漁歌暮雨邊
自隱姓名終不屈 探究庸學送餘年

위의 「끝내 굴하지 않는다(終不屈)」는 것은 세속의 명리(名利)를 추종치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용학의 탐구」는 중용과 대학을 깊이 탐구하는 것이니, 이 또한 존심양성(存心養性)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다음 시를 통해서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실천궁행하는 면모의 일단을 직접 접할 수 있다.

가을날 방에 병풍을 둘러치고
단정히 앉아 다시 관을 바로 쓰네
창문 깊숙한데 밝은 달빛이 비치고

22) 《유고》, p.53, <偶吟>

23) 《유고》, p.76, <精舍謾興>

골짜기 가파르니 여울물도 세차네
 좋은 술을 어찌 홀로 마셔 취하리
 시축을 즐겁게 서로 살피 본다네
 띠끌 세상의 일들일랑 말하지마오
 이 가운데 이 한몸이 편안하다네²⁴⁾

秋堂列屏張 端坐更整冠
 門邃來明月 谷傾出急湍
 盃醪那獨醉 詩軸好相看
 莫將塵世事 此中口體安

달 밝은 가을밤에 당중(堂中)에 앉아 있는 어은 공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 아울러 밤인데도 불구하고 “단정히 앉아 관을 바로 쓴다”는 표현에서 사대부의 거경(居敬)의 실재를 확인 할 수 있겠다. 곧 “군자는 홀로 있을 때도 반드시 그 몸가짐을 삼가한다”²⁵⁾는 성현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3) 후진강학의 일상

조선조 사대부에 있어서 양성독서(養性讀書)와 후진교회(後進教誨)는 대체로 일상의 일이거니와, 더구나 퇴이자수(退而自守)하는 재야 사대부에게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²⁶⁾

어은 공의 경우 역시 예외는 아니었으며, 아마도 단성(丹城) 이거 후 어은정사(漁隱精舍)를 지은 뒤로는 더욱 교학이 일과가 되었으리라 추정된다.

네가 이 곳에 와서 머무른 지 일년에 바야흐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내가 줄 것이 없어 이 것을 써서 경계하노라. 너는 지금으로부터 계속하여 내 말을 받아들여, 그 의리로

24) 《유고》, p.36, <夕坐>

25) 《大學》에 “...이것을 일러, ‘中心에 성실하면 외면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것이다(此謂誠於中 形於外 故君子必慎其獨也).”고 하였고 《中庸》에서도 “어두운 곳보다 더 드러남이 없으며 미세한 것보다 더 나타남이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 있는 것을 삼간다(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慎其獨也).”고 하였다. 여기의 신독(慎獨)은 특히 정주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되었고 따라서 사대부의 덕목으로서 역시 매우 중요시 되었다.

26) 일찍이 율곡은, 은거하여 스스로를 지키는 사(士)에게 세 부류가 있음을 말하였다.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경륜을 지니고 크게 쓰일 때를 기다리는 ‘天民’과, 스스로 부족함을 알아서 학문과 수양에 힘쓰며 가볍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學者’, 그리고 완세불공(玩世不恭)하며 세상사에 초연하는 ‘隱者’로 분별하였다(退而自守者, 其品有三 懷不世之寶 蘊濟時之具 器器樂道 韞櫝待賈者 天民也 自度學不足 而求進其學 自知材不優 而求達其材 藏修待時 不輕自售者 學者也 高潔清介 不屑天下之事 卓然長往 與世相忘者 隱者也 : 《栗谷全書》, 東湖問答, <論君道>)

써 깨닫지 못했던 것을 날로 알아서 내가 주는 경계를 빈 말이 되지 않게 한다면 어찌 크게 다행한 일이 아니겠느냐²⁷⁾

위의 글은 정송강(鄭松江)의 후예로서 어은 공을 찾아와 일년여 수학한 뒤 귀향하는 문생에게 준 것으로서, 이때 공은 그에게 “오직 너의 자태가 아름답지 않음이 아니고 재주가 족하지 않음이 아니나, 다만 태타하고 방만해서 배워서 알려고 아니하고 힘써 행하려 아니하니…내 너를 위하여 병으로 여기노라. 모름지기 족히 힘써(병통을) 제거하고 매양 안자의 복응과 증자의 독실함을 스스로 기약하여라”²⁸⁾ 라고 하며 간곡히 권면하였다.

어은 공이 단성에 이거하여 독서공리하며 역행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자 공의 덕행과 학문이 세간에 알려지고, 그에 따라 명사(名士)·대유(大儒)와도 교유가 행하여졌다. 사계의 동문이기도 한 우암·동춘과의 교유도 그에 속한다. 특히 우암은 어은 공에게 각별한 우의(友誼)가 있었으니, 어은 공의 인물됨을 ‘효도와 의리를 모두 갖추었다(孝義雙全)’고 평하고, 또 ‘어은(漁隱)’이라는 호를 자필하여 보내기도 하였다.²⁹⁾ 그리하여 이즈음에는 따라 배우려는 학도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니, 적잖은 시편과 강설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배우는자 반드시 구함이 있으니
일 함에 그릇되게 하지 말라
스스로 포기하여 편안함만 찾으면
종신토록 어찌 이름이 있으리
<중략>
만종록을 어찌 구차하게 취하리
한 그릇 밥을 근심할것 아니네
근심할 것은 학업이 정밀치못할까 함이니
벼루에는 곧 결실이 맺히리라

27) 《유고》, p.146, <送鄭權還鄉序> “汝來此留一稔 方告歸而於其別也 余無以贈 遂書此以戒之 汝繼自今往 體余言而日知其義理之所未知 毋使此戒 徒爲空言 豈不誠大幸也”

28) 《유고》, p.145, “惟汝姿非不美 才非不足 但怠惰放慢 不欲其學而知 勉而行…余爲汝病之 須亟務祛 每以顏子之復膺 曾子之篤實 爲自期”

29) 《유고》, p.77, <與宋尤庵時烈> “一自僻處深巷 罕見輪鞅 料外朱溪 <卽金茂朱夢臣也 尤庵書漁隱二字 粧簇軸 使金茂朱 來傳耳> 皂蓋 已多寂寥中生色 而及其欣握 備諳專致尋賜 顧此無似 何以得此 擎讀屢回 多有所不安者 亦有所不敢當者 孝義雙全 是乃所不敢當者也 漁隱二字 是乃所不安者也” 이때 우암은 ‘어은’이라 쓴 족축(簇軸)을 정사(精舍)의 문楣(門楣)에 걸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공의 은거행의(隱居行義)를 높이 평가하여 16자의 글로 써서 보내기도 하였다 한다(尤庵先生 特書漁隱二字 俾揭堂楣 又贈閉戶看書 買經教子 珠藏澤潤 玉蘊山輝 十六字 深嘉其隱居行義之意也: 《유고》, p.279; 附錄, <行狀>)

생각은 만가지로 이리저리 변하나
 고요히 앉으면 방심이 거두어지리라
 참되고 오묘한 이치는 책속에 담겨있으니
 그대들에게 바라노니 힘써 찾을지어다³⁰⁾

學者必有求 事爲莫作非
 自暴而安逸 終身豈爲有
 萬鍾豈苟取 簞食非可憂
 可憂業不精 硯田乃有秋
 思慮易萬端 靜坐放心收
 眞妙載方冊 要汝強勉求

위와 같은 시들에서는 대체로 연소배(年少輩) 문사들을 면려하는 공의 곡진한 정이 드러나고 있거니와, 이어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세 가지를 근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시로써 깨우쳐 주고 있다.

듣지 못할까 근심하며 배우지 못할까 근심하여
 밤낮으로 부지런히 하면 어찌 이롭이 없으리
 능히 행하지 못할까 근심하며 더욱 독실하고 공경하면
 점점 성인의 경지에 나아가 공자·안자를 기약하리³¹⁾
 患不得聞患不學 孜孜日夕豈無爲
 患不能行加篤敬 漸臻聖域孔顏期

위 시에서 보여주는바, 세 가지 근심해야 할 것은 곧 ‘듣지 못함, 배우지 못함, 행하지 못함’이며, 배우는 자들이 이를 알아 힘쓰면 능히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밖에 어은 공은 후학과의 왕래 간찰과 저술을 통해서도 가르침을 베푸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기삼백주(期三百註)의 문의에 자세한 해설을 붙여 보내는가 하면, 태극, 심성정, 이기, 사단, 오품등 성리학의 핵심 개념에 대하여 두루 정의를 궁구하여, 이를 강론과 서찰을 통하여 후학들에게 밝게 가르쳤다.³²⁾

30) 《유고》, p.48, <次呂東萊寄學者詩一首示學徒>, 중략한 부분의 시구는 다음과 같다. “좋은 음식은 헛되이 배만 부르게 하니, 팔꿈치 베고라도 굶주림을 참아야하리. 어진 길은 형용할 수 없도록 넓기만 하니, 오직 마땅히 삼가 행할 지니라(悅口徒爲飽 曲肱須忍飢 仁路無形闊 惟當慎所之)”

31) 《유고》, p.60, <有感并小序> 이 곳의 소서(小序)는 다음과 같다. “군자는 세 가지 근심이 있으니, 듣지 못함을 근심하고, 배우지 못함을 근심하며 능히 행하지 못함을 근심하는 것이다. 대개 학문을 하는 자, 능히 이 세 가지를 안다면 어찌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까를 근심하라. 내 여기에 절구시 한수를 지어 나를 쫓아 배우는 자들에 보이노라(君子有三患 患不得聞 患不得學 患不能行也 蓋爲學者 能知患此三者 則何患不至於聖人之域哉 余有感於斯 作一絕 示從吾學者)”.

(4) 우국충절의 사의식(士意識)

인조반정(1623년)이후 조선은 대명사대(對明事大)의 명분론을 앞세우고 대금척화(對金斥和)의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른바 향명배금(向明排金) 정책이다. 그리하여 정묘호란(1627, 인조5년)에 이어 병자호란(1636, 인조14년)을 겪게 되었고, 마침내 군신례(君臣禮)를 행하는 성하지맹(城下之盟)을 맺게 되었다.

그 동안 오랑캐로 여기어 멸시해오던 여진족에게 무조건 항복하고 그 속국이 된 것은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고, 이로써 조선왕조의 명분과 권위도 함께 추락하게 되었다.³³⁾ 따라서 왕조를 지탱해 오던 지배계층, 곧 사대부 계층은 패배한 전쟁에 대한 책임감(죄책감)과 굴욕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 때 재야 사대부들은 성하지치(城下之恥)를 씻겠다는 명분을 쫓아 조정의 부름에 응해 북벌 정책에 적극 참여한 측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차마 벼슬에 나갈 명분이 없으며 초야에 은거함이 오히려 의리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또 다른 사대부층이 있었다.

여기에서 어은공은 곧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니,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다.

무술년(1658, 효종9: 필자 주)에 도내의 선비들이 도모함이 없이도 같은 소리로써 선군의 박학독행이 사림에 견줄 바 없다고 하며 도신에게 추천하려고 하니, 또 굳게 거절하여 천거하지 못하게 하였다. 효종 때에 선음(先蔭)으로 침랑(寢郎)과 내직의 천망에 여러 번 들었으나 병자 정축년의 수치를 원통히 여겨 전리(田里)에서 문을 닫아걸고 끝내 굳게 거절하였다. 당시에 따르는 사람들이 (벼슬에) 나갈 것을 권하자 선군은 머리를 저으면서 말하되 “내가 벼슬을 아니하려 함이 아니라, 이 때에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사군자(士君子)의 의리에 비추어 보면 실로 백세의 수치가 된다.” 고 하였다. …뜻이 더욱 굳건하여 사람들이 그 뜻을 굽히지 못하였다.³⁴⁾

사대부로서 조정에 출사하여 진충갈력(盡忠竭力)함도 충절이지만, 의리에 맞게 초야에 처하며 은거자수(隱居自守)함도 충절이라 볼 수 있으니, 이 같은 의식이 다음 시에서 확인된다.

오십년 살아오며 시비를 끊고 지냈는데
점점 백발이 되면서 장한 마음이 어긋나네

32) 《유고》, p.81, <答李秀仁>에서는 기삼백의 주를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大極說>, <心性說>, <情說>, <仁說> 등 성리학에서의 핵심 개념등을 대상으로 의도적인 해설을 시도하였다.

33) 강만길, 『韓國近代史』, pp.58~60, 「三田渡의 항복」 참조.

34) 《유고》, p.316, <遺事> “戊戌道內章甫 不謀同聲 以先君博學篤行 士林無雙 將薦聞於道臣 又益牢拒使不得薦聞焉 孝廟朝 以先蔭屢入寢郎 內職之望 慟丙丁耻 杜門田里 終始牢拒 當時從遊士 勸之出脚 先君輒掉頭而言曰 余非不欲仕而此時出仕 於士君子義理 實百世所耻…志益牢確 人莫能屈其志也”

동쪽 나라 깊은 수치 어느날에나 씻을까
 평생토록 수양산 고사리 캐며 살리라³⁵⁾
 五十年來絕是非 漸成白髮壯心違
 東土深耻何日雪 平生願採首陽薇

오직 국치를 설욕하겠다는 일념, 곧 장한 마음으로 오십년을 살아 왔는데, 이제 그 일이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작자가 사군자(士君子)로서 절의에 맞게 취할 바에는 백이 숙제처럼 고사리를 캐어먹으며 살아가는 길만이 남아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위 시에서 작자는 장한 마음(壯心)을 스스로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공이 당시 대체로 문약(文弱)에 흐르던 유자(儒者)와는 다른 면모가 있었음을 예견케 해 주고 있다. 실제로 어은 공은 병자호란때에 의병모집에 일익을 담당한 바 있거니와,³⁶⁾ 다음 글을 보면 호방(豪放)한 기상(氣像)의 소유자로서 궁술(弓術)에도 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에 하늘은 높고 달빛이 밝은데, 찬 바람이 갑자기 불었다. “달빛은 어두운데 기러기 높이 날고, 오랑캐(선우)는 밤을 틈타 도주하는구나” 라는 시구를 읊고 있으려니, 갑자기 기러기 소리가 남쪽을 향해 들려왔다. 한 개의 화살을 뽑아 당겨 쏘니 기러기가 호수에 떨어졌다. 따르는 자들도 각각 한번씩 쏘았다. …다시 한 개 화살을 쏘고자 돛대 머리에 우뚝 서서 활을 가득히 당겼다가 놓으니 화살 나는 소리가 우리와 같았다. 이윽고 강물 소리도 끊기고 거센 바람이 사방에서 일어나는데, 휘몰아치는 기세가 마치 오랑캐 선우가 사막 끝으로 도주하는듯 하였다.³⁷⁾

위 글에서 묘사되는 정경은 자못 비장한 편이다. 세차게 불어오는 찬 가을바람, 북쪽 하늘에서 날아오는 기러기떼, 기러기를 향해 활시위를 가득 당기는 어은 공과 따르는 자들, 그와 함께 소리 높이 읊는 시구(달빛은 어두운데 기러기 높이 날고, 오랑캐(선우)는 밤을 틈타 도주하는도다) 등에서 숙연함과 장렬함이 느껴진다. 성하지치(城下之

35) 《유고》, p.60, <有懷>

36) 어은 공은 병자호란 때에 공의 4종제인 오정언 부사와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부사로 하여금 의병을 거느리고 전주로 가게 하였으며, 자신은 대소 가솔을 모두 거느려 옥천 논곡에 피난시켰다.(嘗於丙子之亂 與其四從弟 府使公廷彦 同謀義兵 使之率往于全州 公則倍父母率諸眷 入沃川之論谷 以避槍攘: 《유고》, p.293, <墓誌銘并序>)

37) 《유고》, p.19, <鼎湖并小序> “是時 天高月晶 寒風忽起 詠月黑鴈飛高 單于夜遁逃之句 忽聞鴈聲向南而至 抽一箭 繳之 鴈落湖上 二三子各射一鴈…更繳一箭 屹立帆頭 指滿乃發 弓聲如雷 俄而江聲隔斷 肅飄四動 凜乎若單于之逃遁漠北也”

耻)를 잊지 못하고 항상 울분을 품고 있는 어은 공과 종자(從者)들의 의식 속에서는, 저 막변(漠邊)으로부터 불어오는 듯한 가을 바람과, 그와 함께 날아오는 기러기떼들이 마치 오랑캐인양 환치되고 있는듯 하다.

다음 글에서는 그러한 정황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

활을 꺾어 호수 위에 던져버리고 소리내어 크게 통곡하니 따르는 자들도 함께 통곡하여, 울음소리만이 강에 가득하였다. 따르는 자들이 나에게 말하길 “이것으로 족히 성하지치를 씻었습니까?” 하였다. 말하되 “그렇지 않다. 나는 초야의 사람인데도 성하지치를 당하고서는 오랫동안 그 원통함과 울분을 이기지 못하였다. 오늘 밤에 마침 앞으로 날아오는 기러기떼가 있어, 화살을 뽑아 기러기를 쏘고 ‘선우(오랑캐)가 밤을 틈타 도주한다’ 는 시구를 읊고 드디어 통곡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진실로 성하지치를 씻었다고 하겠느냐.” 아! 이에 약간의 말을 쓰고 이어서 절구 1수를 지어, 원통함의 만분의 일이라도 씻고자 하였다.³⁸⁾

위 글에서 보여주는 바, ‘성하지치를 만분의 일이라도 씻고자 함’ 에서는, ‘성하지치’ 에 대한 지은이의 통분의 깊이가 어떠한 가를 말해주고 있거니와, 한편으로 ‘활을 꺾어 호수 위에 던져버림’ 에서는 설욕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지은이의 좌절의 깊이가 또한 어떠한 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 시가 곧 위의 서에 이어져 지어진 것이다.

활을 꺾어버린 어은옹
가을날 호수에서 통곡하도다
임금님 얼굴 뵈지 못해 한스러워
이내마음 참으로 달랠길 없네³⁹⁾
折弓漁隱翁 痛哭鼎湖秋
恨未攀龍髯 此心良已休

위 시에서 표면적으로는 지은이가 ‘한스러워하고 마음을 달래지 못한다’ 함이 ‘임금을 뵈지 못함’ 에 기인된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내면적으로 어은 공은 오히려 설욕은 가당치 않으며 그 때문에 활을 꺾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 현실과, 또 이를 어찌 하지 못하는 무력한 자신에 말미암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때문에 어은 공

38) 《유고》, 위와 같은 곳, “折弓投之于鼎湖之上 放聲大痛 二三子咸哭 哭聲滿江而已 二三子語余曰 此足以雪城下之耻乎 曰非然也 以余野夫 久蒙城下之耻 不勝慟鬱 于是夜適有向南鴈陣 拔弓射鴈 詠單于夜遁逃之句 遂爲之痛哭 然此豈眞雪 城下之耻也 噫 於是乎 因著若干言 繼之以作一絕詩 以伸萬一之慟焉”

39) 《유고》, 위와 같은 곳.

에게서는 원망보다 성찰이 앞서기 마련이며, 이에서 실제로 당시의 역사현실에 대하여 어은 공은 다음과 같이 성찰하고 있다.

하늘이 이 백성을 내시고 각각 직책을 주시었으니 직업이 없이 놀고 먹는 자는 폐민이다. 폐민이 많으면 곧 백성이 궁해지고 재물이 소진된다. 창고가 있으면 쥐가 없을 수 없고, 국가가 있으면 도적이 없을 수 없다. 고양이를 기름은 쥐를 막기 위해서고 병사를 기름은 도적을 막기 위해서이다. 오늘의 병사는 황구가 아니면 백골이요. 그렇지 않으면 농민이다. 그 폐민 된 자들을 뽑아서 무예를 가르쳐서 도적을 대비하게 하면 곧 병무와 농업이 서로 힘입어서 국가는 부유하고 병사는 강하게 될 것이다.⁴⁰⁾

효종조에는 반청(反淸) 척화파계의 인물을 등용하여 북벌을 준비하였거니와, 이 때 주로 군제를 정비하고 보강하였다. 예컨대 어영청(御營廳)과 훈련원을 확대 개편하고 금군(禁軍)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양병(養兵)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⁴¹⁾

그러나 현종조 이후부터는 양병축재(養兵蓄財)의 북벌정책은 사라지고 예송과 당쟁이 격화되면서 국정은 혼미에 빠지게 되었다.⁴²⁾ 이른 바 삼정문란도 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은 공이 지적한 ‘폐민’은 아마도 전정(田政)의 문란으로 토지를 잃게 된 백성들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며, 황구와 백골은 곧 황구첨정(黃口簽丁)과 백골징포(白骨徵布)를 일컫는 것이라 보여진다.

이에서 보면 어은 공은 당시 국정 현실과 집권층의 실정을 완곡히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대안으로 ‘폐민된자의 병(군)사화’를 통해서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4. 결언

앞에서 고찰한 어은 공의 생애와 그의 문학세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어은 오국현 공은 17세기 조선 중기에 삶을 영위했던 재야사대부의 한 사람이다. 일찍이 사계 김선생(金長生)에게 수학한 바 있으며, 동춘·우암과도 교유한 호서사림의 일원으로서, 인조반정후 집권한 서인측에 속하였다.

한때 과업을 닦아 향시에 입격하였으나, 곧 천리지학(踐履之學)에 종사하였으며 이를

40) 《유고》, pp.212~213, <精舍講說> “天生斯民 各授以職 無職而遊食者 弊民也 弊民衆則民窮財盡 未有有倉庫而無鼠也 未有有國家而無盜也 養猫所以防鼠也 養兵所以防盜也 今之兵非黃口則白骨也 不然則農民也 揀其爲弊民者 而教之武藝 使備盜賊 則兵農相資 國富兵彊矣”

41) 『韓國史』 근세후기편, pp.22~25, 「孝宗과 北伐論」(진단학회, 을유문화사, 1974) 참조.

42) 북벌정책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논자에 따라 다르나, 외교정책의 실패와 전쟁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호도책이며, 명분적 사대주의의 연장 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강만길, 『韓國近代史』 pp.60~62 「北伐論의 허실」, 創作과 批評社, 1984) 참조.

궁행실천 하였다. 생의 후반에는 영남 단성에 이거하여 어은정사를 짓고 따르는 후학의 강학에 힘을 기울였다.

점차 공의 효제학행이 알려져 고을의 선비들이 여러 번 수령 방백에게 천거하려 하였으나 공이 거절하였고, 효종조에 침랑과 내직의 천망에 들었으나 역시 나아가지 않았다. 모두 성하지치(城下之耻)에 대하여 사대부로서의 절의를 지키고자 함에서였다. 이리하여 공은 재야사대부의 삶을 선택하였으며, 공의 학문과 사상, 그 중에서도 문학은 여기에서 곧 그 성향이 결정지어졌다.

따라서 우리는 어은 공의 남겨진 시문을 통해서 17세기 조선 중기 재야사대부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아울러 그 문학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어은이라는 호명에도 드러나듯이, 공은 세간의 명리에 초연하며 안분자족하는 삶에 대하여 읊었다. 공의 전원시가 대부분 산수자연과 합일되며 자연친화 내지 자연귀의의 한가로운 정조를 띄게 된 것이 곧 그것이다.

둘째, 공은 자신의 은거가 색은행괴(索隱行怪)가 되지 않도록 부단히 경이직내(敬以直內)하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군자의 삶을 살고자 하였다. 공의 시가 존심양성(存心養性)의 일깨움을 읊으며, 거경자수(居敬自修)의 몸가짐을 다짐하는 내용등이 많은 것이 때문이다.

셋째, 어은 공은 퇴이자수(退而自守) 하는 사대부로서 양성독서(養性讀書)와 후진교회를 일과로 삼았다. 그리하여 궁리역행(窮理力行)을 몸소 실천하는 한편 시문으로써 이를 후학들에게 권면하였다.

넷째, 어은 공은 병자 정축년간의 호란의 수치에 대하여, 불출사(不出仕)로써 사대부의 절의를 지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공은 한편으로는 실제로 설치(雪耻)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하여 울분의 심정을 시에 토로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이제(夷齊)와 같이 은거자수(隱居自守)하는 절의를 읊었다.

(어은선생 탄신 407주년 기념학술대회 논문집. 2006)

임란 의병장 도곡 양응춘 선생의 생애

1. 출생과 수학(修學)

도곡 양응춘(楊應春)선생은 중종 갑진년(1544)10월 10일 은진현 도곡면 양지리에서 태어났다. 자(字)는 인경(仁卿)이고, 호는 도곡(道谷)이며 본관은 청주이다. 아버지는 주부(主簿)충백(忠伯)이며 어머니는 광산김씨이다.

선생은 천성이 범상치 않고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했으며 아버이를 섬기는데 정성이 있고, 친구들에게 성의가 있어 향리에서 칭찬을 받았다.

8세 되던 해 백부(伯父)인 동정공(東亭公 諱 仁伯)한테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비록 나이는 어렸으나 예절이 바르고 몸가짐이 단정하였으며, 총명하여 시서(詩書)에 밝았다.

12세 때 향시(鄉試)에 합격하였으며, 도곡공의 자질을 일찍부터 알게 된 공의 백부께서는 집안일보다는 학문에 더욱 정진할 것을 공에게 권유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공께서는 20세 되던 해에 가정을 떠나 먼 경기도 포천에 사는 집안 어른이신 봉래(蓬萊)양사언(楊士彦)선생에게 여러 해 동안을 사사(師事)하게 되었으며, 27세(1570)가 되던 해에는 울곡 이이(栗谷 李珣)선생과 절친했던 우계(牛溪)문하에서 수학(受學)하신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젊은 학자로서 파주교수(坡州 教授)였던 조헌(趙憲)선생과도 두터운 교분을 나누게 되었다.

30세 이후에는 관직에 뜻을 버리고 학문에 열중하는 한편 몸소 농사를 지으며, 땀나 무를 베거나 고기를 잡아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며 시간이 나는 대로 벗들을 모아 도학(道學)을 강론(講論)하거나 활쏘기와 말 타기 연습을 하면서 장부의 뜻을 키웠다.

2.사우연원(師友淵源)과 교유(交遊)

43세 되던 해 공주 제독(公州提督)으로 발령 받은 조헌(趙憲)선생을 심방(尋訪)하여 여러 날 동안 침식을 같이 하면서 많은 인생사를 논의한 바 있었는데, 이때 조헌선생은 도곡공에게 벼슬길에 나아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도곡공은 미소만 지을 뿐 확실한 대답은 하지 않았다.

선조(宣祖)丁亥(1587), 공이 44세 되던 해 봄에는 옥천(沃川)에 와 있던 조헌선생을 다시 심방, 두 선생은 동행하여 진산(珍山)주변을 돌아보면서 피난처가 될 만한 곳을 물색하던 차, 수심대(水心臺)에서 약간 떨어진 중두문(重杜門)이라는 곳을 찾았는데, 그 곳은 조헌선생이 사립문을 늘 굳게 닫고 계셨었다는 뜻으로 뒷날 사람들이 이름 붙여 생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음으로 마전(馬田 : 현재 금산군 주부면 마전리)에서 약간 떨어진 동정리(東亭里)를 찾았는데, 이 동정리 앞에는 道谷公이 처음으로 창의책(倡義策)을 마련했다는 양창의현(楊倡義峴)이 있다.

45세가 되던 해에는 임진왜란 때 뛰어난 장수로 알려진 천곡(泉谷) 송상현(宋象賢 : 뒤에 동래부사로 왜적과 싸우다가 순절함)선생을 심방하여 시국(時局)에 관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는 벗이 되었는데, 송상현선생은 일찍부터 도곡공의 명성을 듣고 반갑게 맞이했고 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도곡공 뿐이라고 말하였다 한다.

46세 되던 해(1589년) 여름, 조헌(趙憲)선생이 길주(吉州)로 귀양 갔다는 소식을 듣고 통탄(痛歎)한 바 있는데, 이는 조헌선생 개인의 안위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머지않아 나라에 참혹한 변란이 생길 것을 예측하여 국가의 충신이 멀리 쫓겨나는 것을 애통하게 여겨 눈물을 흘린 것이다. 그리고 부친을 예빈시(禮賓寺)에서 뵈고, 다시 익성군(益城君) 홍성민(洪聖民)을 찾아가 조정의 위급한 상황을 말하면서 조헌선생의 복직과 정여립(鄭汝立)의 권세를 거들 것을 청하였는데, 홍성민은 나도 유의하고는 있으나 중신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실정이며, 조헌선생의 일을 오히려 요괴스런 사건으로 지목하고, 정여립을 영웅시 하는 상황이라 급히 도모할 형편도 안 되니 장차 상황의 변화를 보아가면서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결국 그 해 시월에 정여립의 난이 일어나고 말았다.

가을에는 해광(海狂) 송제민(宋濟民)과 같이 강경과 호남해읍을 순회하면서, 부안(扶安)의 비안도(秘雁島)에 있는 이소선(李笑船)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도곡공은 이 섬이 비양도(飛楊島 : 楊氏를 하늘에 나르도록 하는 섬이라는 뜻)와 비슷하여 병화(兵火)가 침범하지 못할 장소라 하면서 이소선에게 후일 가족을 부탁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뒤 임진왜란이 일어나 도곡공의 아들 해은(海隱)의 피난지가 되었던 관계로 사람들은 이 섬을 비양도(秘楊島 : 양씨를 비밀스럽게 보호한다는 뜻)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 다음 광주에 있는 김덕홍(金德弘)과 김덕령(金德齡)형제를 찾아가 조헌선생의 귀양소식을 전하게 된 자리에서, 동행했던 송해광(宋海狂)이 자신은 이미 나이가 70이기 때문에 내 일을 기약할 수 없다고 말하며, 광주에까지 온 까닭은 김덕홍, 김덕령 두 형제와 도곡공이 깊이 사귀어 후일을 약속하고, 오늘 일을 결코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다고 한다.

47세 때 부친 동원공(東元公)께서 병환으로 예빈시의 주부(主簿)직을 사임하셨다. 한편 公은 홍성민(洪聖民)의 추천으로 통례원 인의(通禮院 引儀)로 임명되었다.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卷二에는 도곡공은 문학에 정통하여 인의로 추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얼마 뒤 평란회맹(平難會盟 : 정여립의 반란을 진압한 공신들의 모임)에 예관(禮官)으로 평난공신으로 참여하였다. 그해 12월에 회덕 현감(懷德 縣監)에 임명되어 부임하는 길에 파산(坡山)에 있는 우계(牛溪)선생을 심방하였는데 마침 이곳에 들른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 1548~1632)선생과 통례원 인의에 대한 인수인계 사항을 논의하게 되었고, 그 뒤 우계선생에게 송강(松江) 정철(鄭澈) 선생의 행적도 문의했다.

1591년 49세 되던 해 봄, 동래부사로 부임하게 된 송상현(宋象賢)이 들렀는데 이때 도곡공은 다음 해 여름 무렵에 섬 오랑캐의 환란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 적의 소굴로

발령 받은 송상현을 위로하는 자리를 베풀었다. 이 자리에서 두 선생은 각각 시 한수씩을 읊으면서 나라의 앞날을 크게 걱정 하였다.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 했던 성곡(城谷) 양대진(楊大振)은 그 모임의 성격과 시를 김장생(金長生)선생에게 알렸는데, 김장생 선생은 도곡공의 시는 전란의 참혹한 화가 있을 것을 밝혔고, 송상현의 시는 적이 오면 반듯이 죽기를 각오한 뜻이 담겨있다 라고 말하며 궁리(窮理)의 학문과 충절의식이 이렇게 높은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두 분의 시를 벽에 걸어 놓고 감탄했다고 알려져 있다.

3. 출사(出仕)와 임란 의병장의 활약

공은 조중봉(趙重峰)과 김사계(金沙溪)같은 여러 어진 선비들과 일찍 친교가 깊었으며 다 같이 명망이 있었으므로 47세 때 추천을 받아 회덕 현감(懷德 縣監)을 제수 받았다가 임진년에 모친상을 당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와서 장례를 치렀다. 그 해 4월 왜적이 갑자기 쳐들어와 팔도(八道)가 흔들리고 임금이 파천(播遷)을 했다.

五月 초에 도곡공은 나라를 구하려는 애국심으로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촌동생인 운봉(雲峰)양응장(楊應章) 및 제자 장덕개(張德蓋)등과 같이 의병을 모집하였다.

의병장 김천일(金千鎰)과 고경명(高敬命)등이 의병을 일으키고 격문(檄文)을 보내왔는데, 임금과 사직을 보전하자는 내용이 매우 절실하였다.

도곡공은 제청(祭廳)에 들어가 축문을 읽으면서 통곡하고 이어 상복에 검정물감을 들이고, 색실로 이름 석자를 수놓아 전사할 경우에 자신의 시신을 찾는 징표로 했다. 부친 동원공에게 하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다시 뵈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결별(訣別)의 인사를 올렸다.

동원공은 자식의 늠름한 자세를 보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벼슬을 했고 부자(父子)가 함께 국록을 먹어 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니,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어찌 사사로운 일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조현과 협력하여 나라에 보답할 것이며, 늙은 애비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도곡공은 아들 천우(天佑)에게는 “내가 이제 떠나면 살아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할아버지 봉양에 힘쓰라”고 당부 하였다.

五月 二十四日 도곡공은 공주(公州)로 순찰사(巡察使) 윤선각(尹先覺)을 찾아가 일을 같이 하고, 조현선생과는 임금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 협력할 것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집에 돌아와 탄식하며 괴로워했다.

五月 二十五日 옛 친구인 김월곡(金月谷)이 “비록 상중이지만 나라의 운명이 이 지경이므로 의거를 하면 충·효가 모두 갖추어질 것이다.”라는 조현선생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도곡공은 먼저 장덕개(張德蓋), 김월곡(金月谷)등과 함께 의병을 모으기 시작하자 호서(湖西)의 노응탁(盧應暲), 변계온(邊繼溫), 이광륜(李光輪)등이 의병에 합세하게 되어 십 여일 만에 천 여명이 모아졌다.

六月 하순쫘 순찰사 윤선각이 안세헌(安世獻)의 잔피를 이용하여 의병활동을 저지하면서 각 읍에 의병활동 저지에 관한 글을 보내며, 의병들의 가족들을 가두니 많은 의병들이 해산하게 되었다.

六月二十八日에는 조헌선생이 윤선각을 크게 꾸짖었다. 도곡공은 장덕개를 윤선각에게 보내 현실상황과 이유를 설명케 하였으나 윤선각은 실제적으로는 끝내 협력하지 않았다.

七月 四日 대장기(大將旗)를 공주에 세우고, 조헌선생과 도곡공이 앞장서 관군의 명단에서 빠진 사람을 모집하고 황산(黃山)의 김시은(金市隱), 이소선등이 모집한 포군(浦軍) 八十여명과, 제자 정린(丁麟)이 호남지역에서 모집한 四十여명이 도착했다. 여러 장수들과 논의하여 깃발에는 사사로움을 버리고 의(義)를 따르자는 뜻에서 묵수의병장(墨繡義兵將)이라고 이름 붙이였다.

七月 十日 금산전투에서 제봉(齊峯)고경명이 전사한 후 많은 의병들은 진안(鎭安)으로 향하고, 수 백명이 고산(高山), 진산(珍山)등지의 상황을 살핀 다음에 도곡공에게 합세하였다.

七月 二十一日에는 진(陳)을 조정리(鈞亭里)에 있는 갈마산(葛麻山)으로 옮기고, 의승(義僧) 초월(初月)을 비롯한 六十여명의 의병이 합세하여, 장덕개를 부장(副將), 양응장을 선봉(先鋒), 정린과 최호를 좌·우익(左右翼), 초월대사를 후장군(後將軍)으로 하는 편대(編隊)를 구성했다.

七月 二十五日 웅치(熊峙)로부터 적군이 크게 물려온다는 첩보를 받고, 도곡공은 장덕개, 양응진 등과 같이 적군 수 백명이 집합해 있는 곳을 정찰했다. 본부에 연락할 겨를도 없이 기습공격을 가하여 적군을 물리친 다음 보고하였다.

七月 二十八日 회덕(懷德)에 가서 오래 전에 수리한 군기(軍器)를 옮기고, 사령(使令) 귀개(貴介)를 시켜 관군 五十여명을 이끌고 오니 의병이 一千四百여명이 되었다. 이때 조헌선생의 군사 一千六百여명이 회덕에 당도하게 되니 의병의 수는 모두 三千여명에 이르렀다. 조헌선생을 맹주(盟主)로 삼았는데, 이때 청주에서 적병이 크게 나타나 방어사(防禦使) 이옥(李沃)의 군대가 패했다는 연락이 왔다.

七月 二十九日 도곡공은 정오쫘 형강(荊江)을 건너면서 고경명과 같이 건너기로 한 약속을 되새기면서 시를 지어 조의를 표했다. 도곡공은 고경명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시를 읊었다.

「일편단심 피로 맺은 약속이 있었으니 온몸 바쳐 국가의 재앙을 구하는 것일세, 창을 비껴들고 강에 이르니 그대는 보이지 않고 주룩주룩 내리는 가을비에 아득히 추억만 새롭네」

청주 서문 밖에 다다라 의승 영규 대사(靈圭 大師)의 의병과 합세하여 적을 기습 공격하였다. 방어사의 장졸들은 관망만 할 뿐 전진하지 않았다. 의병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 적군을 크게 물리쳤다. 이때 방어사 이옥은 공을 세우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순찰사 윤선각과 상의하여 군량미를 모두 태움으로써 의병들은 식량부족으로 곤란을 겪게 되었으며, 의병과 관군 사이에는 많은 내부의 갈등이 노출되었다.

순찰사 윤선각은 조헌선생의 근왕(勤王)에 대한 견해에 불만을 품고 방해하였다. 적을 물리칠 마음은 전혀 없이 의병들의 가족을 잡아다 가둠으로 해서 죽음을 각오한 의병들의 사기는 떨어졌고, 의병은 겨우 七百여명에 지나지 않았다.

호남지역에 있던 권율(權慄)장군과 八月 十八日에 같이 일제히 금산의 적군을 토벌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 도곡공은 八月 十六日에 행진하여 금산 전방 십리 지점에 이르렀는데, 권율장군으로부터 날짜 변경의 통보가 왔다. 적군이 이미 움직인 까닭에 급히 경양산(景陽山) 아래로 이동하였다.

八月 十八日 아군의 지원병이 없음을 눈치 챈 적군은 여러 부대로 나누어 아군을 공격하였다. 도곡공은 변만호 곽봉사(郭奉事)와 같이 선봉에 서서 용맹하게 싸우니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놀랐다. 칠백의사(七百義士) 모두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세 차례나 적을 물리쳤다. 시체가 들판에 가득할 정도로 적군을 궤멸시킬 즈음 아군의 화살은 떨어지고 왜적은 난입하였다. 칠백의사들은 한사람도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으며, 어떤 이는 맨주먹으로 싸우다가 죽고, 혹은 단검으로 싸우다가 죽었다. 도곡공은 장검 하나로 왜군과 대적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적군의 창 수 십 개에 의해 도곡공의 장검 삼조천보검(三朝天寶劍)은 부러지고 장막 아래에서 전사하였다. 만고의 충절인 칠백의사는 마침내 전멸하였으니 이때가 바로 八月 十八日이다.

八月 二十日 도곡공의 아들 천우(天佑)가 제자 전유복(田有福)과 같이 죽음을 무릅쓰면서 적진에 들어가 옷에 수놓은 징표를 보고 시신을 찾아 모시고 집에 돌아왔다. 장렬히 전사한 도곡공의 부릅뜬 눈과 곤두선 눈썹, 부러진 칼을 권 성난 모습이 마치 산 사람과 같아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구로현 선영에 장례가 치러졌다.

4. 사후 포상과 추증

「동원집 참의부군사적(東元集 參議府君事績)」에 의하면 회덕 현감 양응춘은 금산 전투에서 전사한 뒤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추증되었고 하였다.

순절 뒤 백 여 년(百餘年)이 지난 뒤에도 도곡 선생에 대한 지역사람들의 존경심은 식지 않았다. 어느 날 암행어사 이진망(李眞望)이 지역을 순행하던 도중 괴이하면서도 아름다운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것은 효도와 충성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소문의 주인공은 검은 상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여 장렬하게 순국(殉國)한 도곡 선생이었다.

어사 이진망은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고 탐문조사를 시작하였다.

어사는 애국충정으로 순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한 결과, 그 공로는 포상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조정에 보고하게 되었다.

그 증거물로는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 윤근수(尹根壽)가 지은 금산 순절비(錦山殉節碑)와 여지승람(與地勝覽), 항의신편(抗義新編)등을 비롯하여 어사가 직접 여러 차례에

결쳐 조사하여 수집한 각 종의 증언들이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백성들의 증언이었다. 그만큼 도곡 선생은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것이다. 암행어사는 도곡 선생 순국 기록물에 대한 문헌조사와 각계 각 층의 증언이 모두 일치했기 때문에 품의를 하여 조정에 포상을 상신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도곡 선생의 공적평가는 순절 후 약 百二十年이 지나 조정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숙종(肅宗) 甲午(1714)年 봄 어사 이진망이 쓴 보서(甫書)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한다. 어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높은 관직이 부여되고 포상(褒賞)되어야 당연하다고 임금에게 보고한다. 어사 이진망이 임금에게 올린 어사서(御使書)에는 당시의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있다.

충청우도 암행어사 병조정랑(兵曹正郎)인 신 이진망은 직무에 따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일을 하옵나이다. 비록 봉합하지 않은 서찰이지만 …… 회덕현감(懷德縣監) 양응춘은 모친상을 당하여 서쪽으로 수레를 몰면서 검은 상복을 입고 의병을 일으켜 조헌(趙憲)과 더불어 청주대첩(淸州大捷)과 항의신편(抗義新編) 등의 사적에 모두 실려 있나이다. 그 자손들은 쇠잔을 거듭하여 가문을 선양하기가 불가능하옵니다. 부디 포상하시어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전교(傳敎)를 내리시기 바라옵나이다. 진실로 부족한 판단인줄 압니다만 그러므로 감히 이 글로 덧붙여 아뢰옵나이다.

숙종(肅宗)40. 甲午(1714)年 十一月 十七日 어사의 보고서에 따라 도곡 선생의 공적은 조정의 공론으로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이조(吏曹), 예조(禮曹) 및 호조(戶曹)등의 책임자들이 참석한 당시의 국방에 대한 최고 심의기관이었던 비변사(備邊司)의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해인 1715년 비변사에서는 도곡 선생의 공적을 다시 검토한 뒤 포상하여 격려함이 타당함을 건의했으며, 1716년에 호조판서와 낭청 선전관(郎廳 宣傳官)은 공적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임금에게 주청(奏請)하기에 이른다.

같은 해 七月 二十二日 우부승지(右副承旨)는 구두로 임금의 윤허를 받았고, 1719年 9月18日 좌부승지(左副承旨) 윤양래(尹陽來)는 숙종임금의 최종 결재를 받아 교지(敎旨)를 작성하게 되었다.

肅宗 46. 庚子(1720)年에 내려진 교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奉列大夫 懷德縣監 公州鎭管兵馬 同僉節制都尉楊應春 贈通政大夫吏曹參議者 康熙五十九年 正月 初四日」

이와 함께 같은 날 도곡 선생의 부인에게도 숙인(淑人)에서 숙부인(淑夫人)으로 한 단계 승격시킨다는 교지가 내려졌다. 이것은 나라에서 도곡 선생의 애국충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명백한 사실인 동시에 이 땅에 또 하나의 영웅이 탄생한 쾌거였다. 드디어 도곡 양응춘 선생은 조헌선생, 고경명선생 등과 같이 조선의 당당한 의병장의 대열에 서게 된 것이다.

이어서 충신이란 칭호가 덧붙여지고 정문(旌門) 건립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은

진관청(恩津官廳)에서 발간한 여지승람(與地勝覽)에 잘 나타나 있다. 이밖에도 도곡 선생의 제자와 후인들이 기록한 문건들을 편집해서 만들어진 동원집(東元集)에는 조상의 내력을 비롯하여 가문의 전통, 부친 동원공의 업적, 도곡 선생의 숭고한 절의정신(節義精神)을 찬양한 유생(儒生)들의 축시 그리고 도곡 선생의 나라사랑은 모든 백성이 반드시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수록한 통문(通文) 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대표적으로 열거하여 보면 승현서원(崇賢書院), 금산의 종용당서원(從容堂書院), 연산의 돈암서원(遯巖書院), 은진향교(恩津鄉校), 은진유림(恩津儒林), 부여의 의열사(義烈祠), 노강서원(魯崗書院) 등의 통문이 그것이다. 특히 은진통문은 도곡 선생의 충성을 「백세에 걸쳐 광범한 감동을 일으키며 千年의 공론으로서 불멸의 공적이다.」라고 평가한다. 또한 은진, 부여, 연산, 석성, 회덕 등의 향교나 서당에 붙여진 통문의 내용은 읽는 이의 가슴을 숙연하게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아울러 동원집에는 격려금을 희사한 충청도 각 지역의 유지들과 지역민들의 성명과 발문(跋文)이 담겨 있어 도곡 선생의 공적을 한층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곡 선생의 공적을 수록한 「절의유보서(節義遺補序), 호남절의록서(湖南節義錄書) 卷二, 도곡 선생 문집(道谷先生文集)」 등은 충효(忠孝)의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본고는 忠憲祠誌에 실린 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약간 요약한 것임)

선초 충절의 인물 정인조(鄭仁祚)선생

선생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으므로 단편적 자료를 제시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바, 다음과 같다.

① 「진산지(珍山誌)」의 충절(忠節)조목

정인조, 호는 남은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문정공 진후의 6세손이다. 태조임금 때 관직이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정종 임금 때 월성군으로 봉해지고 찬성을 증직받았다. 순천으로부터 와서 장현산에 살았다. 공이 이조에 있을 때는 다섯 가지의 도리(仁·義·禮·智·信)를 신중히 지키고 법률을 밝게 적용하므로 세상 사람들이 ‘궁전의 쇠 호랑이’라고 하였다. 왜구가 침입했을 때 이들을 물리치지 못하자 변경이 평화롭지 못하였다. 임금이 임무를 맡겨 추천하자 공이 명을 받들어 정벌하여 목을 베고 사로잡은 수가 무수히 많았으나 마침내 순절하여 한 사람의 죽음이 백만의 병사보다 강함을 보였다. 임금이 깊이 애석해하며 말하기를 “나는 큰 기둥 같은 정직한 신하를 잃었도다. 하늘이 포상과 은총을 내리리라.”하고, 시호를 충렬이라 하였으며 예로써 장사지냈다. (鄭仁祚 號南隱 慶州人 文正公珍厚六世孫 太祖朝 官至吏判 定宗朝 封月成郡 贈贊成 自順天來寓長峴山 公在吏曹 慎五典明三尺 世目以展上鐵虎 島夷之侵 尙此未刈 時邊境未安 上委任推轂 拱承命徂征 斬獲無算 竟以殉節 使一死強於百萬 上痛惜曰 喪吾大棟鯨直臣 天降褒寵 乃止諡忠烈禮葬)라고 하였다.

② 忠烈祠創建 獻誠芳名碑

“公은 高麗의 兵部侍郎으로 朝鮮의 太祖가 나라를 세움에 不事二軍의 義로 落鄉하시어 隱居하셨으나 太宗壬午에 倭賊이 侵入함에 이에 義兵을 일으키어 나라의 危機를 救하시고 義兵將으로서 「한사내」에서 마침내 순의함에 이르렀다”

③ 忠烈祠記

“忠烈鄭公이 高麗의 社稷이 망하는 때를 당하여 箕子의 罔僕之義를 굳게 지켰고 島夷가 쳐들어오는 나라를 만나 殉義之節을 다하였다.”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강사 : 한민족상고역사대학 한송(桓松) 송 부 옹(宋富雄) 학장

(광복 후 우리가 배운 국사는 일본이 왜곡 날조한 역사였다.)

一.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과 우리민족 상고사의 왜곡 날조와 말살

1. 일본의 근대화와 대한제국 침략

- 1) 단기 4191(서기 1858)년 → 미·일(美日)수호통상조약 → 러시아, 네델란드, 영국, 프랑스.
- 2) 단기 4222(서기 1889)년 → 대일본제국헌법선포
- 3) 단기 4227(서기 1894)년 → 청·일 전쟁 승리 후 대륙진출 시도
- 4) 단기 4230(서기 1897)년 → 원구단 설치→천제올림→국호변경선포→황제자리에 나감
- 5) 단기 4237(서기 1904)년 → 대한제국의 만주땅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의 흥정→러·일 전쟁
→ 전쟁 전 「한일의정서」 → 전쟁 후 「한일 협정서」 체결--정치적 실권 장악.
- 6) 단기 4238(서기 1905)년 → 7월 미국과 일본의 비밀협약 → 일본의 대한제국침략 승인
9월 러·일 포츠머스강화조약 → 대한제국의 국권유지 어려움.
11월 일본총리 이등방문→을사늑약체결--외교권 박탈
→백성들의 반항운동 및 의병활동 시작
- 7) 단기 4240(서기 1907)년 → 고종의 「해이필사사건」 →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
→ 군대해산 - 800여명의 의병 전국에서 2000여회 싸움.
- 8) 단기 4243(서기 1910)년 → 11월 강제병탄 →조선총독부 설치--장군 테라우치 총독부임
→ 강점정치 시작--대한제국의 영구지배 목적

2. 일본이 영구지배를 위하여 원구단 해체와 상고사 말살정책을 펴

- 1) 단기 4246(서기 1913)년 → 민족의 천제단(원구단) 해체---일본의 철도호텔 건설
- 2) 단기 4255(서기 1922)년 → 총독부 고등경찰에 대한제국 백성의 동화정책을 지시.

「먼저 조선인들이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조선민족의 혼, 조선민족의 문화를 상실하게 하라.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능과 악행을 들추어내되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모 조상들을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그것이 기풍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서 조선인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갖게 하고,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하라. 그럴 때 일본의 사적, 일본의 문화, 일본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면 동화(同化)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을 반(半) 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

3) 민족의 얼과 역사를 말살

- (1) 조선사편수회 설립 → 단기 4255(서기 1922)년부터 16년간 조선사 35권 편찬
반도식민역사관 정립(속지주의) → 한반도강역 → 2000년 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조작.→ 일본서기는 2600년으로 늘려놓음
- (2) 상고사 및 사료(史料)의 말살

① 단군이전 역사는 신화로 왜곡 또는 말살→ 해모수의 북부여(北夫餘), 단군왕검 황제의 고조선(古朝鮮), 한웅천왕의 신시 배달국(倍達國), 한인천제의 한국(桓國)

② 사료(史料)의 인멸→27년간 20만권이상의 상고역사서 → 일본이 만든 조선사 35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만 남겨놓음

③ 사료의 변조 → 삼국유사도 변조하여 남겨둠---중앙도서관, 고려대 도서관에 원본이 보관됨(원본은 1904, 명치 37년 판 동경제국대학 발행)

㉞ 석유한국(昔有桓國) → 석유한인(昔有桓因) :

㉟ 아사달...흑운재관성동(或云在關城東) → 흑운재개성동(或云在開城東) :

4) 반도식민사관의 조선사 35권 편찬의 대표 학자들

일본측 대표 → 구로이다카즈미(黑板勝美), 이마니시다즈(今西龍) 등

대한측 대표 → 이병도, 최남선, 어윤적, 이능화, 현채, 홍희, 유맹, 정만조 등.

대한측 고문 → 이완용, 박영효, 권중현.

5) 조국의 광복 → 민족사학자의 북한 납치---정인보, 안재홍, 손진태 등.

남한의 식민사학자 : 이병도→서울대(국사대관 집필)교수 신석호→고려대 교수

강단사학과 재야민족사학의 대립

3. 중국의 동북공정과 그에 대한 극복

1) 중국의 동북공정이란 :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중국의 변방역사로 유적으로 만들어 세계문화유산(유네스코2004년-소주)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등의 내용

2) 중국의 서북공정이란 : 서기 1955년 신강성을 점령하여 자치주로 하여 중국화 한 것

3) 중국의 서남공정이란 : 서기 1950년부터 티베트를 점령하여 중국화 한 것

4) 역사의 교훈 : 경우에 어긋난 과분한 욕심은 멸망을 자초해 왔다.

5) 동북공정 극복의 길 : 일본이 말살한 우리민족 상고사를 회복하는 길

二. 개천절(開天節)과 국가연호(國家年號)

1) 개천절(開天節)이란 :

2) 대한민국 국호(國號)의 제정 : 단기 4281(서기 1948)년 제헌국회에서 군주제(君主制)인 대한제국(大韓帝國)에서 공화제(共和制)인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 상해 임시정부법통

3) 국가연호의 제정 : 서기전 2333년을 단기원년(檀紀元年)으로

4) 국가연호인 단기의 폐지로, 개천절의 의미가 없어지고, 동시에 국가기원이 없어지고, 국가와 민족의 역사가 말살됨→민족정기와 민족의식이 흐리게 됨

三.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

1. 역사 속지주의(屬地主義)와 속인주의(屬人主義)란?

1) 역사 속지주의(屬地主義) : 강단사학자들이 보는 눈

(1) 일본이 만든 조선사 35권은 반도식민사관으로 속지주의 역사다.

(2) 중공의 동북공정 → 고조선과 고구려의 유적을 자기들의 변방역사로 조작함

2) 역사 속인주의(屬人主義) : 재야 민족사학자들이 보는 눈

(1) 민족의 대륙역사관 → 도읍지변천과 강역의 변화

① 7만 년 전 한국의 강역 →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

중심도읍지→우루국(현 중앙아시아 파미르고원-타지키스탄 중심)--(7세대 63,182년)

② 6000년 전 배달국의 강역 →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

중심도읍지 → 현 중국의 서안 태백산 중심--(18대 1,565년)

③ 4343년 전 고조선의 강역 → 동서남북 5만리

중심도읍지 → 현 중국 흑룡강성의 하르빈 중심--(47대 2,096년)

④ 2248년 전 북부여의 강역 → 고조선의 강역

중심도읍지 → 웅심산(현 장춘 중심?)--(8대 200년)

四. 상고사 중심사료 : 삼국유사의 기이 고조선편, 한단고기(桓檀古記)

1. 한단고기(桓檀古記):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평생을 바친 계연수(桂延壽) 선생이 고기(古記)를 수집하여 단기 4244(서기 1911)년 경에 편찬한 역사서로, 갑자년(서기 1984년) 이후에 민족 앞에 전하라는 유지를 전한 사료이다. 한단고기는 5편의 역사서로 되어있다.

(1) 삼성기전 상편(신라 말 승려 안함로 편찬)

(2) 삼성기전 하편(신라 말 승려 원동중 편찬)

(3) 단군세기(고려 말 좌정승 이암 편찬)

(4) 북부여기 상·하 및 가섭원부여기(고려 말 범장 편찬)

(5) 태백일사 : 한국본기, 신시본기, 삼한관경본기, 삼신오제본기, 소도경전 본훈, 고구려국 본기, 대진국 본기, 고려국 본기 (이조 중종 때 찬수관 이맥 편찬)

五. 한인천제와 한국(桓國)의 개국

1. 한국(桓國)의 성립(개국)과 연대

1) 인류의 시원 → 350만년인가? 600만년인가? 그 이상인가?

2) 한국의 성립연대와 그 강역 → 7만년이나? 만년이나?

2. 한국(桓國)이 존재한 역사적 근거사료

1) 삼국유사의 기이(紀異) 고조선 편(단군왕검) 원문으로 보아

(1) 魏書云乃往二千載 有壇君王儉 (2) 立都阿斯達(或云在關城東→開城東) 開國號朝鮮與高同時
위서운내왕이천재 유단군왕검 입도이사달(혹운재관성동 개성동) 개국호조선여고동시

(3) 古記云 (4) 昔有桓國→因 (5) 庶子桓雄 (6) 數意天下 貪求人世
고기운 석유한국 인 서자한웅 수의천하 탐구인세

(7) 父知子意 下視三危太白 (8) 可以 弘益人間 (9) 乃授天符印三箇
부지자의 하시삼위태백 가이 홍익인간 내수천부인세개

(10) 遺往理之 雄率徒三千 (11) 降於太白山頂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유왕이지 웅솔도삼천 강어태백산정 신단수하 위지신시 시위한웅천왕야

(12) 將風伯雨師雲師 (13)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14)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장풍백우사운사 이주곡주명주병주형주선악 범주인간삼백육십여사 재세이화

(15) 時有一熊一虎 同穴而居 (16) 常祈于神雄 願化爲人
시유일웅일호 동혈이거 상기우신웅 원화위인

- (17) 時神遺靈艾一炷 蒜二十枚曰 爾輩食之 (18)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시신유령애일주 산이십매알 이배식지 불견일광백일 편득인형
- (19) 熊虎得而食之 忌三 七日 (20) 熊得女身 虎不能忌 而不得人身
 옹호득이식지 기삼 칠일 옹득여신 호불능기 이불득인신
- (21) 熊女者 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22) 雄乃假化而婚之
 옹여자 무여위혼 고매어단수하 주원유잉 옹내가화이혼지
- (23) 孕生子 號曰壇君王儉 以唐高卽位 五十年庚寅
 잉생자 호왈단군왕검 이당고즉위 오십년경인
- (24) 都平壤城 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25) 又名弓忽山 又今彌達御國一千五百年
 도평양성 시칭조선 우이도어백악산아사달 우명궁홀산 우금미달어국일천오백년
- (26) 周虎王卽位己卯 封箕子於朝鮮
 주호왕즉위기묘 봉기자어조선
- (27) 壇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 爲山神 壽一千九百八世
 단군내이어장당경 후환은어아사달 위산신 수일천구백팔세
- (28) 唐裴矩傳云 高麗本孤竹國 周以封箕子 爲朝鮮
 당배구전운 고려본고죽국 주이봉기자 위조선
- (29) 漢分置三郡 謂玄菟 樂浪 帶方 通典 亦同此說
 한분치삼군 위현토 낙랑 대방 통전 역동비설

2) 한단고기(桓檀古記)의 삼성기전(三聖紀全)의 상, 하편을 보아서

삼성기전 상편 → 신라말 승려 안함로 편찬, 삼성기전 하편 → 신라 말 원동중 편찬

3) 한단고기(桓檀古記)의 한국본기(桓國本紀)를 보아서

3. 한국(桓國—우루국)의 역대기(歷代記)

제 1세대(世代) 안파견(安巴堅) 한인천제(桓仁天帝) → 여성으로 도통한 신인(神人)

제 2세대(世代) 혁서(赫胥) 한인천제(桓仁天帝)

제 3세대(世代) 고시리(古是利) 한인천제(桓仁天帝)

제 4세대(世代) 주우양(朱于襄) 한인천제(桓仁天帝)

제 5세대(世代) 석제임(釋堤壬) 한인천제(桓仁天帝)

제 6세대(世代) 구을리(邱乙利) 한인천제(桓仁天帝)

제 7세대(世代) 지위리(智爲利) 한인천제(桓仁天帝), 또는 단인(檀仁)이라고도 하였다.

4. 한국의 강역과 12나라

1) 위치 : 파내류 산(波奈留 山—현 파미르 고원) 아래부터 천해(현 바이칼호) 동쪽의 땅까지.

2) 땅의 넓이는 남북이 오만 리(五萬里), 동서는 이만 리(二萬里) → 중앙 및 동북아시아 전체

3) 12나라 : 비리국(卑離國), 양운국(養雲國), 구막한국(寇莫汗國), 구다천국(句茶川國), 일군국(一群國), 우루국(虞婁國) 또는 필라국(畢那國), 객현한국(客賢汗國), 구모액국(句牟額國), 매구여국(賣句餘國) 또는 직구다국(稷臼多國), 사납아국(斯納阿國), 선비이국(鮮裨爾國) 또는 시위국(豕韋國) 혹은 통고사국(通古斯國), 수밀이국(須密爾國)이니 합하여 12국이다.

4) 기타 : 천해(天海)는 지금의 북해(北海—러시아의 바이칼호)이며, 파내류(波奈留)산은 오늘의 파밀고원(알타이산맥과 곤륜산맥 사이)이다.” 라고 하였다.

五. 한웅천왕과 신시(神市) 배달국(倍達國)의 성립

1. 신시 배달국이 존재한 역사적 근거 사료

- 1)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고조선 편을 보아서
- 2) 한단고기(桓檀古記)의 삼성기전(三聖紀全)의 상, 하편을 보아서
- 3) 한단고기(桓檀古記)의 신시본기(神市本紀)를 보아서
고서(古書)인 진역유기의 신시기, 삼성밀기, 조대기, 대변경, 삼한비기, 위서, 사기 등, 인용함.
- 4) 우리가 배달민족이라는 민족의식과 전통 민속(신앙과 결혼풍속 등)으로 보아

2. 신시(神市) 배달국(倍達國)의 역대기(歷代記)

- 제 1대 거발한(居發桓) 한웅천왕 재위 94년 120세
- 제 2대 거불리(居佛理) 한웅천왕 재위 86년 102세
- 제 3대 우야고(右耶古) 한웅천왕 재위 99년 135세
- 제 4대 모사라(慕士羅) 한웅천왕 재위 107년에 129세
- 제 5대 태우의(太虞儀) 한웅천왕 재위 93년에 115세
- 제 6대 다의발(多儀發) 한웅천왕 재위 98년에 110세
- 제 7대 거련(居連) 한웅천왕 재위 81년에 140세
- 제 8대 안부련(安夫連) 한웅천왕 재위 73년에 94세
- 제 9대 양운(養雲) 한웅천왕 재위 96년에 139세
- 제 10대 갈고(葛古) 한웅천왕은 재위 100년에 125세까지 사셨다.
- 제 11대 거야발(居耶發) 한웅천왕 재위 92년에 149세
- 제 12대 주무신(州武愼) 한웅천왕 재위 105년에 123세
- 제 13대 사와라(斯瓦羅) 한웅천왕 재위 67년에 100세
- 제 14대 자오지(慈烏智) 한웅천왕 또는 치우천왕(蚩尤天王)이라 하였고,
청구 땅으로 도읍을 옮겼으며, 재위 109년에 151세까지 사셨다.
- 제 15대 치액특(蚩額特) 한웅천왕 재위 89년에 118세
- 제 16대 축다리(祝多利) 한웅천왕 재위 56년에 99세
- 제 17대 혁다세(赫多世) 한웅천왕 재위 72년에 97세
- 제 18대 거불단(居弗檀) 한웅천왕 혹은 단웅(檀雄)이라 함. 재위 48년에 82세까지 사셨다.

3. 우루국(파내류산)에서 태백산으로의 출발→지위리 한인천제의 조서 : 서자부 대인 한웅

- 1) 人(3000무리). 物(재물) 業(산업)이 준비된 후 출발 → 천부인 세 개(옥쇄)
- 2) 개천(開天) 3) 입교(立教) 4) 제천(祭天) 5) 부권확립(父權確立)
- 6) 재세이화(在世理化) 7) 홍익인간(弘益人間)

4. 태백산에 도착

- 1) 반고가한(盤固可汗)의 이탈 → 삼위산 납립으로 : 중국역사의 시조 → 반고 개천
- 2) 중국 서안의 태백산에 도착
- 3) 신단수(神壇樹) → 신단을 수립 -- 천제를 올림 → 삼신산(三神山) -- 소도의 성립
- 4) 개천 → 신시(神市) → 배달국(倍達國) --- 밝은 나라, 문명한 나라를 뜻함
(1) 재세이화(在世理化) 홍익인간(弘益人間)

- ① 풍백(風伯) → 석제라(釋堤羅) → 새와 짐승 물고기의 피해를 없게 함
- ② 운사(雲師) → 육약비(陸若飛) → 남녀의 혼례 법을 제정
- ③ 우사(雨師) → 왕금영(王錦營) → 사람이 살 곳을 정하고 움막을 짓게 하고, 목축을 관장.
- ④ 신지(神誌) → 혁덕(赫德) → 법과 명령을 주관하고, 재정의 출납을 관장하고, 문자를 만들어 기록을 남기게 했다. → 녹도문(鹿圖文)을 창제
- ⑤ 치우(治尤) → 병마(兵馬)와 도적 막는 일을 관장함

(2) 오사(五事)로 다스림

- ①주곡(主穀) → 고시례(高矢禮) → 농사와 목축 등을 관장함
- ②주명(主命) →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들어 백성이 지키게 함
- ③주형(主刑) → 악행에 대하여 벌(형)로서 다스림
- ④주병(主病) → 백성의 건강을 위하여 병을 다스림
- ⑤주선악(主善惡) → 백성들에게 선악을 중심한 윤리도덕을 가르침

(3) 360여사로 다스림(참전계경 참조)

5) 입교(立敎) → 입사도(立師道)

- (1) 소도(蘇塗)를 정결케 하고, 천경(天經)을 널리 펴고, 신고(神誥)를 강론함

(2) 삼신(三神)을 믿는 가르침을 베풀고, 천(天)을 계율로 삼아 사람이 온전해지도록 교화(敎化)를 베풀고, 권선징악(勸善懲惡)을 실천할 것을 맹세하게 하였다.

- 6) 오가(五加) 및 국인(國人)의 제도와 화백제도(和白制度)를 실시함

- 7) 한웅천왕(桓雄天王)의 조서(詔書) → 국인과 백성에게 내림

5. 현지주민 웅족(熊族)과 호족(虎族)을 교화(敎化)

- 1) 웅족(熊族)과 호족(虎族)이 신계(神界:神市)의 백성 되기를 소원함

- 2) 쑥 한 묶음과 마늘 20쪽으로 100일간의 수도를 하게 함 →

- (1) 세 가지의 금기사항을 지키게 함(忌三의 뜻)

- (2) 7일 간격으로 일곱 제신(七回 諸神-하느님, 月神, 水神, 木神, 火神, 土神, 金神)에게 제사를 드리게 함(七日的 뜻)

- (3) 천경신고(天經神誥-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를 공부하게 함

- (4) 웅족(熊族)은 100일 수련에 성공하였으나 호족(虎族)은 실패함.

- (5) 웅족의 여인들이 한웅천왕께 잉태를 소원함(呪願有孕) → 결혼을 원함

- (6) 웅내가화이혼지(雄乃假化而婚之) → 적령기의 남자를 한웅천왕으로 거짓 변장시켜 혼인하게 함 → 조상들의 결혼예복이 한웅천왕의 의복임 → 후에 왕복으로 또는 관복으로 바뀜 → 우리민족 전통혼례의 법이 정해지기 시작함

六. 웅씨국(단국)의 단군왕검과 고조선(古朝鮮)의 단군왕검 황제

1. 고조선이 존재한 역사적 근거 사료

- 1) 삼국유사의 기이 고조선(단군왕검) 편을 보아서

- 2) 한단고기 삼성기전의 상편을 보아서
- 3) 한단고기의 단군세기를 보아서

- 4) 한단고기의 신시본기(태백일사)를 보아서
- 5) 단기고사, 규원사화, 제왕운기 등을 보아서

- 6) 광복 후 제헌국회에서 개천절 제정과 단기연호의 사용을 보아서

2. 옛 조선의 역대기와 황제의 재위기간 및 출신

- 제 1대 단군왕검(檀君王儉) 황제 재위 93년(개천 1565년, 단기 1년)
- 제 2대 단군 부루(扶婁) 황제 재위 58년 (태자)(개천 1658년, 단기 93년)
- 제 3대 단군 가륵(嘉勒) 황제 재위 45년 (태자)(개천 1716년, 단기 151년)
- 제 4대 단군 오사구(烏斯丘) 황제 재위 38년 (태자)(개천 1761년, 단기196년)
- 제 5대 단군 구을(丘乙) 황제 재위 16년 (양가)(개천 1799년, 단기234년)
- 제 6대 단군 달문(達門) 황제 재위 36년 (우가)(개천 1815년, 단기250년)
- 제 7대 단군 한속(翰粟) 황제 재위 54년 (양가)(개천 1851년, 단기286년)
- 제 8대 단군 우서한(于西翰) 황제 재위 8년 (태자)(개천1905년, 단기340년)
- 제 9대 단군 아술(阿述) 황제 재위 35년 (태자)(개천1913년, 단기 348년)
- 제 10대 단군 노을(魯乙) 황제 재위 59년 (우가)(개천1948년, 단기 383년)
- 제 11대 단군 도해(道奚) 황제 재위 57년 (태자)(개천 2007년, 단기 442년)
- 제 12대 단군 아한(阿漢) 황제 재위 52년 (우가)(개천 2064년, 단기 499년)
- 제 13대 단군 흘달(屹達) 황제 61년(우가)(개천 2116년, 단기 551년)
- 제 14대 단군 고불(古弗) 황제 재위 80년 (우가)(개천 2177년, 단기 612년)
- 제 15대 단군 벌음(伐音) 황제 51년(태자)(개천 2257년, 단기 692년)
- 제 16대 단군 위나(尉那) 황제 재위 58년 (우가)(개천 2308년, 단기 743년)
- 제 17대 단군 여을(余乙) 황제 재위 68년 (태자)(개천 2366년, 단기 801년)
- 제 18대 단군 동엄(冬奄) 황제 재위 49년 (태자)(개천 2434년, 단기 869년)
- 제 19대 단군 구모소(緜牟蘇) 황제 재위 55년 (태자)(개천 2483, 단기 918년)
- 제 20대 단군 고홀(固忽) 황제 재위 43년 (우가)(개천 2538년, 단기 973년)
- 제 21대 단군 소태(蘇台) 황제 재위 52년 (태자)(개천 2581년, 단기 1016년)
- 제 22대 단군 색불루(索弗婁) 황제 재위 48년 (우현왕)(개천 2633년, 단기 1068년)
- 제 23대 단군 아홀(阿忽) 황제 재위 76년 (태자)(개천 2681년, 단기 1116년)
- 제 24대 단군 연나(延那) 황제 재위 11년 (태자)(개천 2757년, 단기 1192년)
- 제 25대 단군 솔나(率那) 황제 재위 88년 (동생)(개천 2768년, 단기 1203년)
- 제 26대 단군 추로(鄒魯) 황제 재위 65년 (태자)(개천 2856년, 단기 1291년)
- 제 27대 단군 두밀(豆密) 황제 재위 26년 (태자)(개천 2921년, 단기 1356년)
- 제 28대 단군 해모(奚牟) 황제 재위 28년 (오가)(개천 2947년, 단기 1382년)
- 제 29대 단군 마휴(摩休) 황제 재위 34년 (태자)(개천 2975년, 단기 1410년)
- 제 30대 단군 나휴(奈休) 황제 재위 35년 (동생)(개천 3009년, 단기 1444년)
- 제 31대 단군 등을(登兀) 황제 재위 25년 (태자)(개천 3044년, 단기 1479년)
- 제 32대 단군 추밀(鄒密) 황제 재위 30년 (태자)(개천 3069년, 단기 1504년)
- 제 33대 단군 감물(甘勿) 황제 재위 24년 (태자)(개천 3099년, 단기 1534년)
- 제 34대 단군 오류문(奧婁門) 황제 재위 23년 (태자)(개천 3123년, 단기 1558년)
- 제 35대 단군 사벌(沙伐) 황제 재위 68년 (태자)(개천 3146년, 단기 1581년)
- 제 36대 단군 매륵(買勒) 황제 재위 58년 (태자)(개천 3214년, 단기 1649년)
- 제 37대 단군 마물(麻勿) 황제 재위 56년 (태자)(개천 3272, 단기 1707년)
- 제 38대 단군 다물(多勿) 황제 재위 45년 (태자)(개천 3328년, 단기 1763년)
- 제 39대 단군 두홀(豆忽) 황제 재위 36년 (태자)(개천 3373년, 단기 1808년)
- 제 40대 단군 달음(達音) 황제 재위 18년 (태자)(개천 3409년, 단기 1844년)

- 제 41대 단군 음차(音次) 황제 재위 20년 (태자) (개천 3427년. 단기 1862년)
- 제 42대 단군 을우지(乙于支) 황제 재위 10년 (태자) (개천 3447년. 단기 1882년)
- 제 43대 단군 물리(勿理) 황제 재위 36년 (태자) (개천 3457년. 단기 1892년)

대부여(大夫餘)로 국명을 변경

- 제 44대 단군 구물(丘勿) 황제 재위 29년 (옥살) (개천 3493년. 단기 1928년)
- 제 45대 단군 여루(余婁) 황제 재위 55년 (태자) (개천 3522년. 단기 1957년)
- 제 46대 단군 보을(普乙) 황제 재위 46년 (태자) (개천 3577년. 단기 2012년)
- 제 47대 단군 고열가(高列加) 황제 재위 58년 (상장군) (개천 3623년. 단기 2058년)

- 3. 단군왕검의 뜻 → 4. 아사달의 위치 →
- 5. 삼한(三韓) 및 삼조선의 위치 → 6. 한글의 기원 → 가림타 글(3대 단군 가림황제)
- 7. 강화도 참성단의 유래와 뜻 → 8. 대웅전(大雄殿)의 유래 →

七. 해모수의 북부여와 고주몽의 고구려

고구려(高句麗)의 시작인 북부여(北夫餘)와 가섭원부여(迦葉原夫餘)

1. 북부여(北夫餘)의 역대기(歷代記)

제 1대 시조(始祖) 단군 해모수(解慕漱) 황제 재위 45년(BC 237년→)

해모수(23세 때)는 옛 조선 단군고열가 57년 4월 8일 웅심산을 근거로 북부여를 일으킴

제 2대 단군 모수리(慕漱離) 황제 재위 25년(BC 194년→)

제 3대 단군 고해사(高奚斯) 황제 재위 49년(BC 170년→)

제 4대 단군 고우루(高于婁:혹 해우루) 황제 재위 34년(BC 120년→)

고두막 왕에게 황제의 자리를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아, 그 충격으로 붕어함

제 5대 단군 해부루(解夫婁) 황제 재위 1년(BC 87년→)

고우루 동생으로 제위에 올랐으나 고두막 왕에게 쫓겨나 가섭원으로 피하여 나라를 세우고 가섭원부여 또는 동부여(BC 86년)라고 하고 왕이 됨

제 6대 졸본(卒本)의 동명(東明)왕 고두막(高豆莫) 황제 재위 27년(BC 86년→)

제 7대 단군 고무서(高無胥) 황제 재위 2년(BC 59년→)

가섭원 부여에서 도망온 고주몽을 사위로 삼음

제 8대 단군 고주몽(高朱蒙) 황제 재위 21년(BC 58년→)

고주몽은 아버지 고모수(高慕漱)와 어머니 유희화(柳花)부인 사이에서 북부여 고두막 단군황제 7년(BC 79년) 가섭원 부여에서 탄생 → BC 59년 북부여로 피신함 → 북부여 7대 고무서단군황제의 사위가 됨 → BC 58년 북부여 8대 단군황제가 됨 → 고주몽 단군황제 21년 (BC 37년) 북부여의 명칭을 고구려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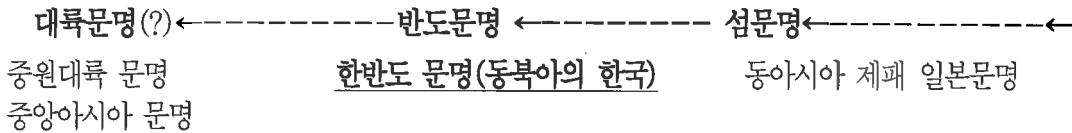
八. 세계 문명이동 변천사로 본 우리 한민족의 진로와 사명

대륙문명----->반도문명----->섬문명----->대륙문명-----

파미르 고원 한국(桓國)문명	그리시아반도의 희랍문명, 식민지 제패	유럽의 프랑스
↓	이탈리아반도의 로마문명, 영국문명	독일 및 소련
인도의 인더스문명	이베리아반도 서반아문명	아메리카 미국문명

중동의 바비로니아 문명
아프리카의 에집트 문명
중원의 황하문명

★ 7만년전~BC 600년대 ★ BC 600년대~ ★ 서기 1600년대 ~ ★ 서기 1800년대~



★ 서기 2100년대? ★ 서기 2000년대 ~ ★ 서기 1900년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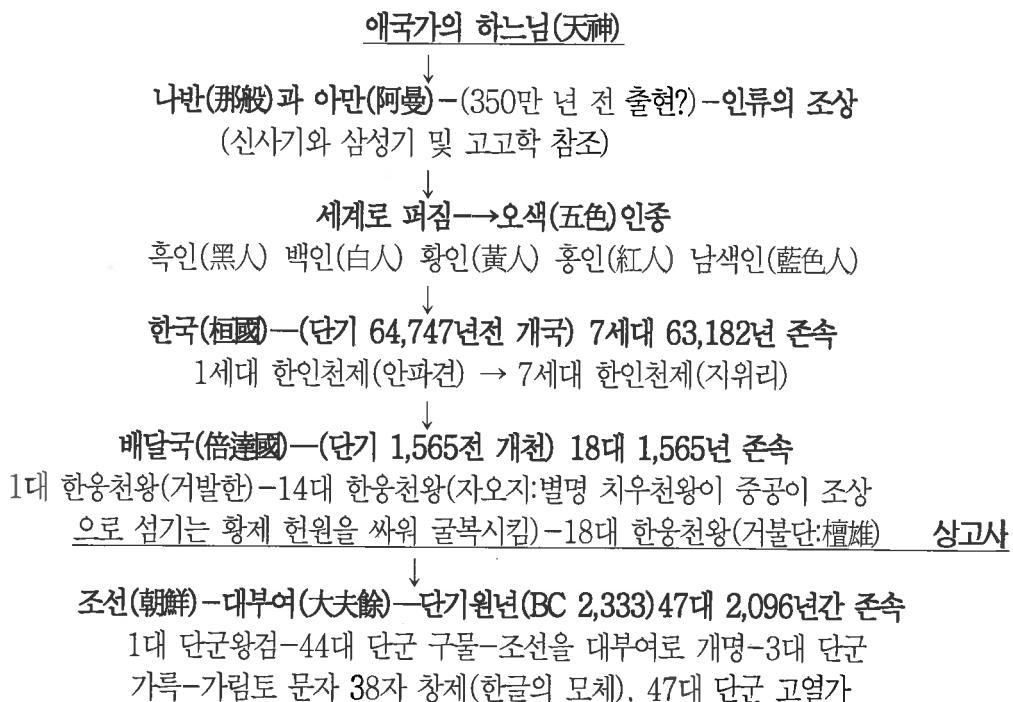
1. 선진국의 기준과 그 기준의 변화 --- 인류도덕, 문화예술, 군사력, 자본력 →
2. 새로운 선진문명---문화예술, 군사력, 자본력의 터전→인류도덕--종교와 사상(정신세계)
 - 1) 세계종교 및 사상의 발효 --> 역사정립, 신관, 종(宗), 삼륜(三倫), 홍익인간하는 정신
 - 2) 우리민족의 자격
 - (1) 꿈을 가진 민족 (2) 최고의 역사 - 천손민족 중 장손민족임
 - (3) 세계적 언어 (4) 20여 가지의 문자를 창제
 - (5) 세계적인 예술적 의복 (6) 건강식품의 발효음식
 - (7) 건강의 온돌문화 (8) 대체의학 및 한의학
 - (9) 최고의 경전---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 등
 - (10) 세계적인 두뇌와 노력 (11) 놀이와 음악을 좋아함
 - (12) 삼신하느님신앙과 삼륜을 중시한 인류도덕의 바탕과 전통, 홍익인간하는 정신, 등등

九. 한국과 중국의 역사 비교 도표

<u>우리 한(桓)민족의 역사</u>	<u>지나 한족(漢族)의 역사</u>
<u>한(桓=韓)민족 --- 한국</u>	<u>지나 한족(漢族) --- 중국</u>
한인천제(桓仁天帝)의 한국(桓國) 7만년 전(7세대×3301년~63182년) (BC 67080년~BC 3898년)	중국의 상고시대는 기록이 없음
한웅천왕(桓雄天王)의 배달국(倍達國) 태백산의 한웅천왕 개천(開天) ----- 단기전 1565년(18대 1565년간) (BC 3898년 ~ BC 2333년)	삼위산 낭림의 반고(盤固) 개천(開天) 삼황오제설(三皇五帝說) (사마천의 조작) 삼황 : 수인, 복희, 신농(복희, 여와, 신농) 오제 : 황제, 전욱, 제곡, 요, 순.
단군왕검 황제의 조선(朝鮮) (43대) 단군기원(BC 2333년) 대부여(大夫餘) (4대)	하(夏)왕조 BC 21~16세기(조선의 제후국) 상(商) 은(殷)왕조 BC16-11세기 서주(西周), 동주(東周) ---BC 770년

고조선 존속기간(47대 2096년간) (BC 2333년~BC 237년)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BC 475 제후국 170개 중, 연(燕), 제(齊), 노(魯), 위(衛) 정(鄭), 송(宋), 진(陳), 채(蔡), 진(晉), 진(秦) 초(楚), 오(吳), 월(越), 위(魏) 등, 중요 제후 11국
해모수의 북부여(北夫餘) (BC 237) ----- <BC 237~BC 37년(200년간)> 고구려(BC 37) 백제(BC 18) ----- 신라(BC 57) 가야(AD 42)	진(秦)의 통일시대(BC 230~221) 한(漢) 성립(BC 202년 시조 劉邦) 삼국(三國) (위(魏) 촉(蜀) 오(吳))-(208) 서진(西晉) (265) 남북조(南北朝) (439) 위(魏), 진(陳) (494년) --- 5호 16국 수(隋) (584년) -양견(문제)
통일신라(676) -대조영의 발해(698년) ----- 왕건의 고려(高麗) (918년) -----	당(唐) (618년) -이연-이세민(태종) 5대(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10국(907~960) (오월, 오, 남당, 민(閩), 남한, 초, 형남, 전촉, 후촉, 북한) 송(宋) (963년) -조광윤, 북송(北宋) 요(遼) (916년) -야율아보기 금(金) (1115년) -아골타 원(元) (1206년) -징키스칸
근세조선(近世朝鮮) (1392년) -----	명(明) (1368년) -주원장 후금(後金) (1616년) -누루하치 청(淸) (1636년) -태종(홍타이지-누루하치 8남)
대한민국(1948년), 조선인민공화국(1947) -----	중화민국(대만 1912), 중화인민공화국(1949년)

우리 민족의 바른 역사 도표



일본과 이병도가
왜곡말살한 부분

↓
북부여(北夫餘) — 단기 2094(BC 239) 건국 — 8대 200년 간 존속
1대 단군 해모수 — 7대 단군 고무서 — 8대 단군 고주몽(7대 단군사위) 고대사

↓
고구려 : 단기 2296(BC 37년)
사국시대(四國時代) 성립 → 백 제 : 단기 2315(BC 18년)
(대륙중심으로 성립) 신 라 : 단기 2276(BC 57년)
가 야 : 단기 2375(AD 42)

↓
남북시대(南北時代) 성립 → 통일신라 : 단기 3009(AD 676년)
발해(진국) : 단기 3031(AD 698년) 중세사

↓
고려(高麗) 시조 — 왕건 → 단기 3251(AD 918)년 건국

↓
조선(朝鮮) 시조 — 이성계 → 단기 3725(AD 1392)년 건국 근세사

↓
일본의 강점 식민 통치시대 → 단기 4243(AD 1910-1945) 36년 간

광복이후

우리가 배운 국사

↓
남북한시대(南北韓時代) → 단기 4281(AD 1948) → 단기 4344년 현대사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국사(國史)를 아는 것 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

일본이 왜곡 말살한 우리역사복원 교육과정

서울과학기술대학 평생교육원(특:우리역사학) 원생 모집

1. 교육장소 : 노원구 공릉동 172번지, 서울과학기술대학 평생교육원 201호 강의실
2. 기간 및 일시 : 서기 2011년 11월 8일~12월 27일(8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3. 수강료 : 12만원(3만원대 교재포함(책, 프린트) 송금계좌:농협 1203-01-001523 서울과학기술대학
※ 본교 학생은 수강료 일부지원 ※ 본교 졸업자는 수강료 일부보조
4. 특혜 : 본 교육과정 수료 후, 우리역사 강사 자격증 부여(학교 및 기업체 초청 강의 등)
5. 강사 : 송 부 웅(宋 富 雄) 학장(한민족상고역사대학, 세계생활종교대학)
6. 교재(책) : 한인개국 7만년 한민족의 대륙역사(송부웅 편저) 7. 참고도서 : 한단고기, 삼국유사
8. 오시는 길 : 청량리에서 1227번, 1224번 버스 또는 7호선 공릉역 하차 마을버스 3번이용
※ 수강신청은 02-970-6181, 010-7587-5768 로 !! 선착순 25명 ※

우리역사복원 교육과정 강의주제

- 1주 : 광복 후 우리가 배운 국사(國史)는 일본과 이병도가 왜곡 날조한 역사였다.
- 2주 : 역사인물의 삼성(三聖)과 하느님의 삼신(三神)과의 관계로 본 신화적 역사관 극복
- 3주 : 우리민족 최초의 나라, 한국(桓國)의 시작은 7만 년 전인가? 한인천제는 여성인가?
- 4주 : 세계최초, 민족이동(3천 무리)의 주인은 붉은 악마 치우천왕인가? 한웅천왕인가?
- 5주 : 단군은 무당인가? 단군이 47분인 것을 아는가? 불교의 대웅전은 한웅을 모셨던 곳이다.
- 6주 : 부여국의 마지막 황제가 고주몽이다. 기자조선, 위만조선은 변조선에 있었다?
- 7주 : 우주의 존재와 운행원리를 다룬 천부경, 삼일신고는 만 년 전부터 구전(口傳)되어 왔다?
- 8주 : 토인비(영국의 사학자)의 문명이동론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당신의 장래를 알 수 있다!

-
- ※ 광복으로 주권은 회복하였지만, 민족의 일이 담긴 국사는, 아직도 일본의 식민치하에 놓여 있다. ※
 - ※ 국사광복으로 민족정기를 회복하여, 자긍심을 갖게 하자. 현 학교교육의 국사는 배우지 말아야 한다. ※
 - ◆ 민족의 뿌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 국사를 알아야 민족의 정체성을 안다. ◆
 - ◆ 여성이 국사를 알면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훌륭한 어머니라야 자식을 훌륭한 인물로 키워낸다. ◆
 - ◆ 훌륭한 정치를 하는 국가지도자가 되는 길은 먼저 국사(國史)를 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
 - ◆ 국사광복운동을 국가기관이 해야 하는데, 현재는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동참하여 도와주십시오. ◆

서울과학기술대학 평생교육원

광복이후 우리가 배운 국사(國史)는 일본과 이병도가 왜곡 날조한 역사였다!

● 일본은 단기 4243(서기 1910)년 무력으로 우리나라(대한제국)를 강점한 후, 영원히 우리나라를 지배할 목적으로, 천제를 올리는 원구단을 제일먼저 파괴하고, 우리민족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고 조선총독부를 통하여 고등경찰에게 단기 4255(서기 1922)년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조선총독부 고등경찰요사에서 발췌) “먼저 조선인들이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조선민족의 혼, 조선민족의 문화를 상실하게 하라.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능과 악행을 들추어 내되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모 조상들을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그것이 기풍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서 조선인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갖게 하고,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하라. 그럴 때 일본의 사적, 일본의 문화, 일본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면 동화(同化)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을 반(半) 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라고, 이와 같은 방침 밑에 우리민족 젊은이들에게 은밀히 역사와 전통을 모르게 은밀히 교사(敎詐)하였고, 이를 은폐하려고,

서기 1922년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사편수회」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리하여 준다는 명분으로 16(1922-1938)년에 걸쳐 조선사 35권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본 역사에는 없는 수천 수만 년의 우리민족의 상고사(上古史)인, 7세대 63,182년간 계속된 한인천제(桓仁天帝)의 한국(桓國), 18대 1,565년간 존속한 한웅천왕(桓雄天王)의 신시 배달국(倍達國), 47대 2,096년간 지속된 단군왕검(檀君王儉) 황제의 조선(朝鮮)과 대부여(大夫餘), 8대 200년간 존속한 해모수(解慕漱) 단군황제의 북부여(北夫餘)의 역사를 말살하려고, 우리민족의 상고사(上古史)를 신화(神話)로 왜곡 날조하거나 말살하였다. 이렇게 왜곡 날조하고, 말살한 역사를 우리민족역사라고 지금까지 배우고, 가르쳐 왔다.

● 삼국유사(三國遺事) 고조선편의 석유한국(昔有桓國)을 석유한인(昔有桓因)으로 변조하고, 관성동(關城東)을 개성동(開城東)으로 변조하여 우리 역사를 왜곡 날조하였다. 그리하여 최초의 우리나라 한국(桓國)을 말살하고, 고조선의 도읍지를 대륙인 하르빈에서 반도의 평양으로 끌어내려 반도식민사관을 만들었다.

한민족 상고역사 대학

“한민족 상고역사 대학”에 오시면 다음의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 한단고기(桓檀古記)의 삼성기전(三聖記全) 상(上)에 나오는 사백력지천(斯白力之天)이 과연 시베리아의 하늘인가? 인류 역사를 4대문명의 발생으로 본 5천년인가? 아니면 한국의 문명 7만년으로 보아야 하는가? 인류의 오색인종은 어떻게 이루어 졌을까? 인간은 진화된 존재인가? 처음부터 인간이였는가? 애국가의 하느님은 존재하는가? 한인천제(桓仁天帝)가 하느님으로 동녀동남 800명을 거느리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해석은 옳은 것인가?
- 한인천제가 한웅에게 주었다는 천부인 3개는 무엇인가? 한인천제가 태백산을 보고 가이 홍익인간 할만하다고 했는데, 그 산은 중국의 서안 태백산인가? 만주의 백두산인가? 한웅을 따라나선 3000무리는 몇 명인가? 한웅천왕(桓雄天王)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가? 신단수(神檀樹)는 나무인가? 신단(神檀)을 수립(樹立)하고 인가? 한웅천왕(桓雄天王)이 웅족과 호족을 교화하는 100일기간은 무엇이며, 기삼칠일(忌三七日) 무슨 뜻인가? 웅족(熊族)의 여인들이 한웅천왕에게 아이를 낳게 해 달라는 뜻과 한웅천왕이 변화하여 그들을 상대했다는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반고(盤固)는 한웅천왕과는 어떤 관계인가? 중국의 반고개천과 우리의 한웅개천은 무엇인가? 한웅천왕이 18분인 것을 아는가? 조선을 건국한 단군왕검은 무당인가? 단군왕검 황제가 우리나라의 국조인가? 중시조인가? 단군이 47분인 것을 아는가? 고조선이 진나라 황제 영정(嬴政)에게 망했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 해모수가 오룡거를 타고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은? 당나라는 고구려의 역사를 왜, 900년으로 보는가? 고주몽은 북부여의 8대 단군황제로서 북부여명칭을 고구려로 바꾸었다. 이를 아는가?
- 우리민족이 왜? 천손(天孫)이며 또, 천손 가운데 장손(長孫)인가? 역사인물의 삼성(三聖)과 하느님의 삼신(三神)과는 어떤 관계인가? 개천(開天)의 뜻과 홍익인간(弘益人間)의 바른 해석과 유래 등, 중요한 쟁점들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국사를 아는 것이 애국애족의 길입니다. 역사는 부모와 조상을 알게 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알게 한다.

※ **토인비의 문명이동사로 보아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인가?** ◆ **한민족상고역사대학 : 010-7587-5768**

◆ **일본이 왜곡 말살한 상고사를 알고 싶은 분은 문의 하십시오.** ◆ **국사광복위원으로 모시려고 추천받고 있습니다.**

三國遺事卷第一

國尊曹溪宗迦知山下麟角寺住持圓鏡冲照大禪師一然撰

文學博士坪井九馬三

校訂

日下寬

紀異第一

叙曰。大抵古之聖人。方其禮樂興邦。仁義設教。則怪力亂神。在所不語。然而帝王之將興也。膺符命。受圖籙。必有以異於人者。然後能乘大變。握大器。成大業也。故河出圖。洛出書。而聖人作。以至虹繞神母。而誕義龍。感女登。而注炎。皇娥遊窮

注疑生說

三國遺事 卷一

小少言通

桑之野。有神童自稱曰帝子。交通而在小吳。隋以吞卵而生。契。姜嫄履跡而生。孕十月而生。堯龍交。夫。孕而生。而公。自此而降。豈可殫記。然則三國之始祖。皆發乎神異。何足怪哉。此紀異之所以漸諸篇也。意在斯焉。

古朝鮮 王儉 朝鮮

魏書云。乃往二千載。有壇君。王儉立都阿斯達。經云無萊山。亦云

云在關城東。今白岳宮是。開國號朝鮮。與高同時。古記云。昔有桓國。謂帝也。庶子

桓雄。數意天下。貪求人世。父知子意。下視三危。大伯可以弘益人

間。乃授天符印三箇。遣往理之。雄率徒三千。降於太伯山頂。即太

山妙香神壇樹下。謂之神市。是謂桓雄天王也。將風伯雨師雲師。而

避堯作高

< 원부의 변조하기전 원부 >

明治三十七年八月二十日發行
原部이 고려대학 圖書관이 보관중

明治三十七年八月十五日印刷

明治三十七年八月二十日發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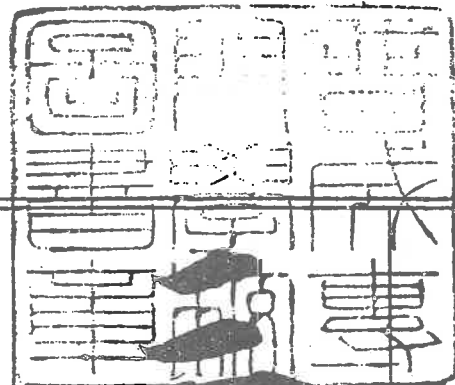
東京帝國大學



印刷者
發行書肆

吉川半七

東京市京橋區南傳馬町二丁目十二番地



文科大學史誌叢書

三國遺事

三國遺事

一

서기 1922년 이후
(일본이 변조한 내용) 然

一 然

三國遺事

李民樹譯

三國遺事

MEMORAB OF THE TH KING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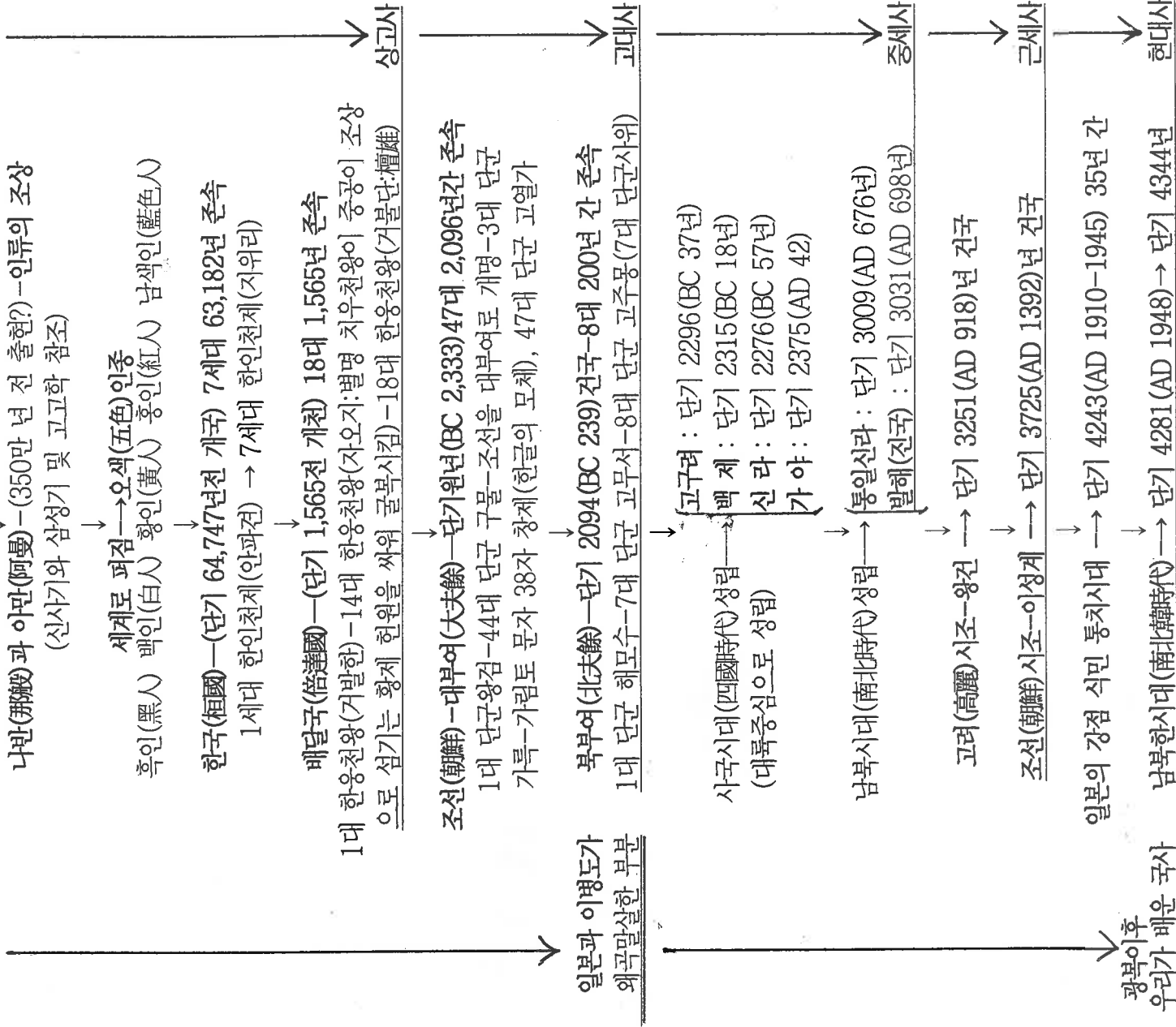
乙酉文化社

乙酉
文化社

EUL-YOO PU

우리 민족의 바른 역사 도표

애국가의 하느님(天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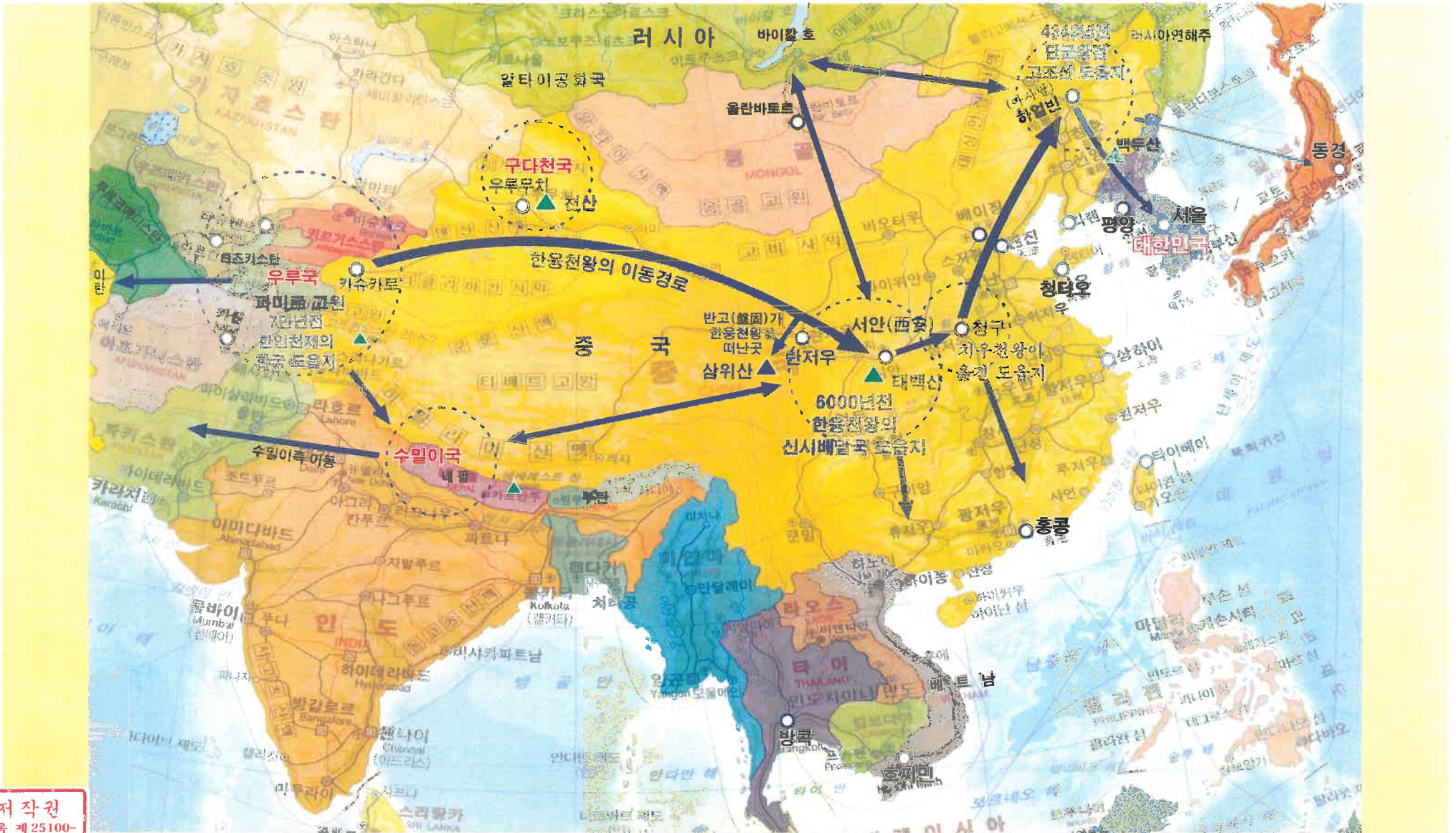
《나라를 사랑하는 길은 국사(國史)를 아는 것 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

- ※ 광복으로 주권은 회복하였지만, 민족의 일이 담긴 국사는, 아직도 일본의 식민치하에 놓여 있다. ※
- ※ 국사광복으로 민족정기를 회복하여, 자긍심을 갖게 하자. 현 학교교육의 국사는 배우지 말아야 한다. ※
- ◆ 민족의 뿌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 국사를 알아야 민족의 정체성을 안다. ◆
- ◆ 여성이 국사를 알면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훌륭한 어머니라야 자식을 훌륭한 인물로 키워낸다. ◆
- ◆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되는 길은 먼저 국사(國史)와 민족사상을 바르게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

일본(日本)이 왜곡말살한

우리 한(桓-韓)민족의 도읍지 변천 경로

일만년전 한국(桓國-12 小國으로 구성)의 강역(疆域-동서 2만리, 남북 5만리)



저작권
 등록 제 25100-
 2008-000040호
 不許複製

(사)배달민족진흥회(倍達民族振興會) 010-6587-5768